



메시아 2030 ~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 – 제 1 부

본 원고와 슬라이드는 영어로 된 원본 영상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youtube.com/@messiah2030



디지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Messiah2030.com

블루레이 디스크와 플래시 디스크

Messiah2030Disk.com

본 “메시아 2030 ~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 – 제 1 부” 문서는 이 영상 콘텐츠의 번역을 쉽게 하거나, 도움이 될 경우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콘텐츠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Messiah 2030 Project

contact@messiah2030.com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패턴을 캘린더 기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해석들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정확한 성경력 연도를 가리키는 수십 개의 성경의 예언과 패턴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 예언과 패턴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메시아의 초림은 서기 30년, 재림은 서기 2030년임을 알 수 있는 7,000년의 메시아 타임라인이 명확히 만들어집니다.

수십 개의 예언과 패턴들이 메시아가 초림하신 바로 그 연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언과 패턴들은 메시아가 재림하실 연도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과 패턴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메시아의 재림을 예측하는 데도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slid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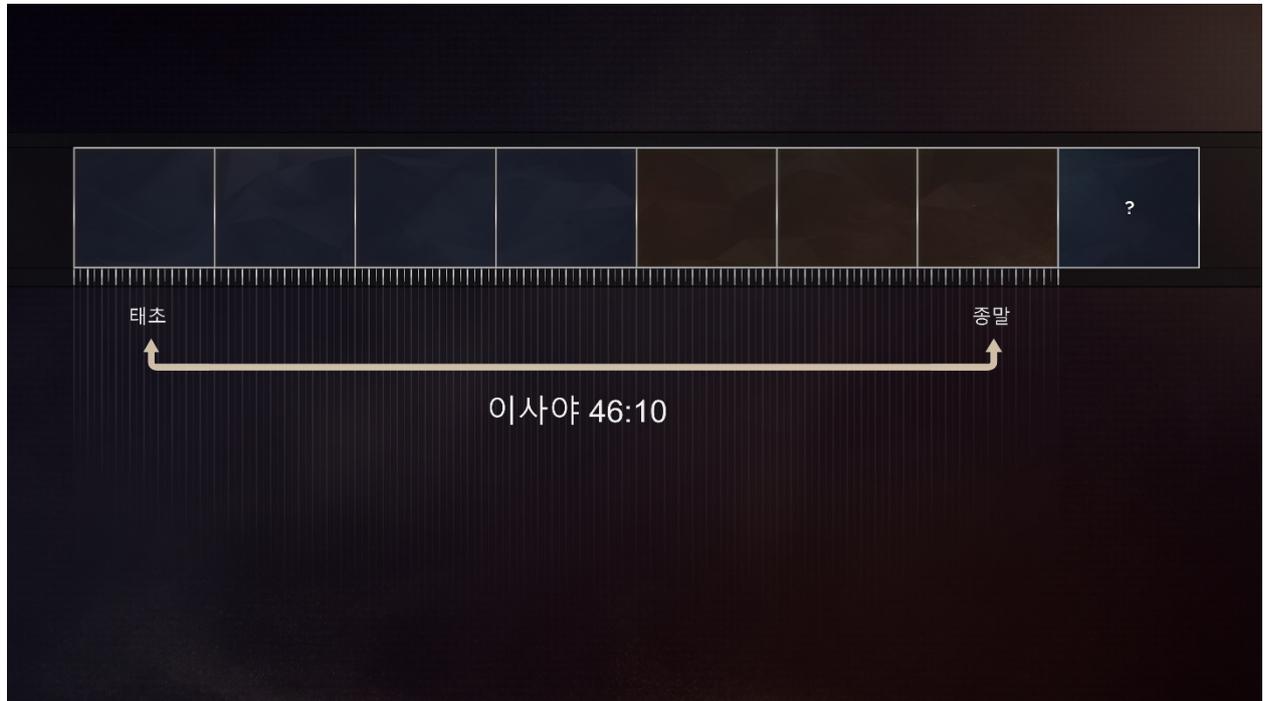
이 타임라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성막의 설계도에도 숨겨져 있고, 메시아의 비유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자세한 사건들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메시아 타임라인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것들을 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다룰 것입니다.

우연인가 예언인가? 결정하십시오.

창조 예언

선지자 이사야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6:10). 태초는 창세기 1 장 1 절 창조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slide 2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창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시려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한 순간에 완성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7 개의 창조 사건을 7 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7 일로 나타내시고, 각 날에 하신 일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7 일과 그에 해당하는 창조 사건들은 인류를 위한 7,000 년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완전한 계획과 시간이 성경의 첫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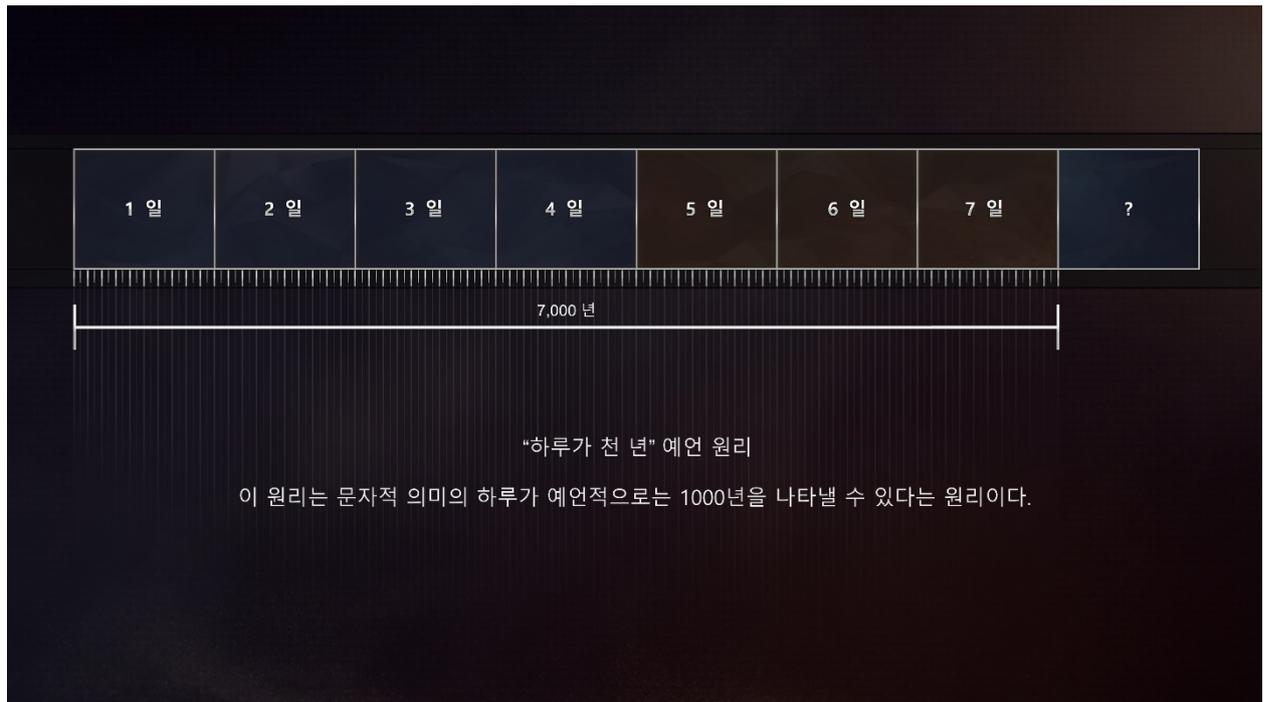
slide 3



창조 예언에 대해 자세히 밝히기 전에 먼저 중요한 예언 원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루가 천 년” 예언 원리

이 원리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하루를 말할 때, 문맥에 따라서는 예언적인 1,000 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일부 초기 기독교 저술에서 성경 예언의 "하루가 천 년" 원리가 발견됩니다.

바나바서신 15:3-5 서기 100년

그가 창조의 시작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옛새 만에 자기 손의 일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 자녀들아, 그가 옛새 만에 마치셨음은 무엇을 이룸인가. 그 뜻은 이러하니 6,000 년 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종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에게는 하루가 천 년 같기 때문이라. 그 자신의 말씀으로 증언하시기를, 보라 주의 날이 천 년 같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녀들아, 옛새 후 곧 6,000년 후에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오면 사악한 자의 때를 파하고 무신론자를 심판하며, 해와 달과 별을 바꾸고 일곱째 날에 진정으로 안식하겠다는 뜻이니라.

이레나이우스 Irenaeus 서기 150년

이 세상이 수 일간 창조되었은즉 이같이 수 천 년 후에 종말이 오리라. 이것이 이미 일어난 창조에 대한 설명이며, 또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 주의 날은 천 년과 같으니 이는 옛새 동안 피조물이 완성되었은즉 6,000년에 종말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함이라.

- 이단에 대항하여"책 5, 28, Against Heresies" Book 5, 28,

*이레나이우스는 폴리갑을 사사하였고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을 사사하였다.

성 메토디오스 Methodius 서기 300년

하나님께서 옛새 동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땅의 열매를 추수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여호와께 절기로 모이라고 명하신다. 이는 이 세상이 7,000년에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그 때 정해진 시간들이 성취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지으시기를 그치시는 때에, 일곱째 달에, 큰 부활의 날에 우리 초막절을 주께 올려드리라 명하신다.

- 열 처녀의 향연, 담화 9, 제1장 Banquet Of The Ten Virgins, Discourse 9, Chapter 1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창조와 연관시켰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하루가 천 년" 원리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8-10 에서 "주의 날"을 말할 때 하루가 천 년이라는 교훈과 어떻게든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오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며 조롱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하며 "하루가 천 년" 원리로 맞섭니다(베드로후서 3:1-7).

slide 5

The diagram consists of a horizontal bar divided into seven equal segments, labeled '1 일' through '7 일', with a question mark '?' in the eighth segment. Below this bar is a long horizontal line with a bracket underneath, labeled '7,000 년', indicating that the seven days correspond to 7,000 years.

베드로후서 3:8-10 **베드로후서 3:1-7 -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창조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루가 천 년 같고"의 원리를 성경 어느 구절에서 인용했습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구절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3-4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보다시피 이 구절도 1,000 년을 "하루"와 연결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의 저자는 특이하게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근거로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앞의 본문에 인간이 어떻게 "티끌로 돌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티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아주 잘 알고 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창세기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날 문자 그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모순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흙, 아담은 그 날 영적으로 죽었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죽은 것은 나중에야"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특정한 죄의 결과로서 문자 그대로의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하셨고 바로 그 죽음이 바로 그 날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15 초 정도까지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훨씬 나중에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담의 죄와 관련하여 죽음이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는 날"로 정해졌는데, 죽음이 아담에게 바로 그 날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의 24 시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일한 결론입니다.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신 "날"이라는 말의 상황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깊이 탐구하면 아주 흥미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

7,000 년

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여기서 "날" 은 결코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이 아니다. 아담이 문자 그대로 바로 그 "날"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으리라" = "휴으로 돌아가리라 - 창 3:19"

아담이 죽는 날까지 930 년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정확히 1,000 년에서 70 년 덜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반드시 그 동일한 "날"에 죽으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1,000 년을 "하루"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훨씬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1,000 년으로 이해한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날"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베드로가 1,000 년은 하나님께 어떤 맥락에서는 하루와 같다는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으로 창세기 2 장과 3 장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흥미진진해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더 고려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메시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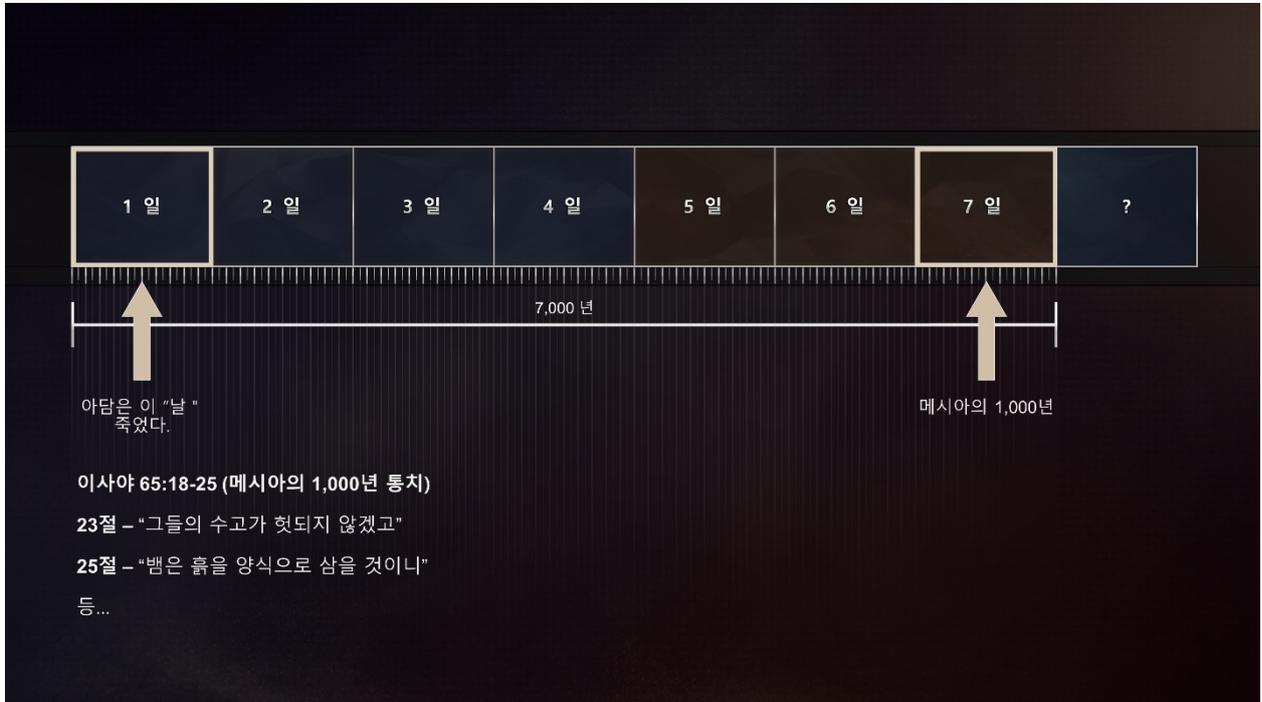
이사야 65 장 18 절에서 25 절까지는 메시아의 장차 올 1,000 년 통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 절 -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또는

25 절 -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slide 7



이 모든 구절들과 이사야 65 장의 말씀들은 메시아의 1,000 년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 장과 3 장의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에 직접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가 1,000 년 같다는 사실과, 우리 메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확실히 본 것 같이 아담은 930 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2 에서 바울은 메시아의 초림과 겹쳐서 메시아를 "마지막 아담"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초림에서 그는 아담의 표징이었고 930 세의 아담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에서 930 을 기억하세요.

22 절이 초림을 가리킨다면, 23 절-24 절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기간은 재림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3-24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가 다윗 왕의 표상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담이 930 세에 죽었듯 다윗도 70 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가 돌아와 다윗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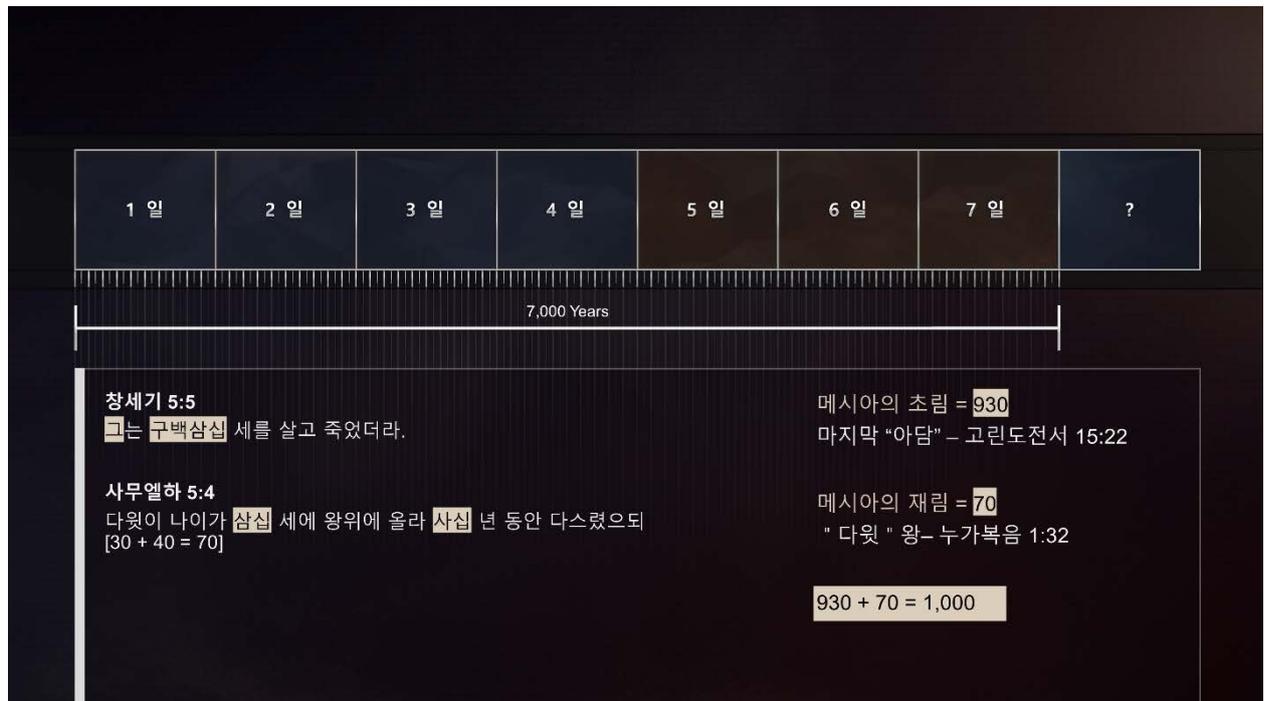
계산해 봅시다.

메시아는 초림하실 때 마지막 아담으로서, 930 세에 죽은 아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재림하실 때 그는 다윗 왕으로서, 70 세에 죽은 다윗 왕과 연결됩니다.

$$930 + 70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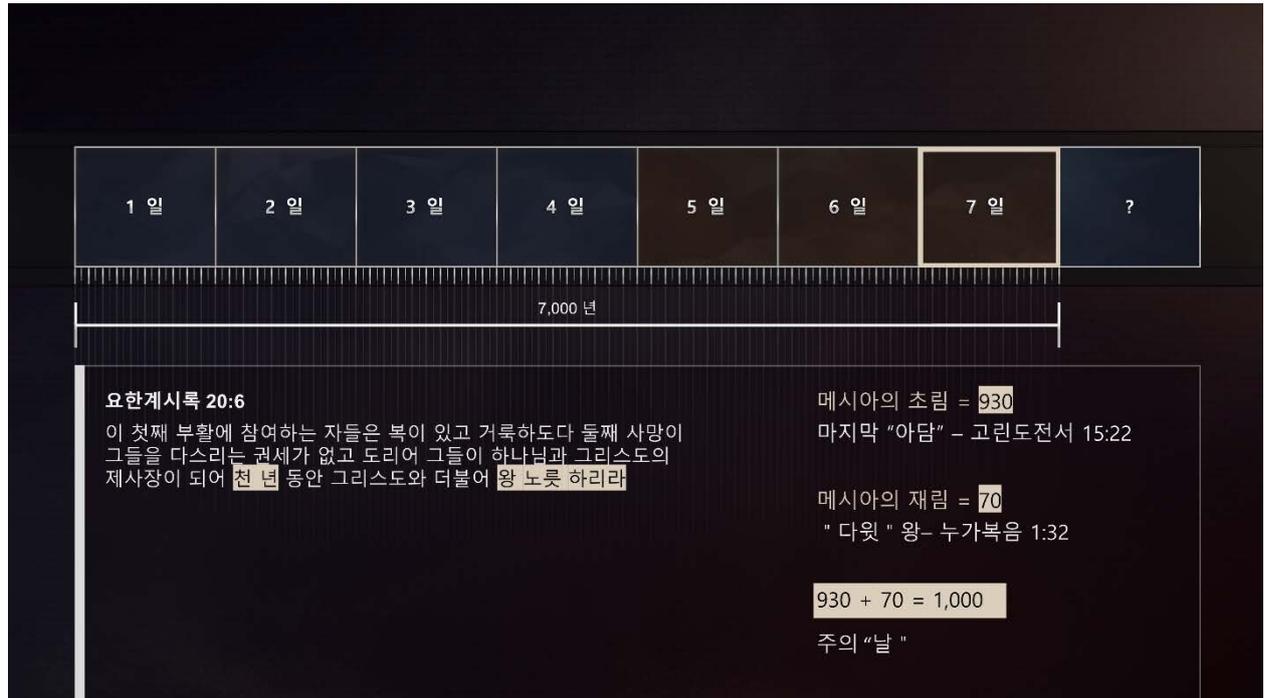
slide 8



우리 주와 메시아의 통치를 1,000 년으로 직접 연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이미 확실해진 것 같이 "하루(날)"는 천 년과 같으며, 우리 주 메시아께서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예언에서 천 년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 3 에서 왜 베드로가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언급하면서 주의 날을 가리켜 말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루가 천 년 같다는 예언의 본질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예를 훨씬 더 많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아주 명철하게 적용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땅과 물이 특정한 날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흥미롭게도 세상이 또한 물로 멸망했다는 공통점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는 창조 둘째 날과 노아의 홍수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 뜻은 창조 둘째 날 노아의 홍수가 몇 번째 천 년에 일어날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

7,000 년

창조 둘째 날 = 물이 땅을 덮음
둘째 1000년 = 노아의 홍수 = 물이 땅을 덮음

베드로후서 3:4-7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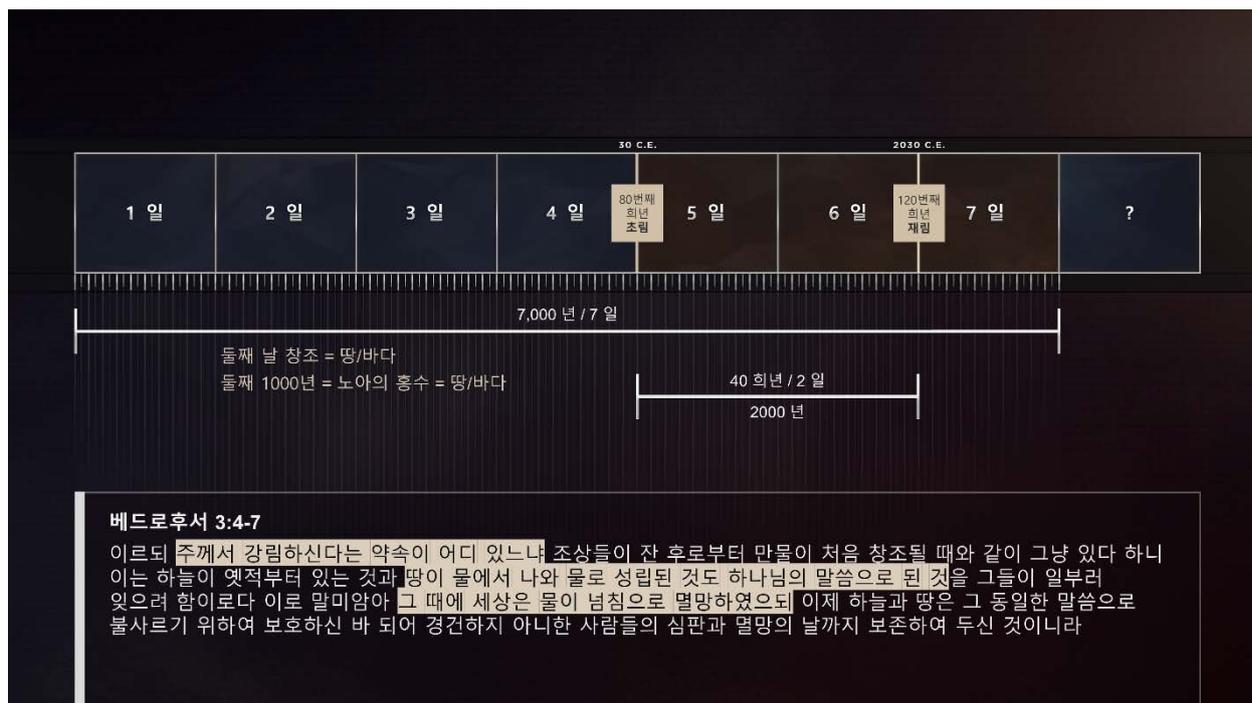
메시아가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시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왜 이런 통찰로 대답했을까요?

메시아의 재림과 창조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합니다.

베드로는 창조 이야기를 예언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법을 아주 멋지게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읽는 자들이 이 통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여지를 줍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날을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전체 계획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대해 특정한 두 개의 시간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간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숨은 결론은 메시아의 재림이 약 2,000 년 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원리로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의 재림이 2,000 년 뒤라고 했지만 그 2,000 년은 이제 거의 지났고 메시아의 재림은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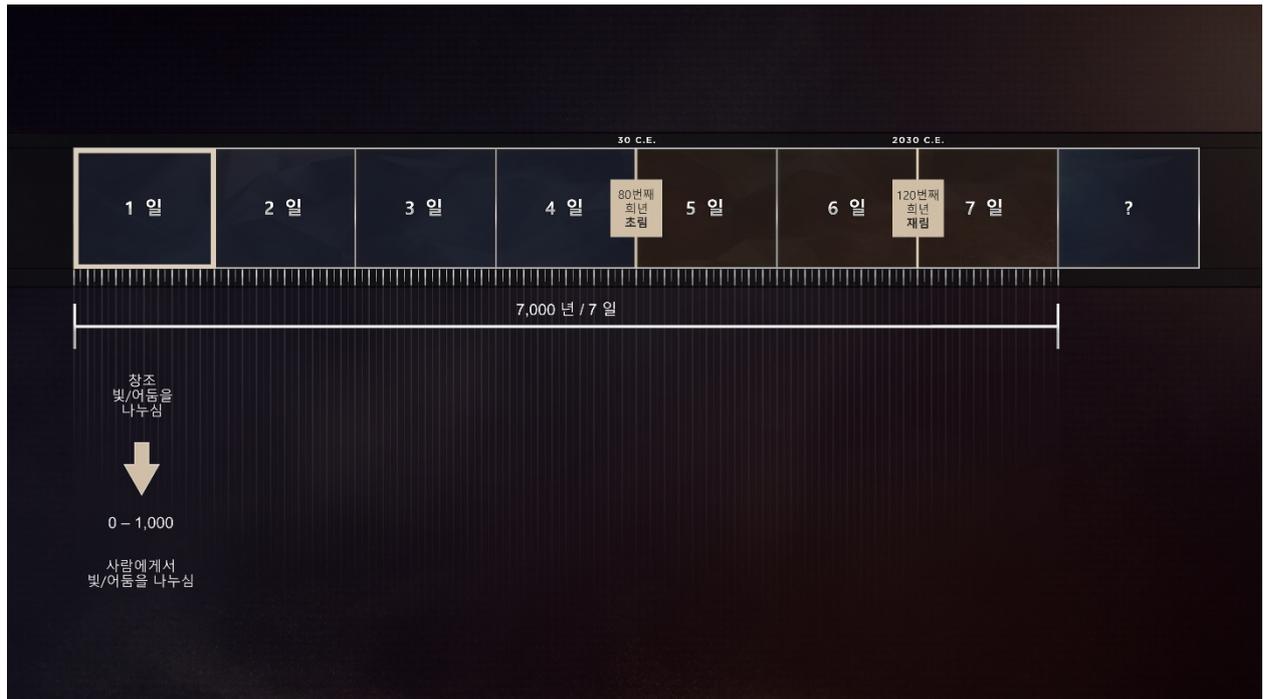
창조 예언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날 (성경력 0 년 ~ 성경력 1,000 년)

창조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뉘었습니다 (창세기 1:3-5). 인류의 첫째 천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모든 사람에게 어둠이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12)

사람 안의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나뉘음이 창조 첫째 날의 성취입니다.

slid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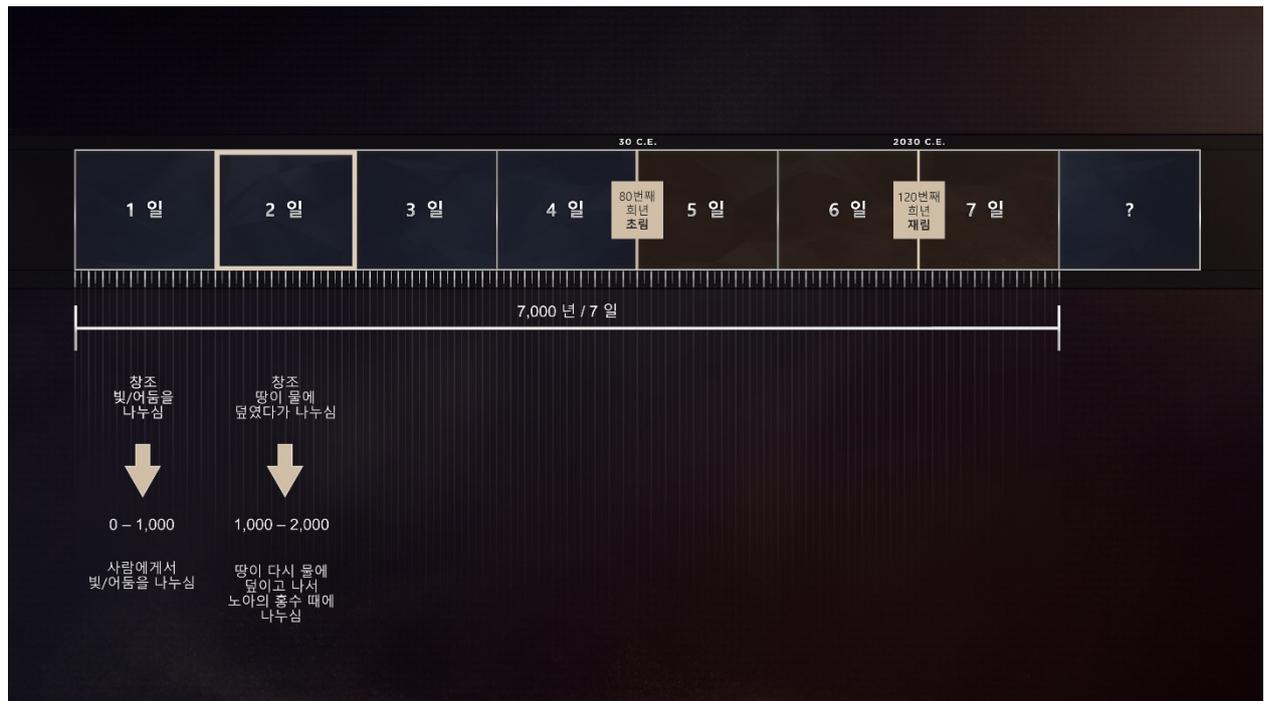


둘째 날 (성경력 1,000년 ~ 성경력 2,000년)

베드로가 이미 연관지었듯이(베드로후서 3:8-10) 창조 둘째 날 땅이 물로 덮이고 난 뒤 궁창 아래의 물이 궁창 위의 물로부터 나뉘게 하셨습니다(창세기 1:6-10). 인류의 둘째 천년에 땅은 다시 한번 깊음의 샘의 물과 하늘에서 내린 비로 뒤덮였습니다(창세기 7:19). 물은 다시 땅 아래로 물러났고 하늘 위로 증발했습니다(창세기 8:1-5).

홍수는 창조 둘째 날의 성취입니다.

slid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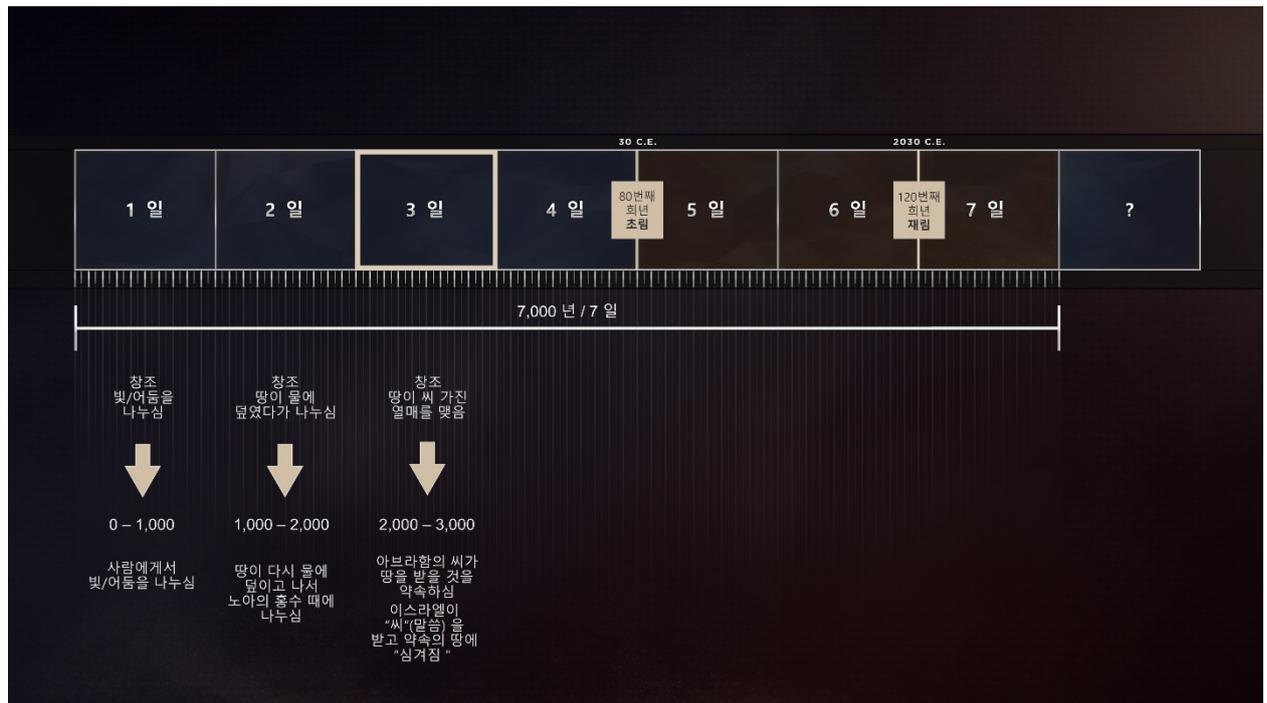


셋째 날 (성경력 2,000년 ~ 성경력 3,000년)

창조 셋째 날, 땅을 주셔서 땅이 씨 가진 열매를 맺었습니다(창세기 1:9-13). 마찬가지로 인류의 셋째 천년에 아브라함도 그의 씨가 땅을 받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창세기 22:18, 26:4, 35:12). 또한 인류의 셋째 천년에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토라 *Torah*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합니다(누가복음 8:11).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 토라를 주심, 약속의 땅은 창조 셋째 날의 성취입니다.

slid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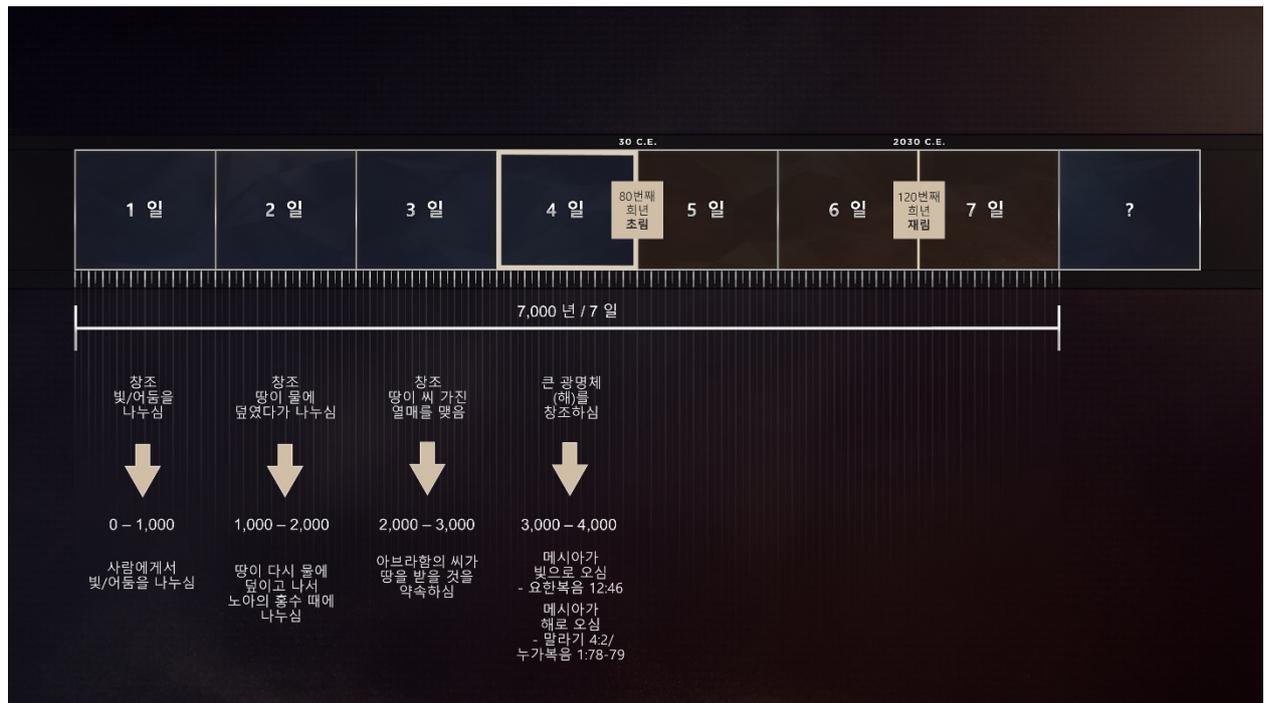


넷째 날 (성경력 3,000년 ~ 성경력 4,000년)

창조 넷째 날, 큰 광명체인 해가 창조되었습니다(창 1:14-19). 인류의 넷째 천년이 끝날 무렵에, 우리 메시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날개¹에 치료를 품고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로서 말라기 4:2 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8-79 에 메시아가 태양과 관련된 것도 살펴보십시오.]

메시아의 초림은 창조 넷째 날의 성취입니다. 그는 정확한 때에 오셨고, 정확한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slid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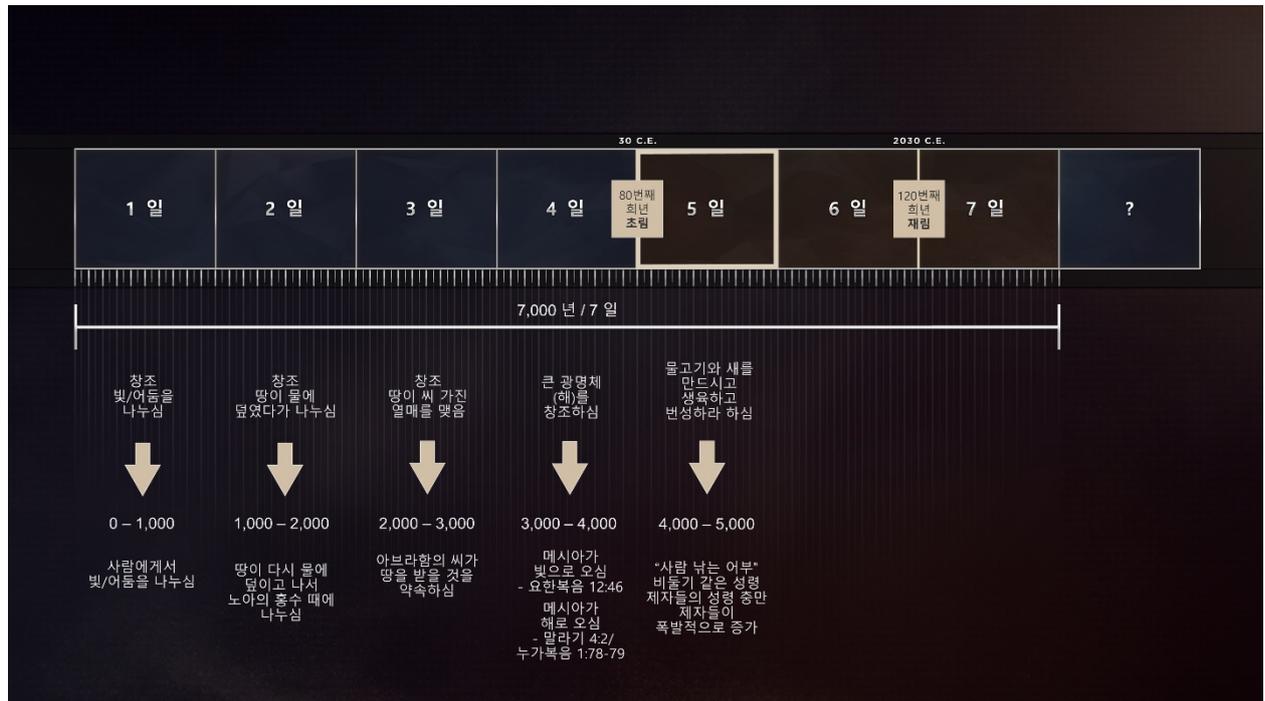
¹ 말라기 4:2 의 한국어 역본들은 광선 ray 을 채택하였으나, NIV 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본에서는 날개 wings 를 채택하고 있음-역주

다섯째 날 (성경력 4,000년 ~ 성경력 5,000년)

창조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르셨습니다(창세기 1:20-23). 인류의 다섯째 천년이 시작될 바로 그 때, 메시아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마태복음 4:19)가 되었고, 비둘기(요한복음 1:32)로 상징되는 성령이 제자들을 충만하게 했습니다(사도행전 2:2-4). 새와 물고기가 번성하는 것처럼 메시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28:19-20).

메시아의 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창조 다섯째 날의 성취입니다.

slid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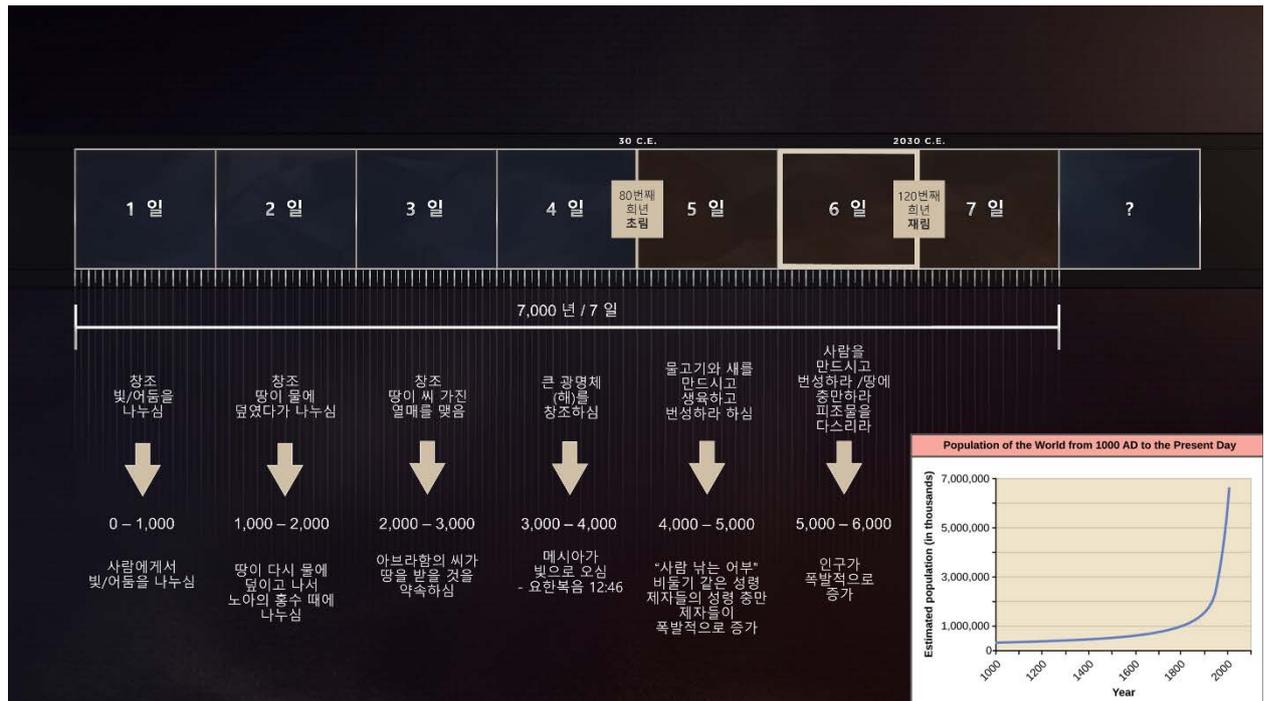


여섯째 날 (성경력 5,000년 ~ 성경력 6,000년)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피조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28-31)고 명하셨습니다. 인류의 여섯째 천년이 끝날 무렵,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땅에 충만하여 전례 없이 막강하게 피조물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한 것이 창조 여섯째 날의 성취입니다.

slide 17



일곱째 날 (성경력 6,000년 ~ 성경력 7,000년)

안식일 예언

이제 예언적 창조 이야기에서 "마지막 날"(요한복음 11:24; 12:48)만 남았습니다.

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은 안식일, 히브리어로 샤밧 *Shabbat*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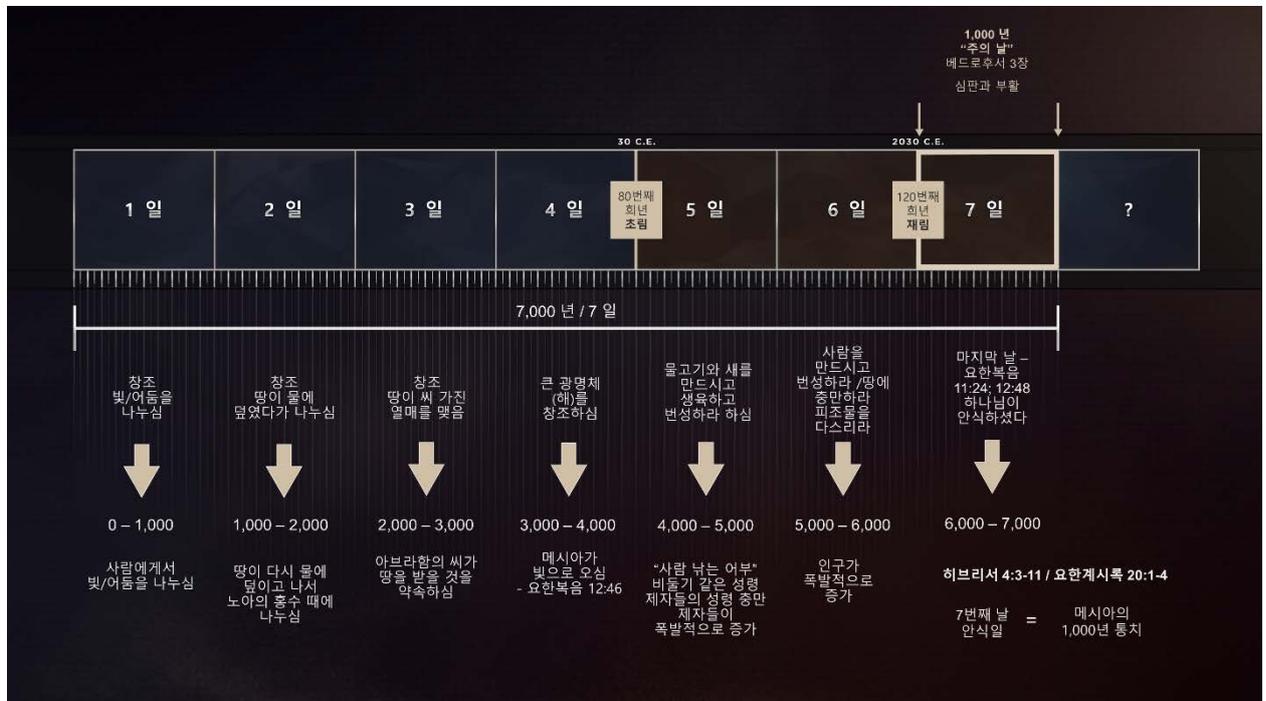
히브리서 4: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이 메시아의 천 년 통치를 그리고 있다고 가르칠 때 안식일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날"(천 년과 같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일 것이며, 창조의 날들이 창세기 1장, 시편 90:4, 베드로후서 3:8-10절에 따라 천 년이듯 당연히 천 년이 될 것입니다.

slid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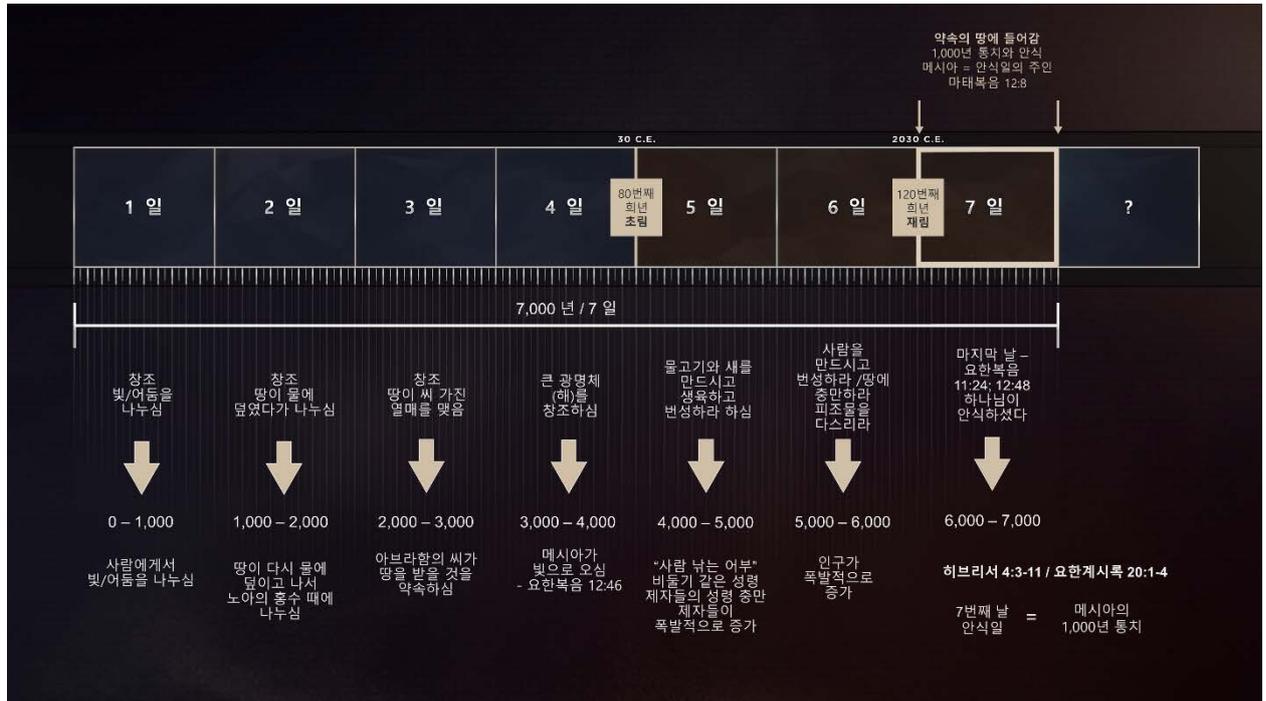


이 1,000년은 성경 예언에서 "주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되돌아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루가 천 년" 원리를 말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날"도 1,00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주의 날"에 이렇게 많은 메시아 예언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24시간이 아니라

심판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1,000년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야가 오셔서 우리를 모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7,000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고 안식할 것이며 이로써 일곱째 날 안식일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메시야는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마 12:8)이라 하신 것입니다.

slid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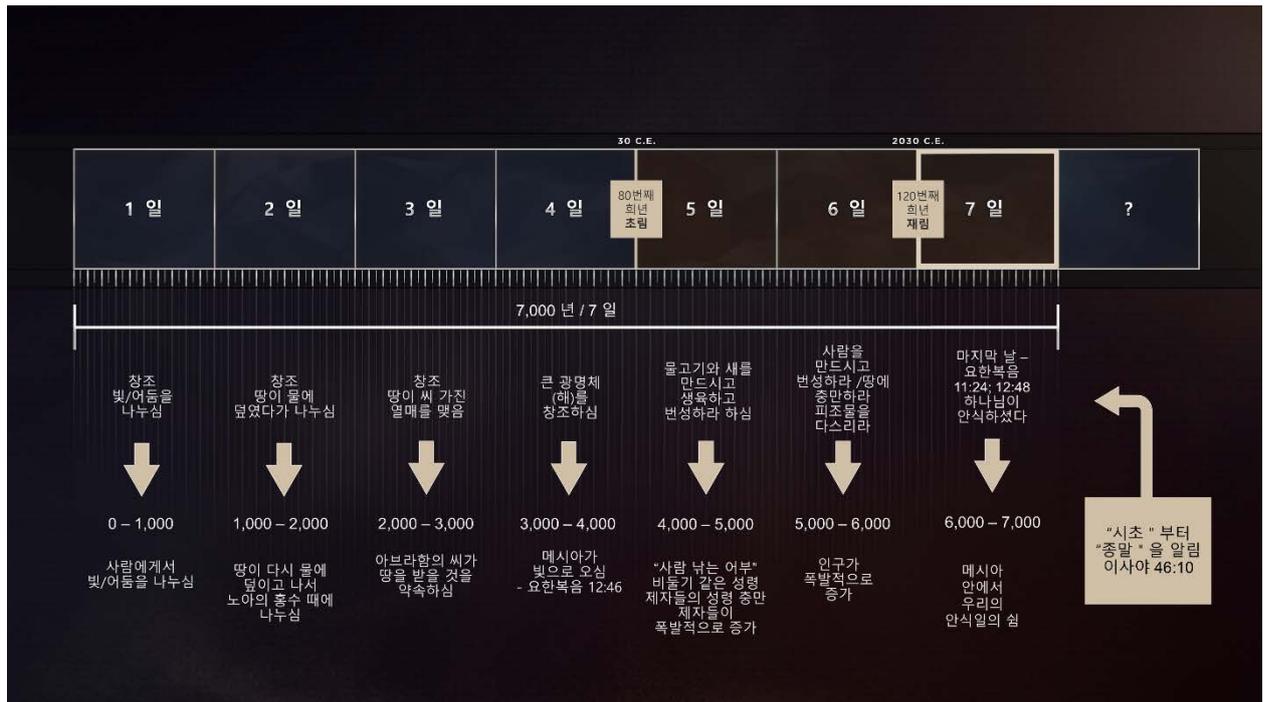


우리 메시야의 1,000년 통치는 창조 일곱째 날의 성취, 즉 우리의 안식일 안식입니다.

창조 예언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7,000년 동안의 완전한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실 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여주십니다(이사야 46:10).

우리 메시야는 넷째 날 끝 무렵에 오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첫째 날 유월절과 다섯째 날 초실절 사이였습니다. 창조 예언으로 타임라인이 만들어졌고, 곧 더 많은 예언과 패턴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메시야의 죽음, 장사, 부활과 재림 사이가 어떻게 정확히 2,000년 또는 "이틀"이 되는지 주목하세요. 이 "이틀"은 나중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첫 한 이레는 처음 7,000 년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메시야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적으로 계시해줍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몇십 개의 예언과 패턴들이 있습니다. 눈치챌겠지만 모두 같은 타임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곱 중 넷” 패턴

이미 확인한 것처럼 넷째 날과 일곱째 날은 우리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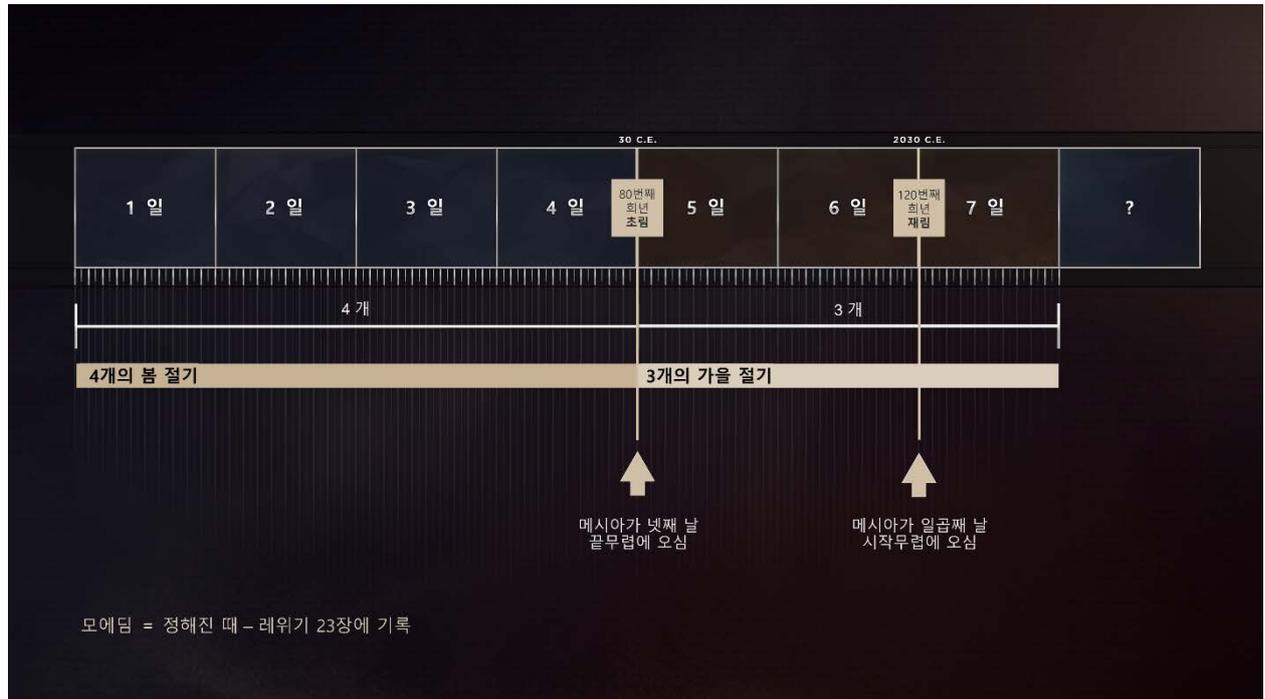
안식일이 모에딤² mo'edim² 중 한 날로서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매 해의 모에딤도 비슷한 이치로 예언적 사건입니다. 매년의 모에딤을 보면 넷째 날과 일곱째 날이 메시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과 일곱째 날은 중요합니다. 이미 성취되었거나 장차 성취될 예언의 시기로서 우리를 위해 연중에 배치된 모에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에딤은 그냥 "정해진 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메시아 예언의 최종 리허설 시기이며 이 때를 레위기 2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정해진 때는 보통 네 개의 모에딤으로 이루어진 봄 절기와, 세 개의 모에딤으로 이루어진 가을 절기로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비학에 따라 메시아의 예언적인 계획도 구별되게 두 번 “오심”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slid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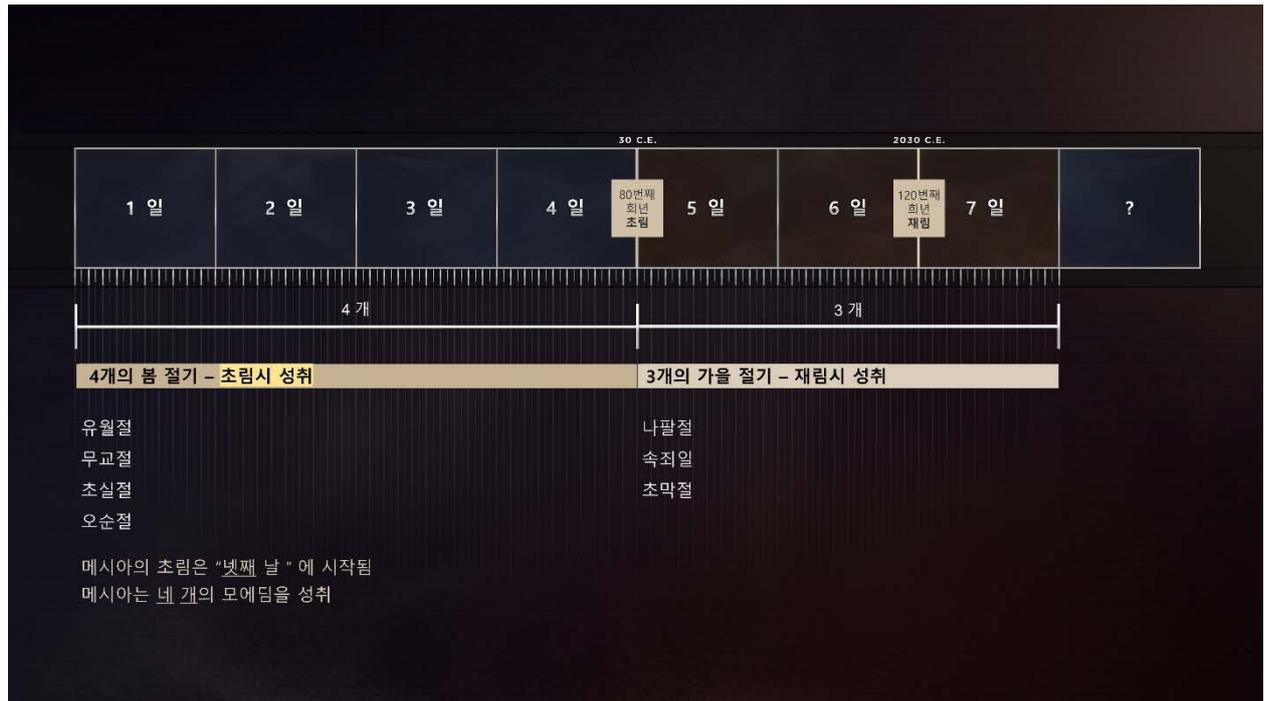
첫 네 모에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마지막 세 모에딤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² 히브리어로 '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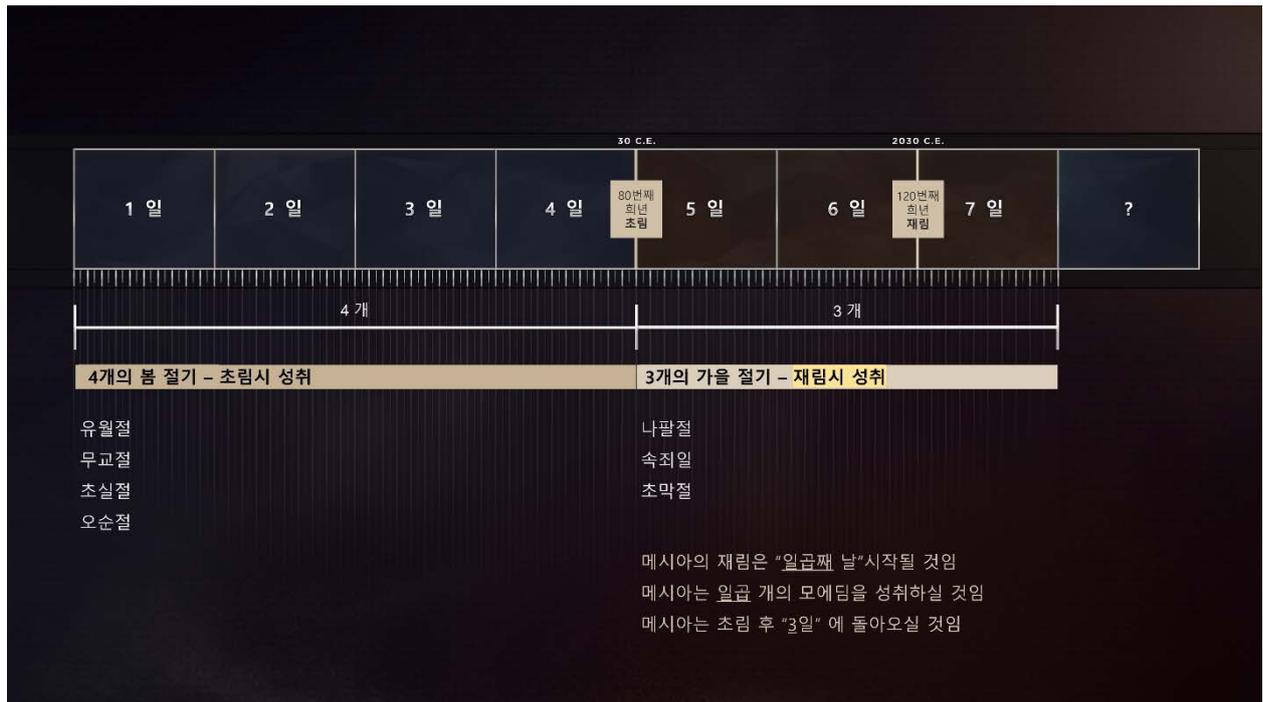
첫 네 모에딤은 우리 메시아가 초림에서 성취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는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었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었듯 그로부터 50일 후 초실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넷" 이 "네 개의 모에딤"으로서 예언이 성취되어 "넷째 날"에 시작된 메시아의 초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알게 됩니다.

slide 22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모에딤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재림하실 때 큰 소리 또는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가을의 첫 모에딤인 나팔절로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만국에 대한 심판이 있고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련하여 어린양의 혼인 잔치 비유가 성취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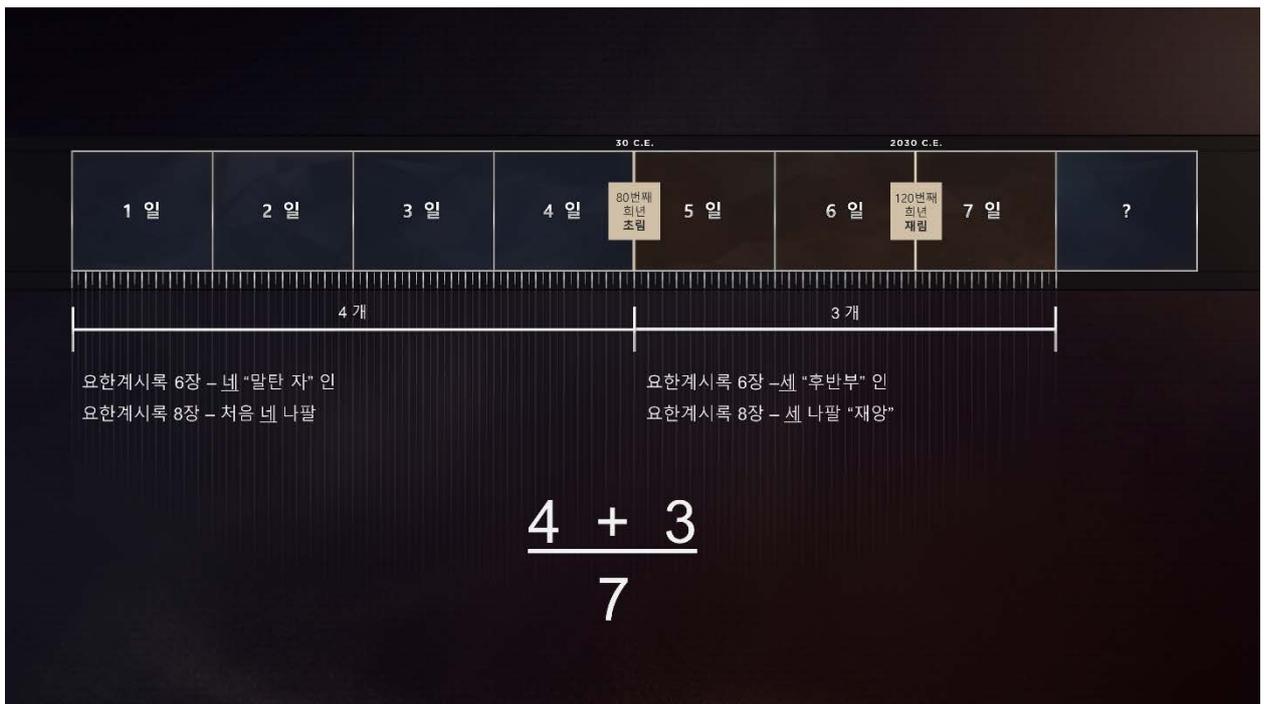
초림의 처음 네 모에딤은 재림의 마지막 세 모에딤과 연결됩니다. 총 일곱 개의 메시아 모에딤은 일곱째 날의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일곱 모에딤"의 "일곱"이 메시아의 재림과 직접 연결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창조 "일곱 날" 중 "일곱 번째 날"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 중 넷"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이 넷째 날이었고 메시아의 재림은 일곱째 날일 것임을 나타냅니다.

"일곱 중 넷" 패턴은 레위기 23 장의 모에딤에 나타납니다. 계시록의 일곱 인 가운데 처음 네 개의 인은 네 명의 말 탄 자입니다(요한계시록 6 장).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 재앙 중 처음 네 나팔은 마지막 세 나팔 재앙과 구별됩니다(요한계시록 8 장). 이러한 메시아의 넷과 일곱 패턴은 성경에서 지나치리만큼 강조됩니다.

slid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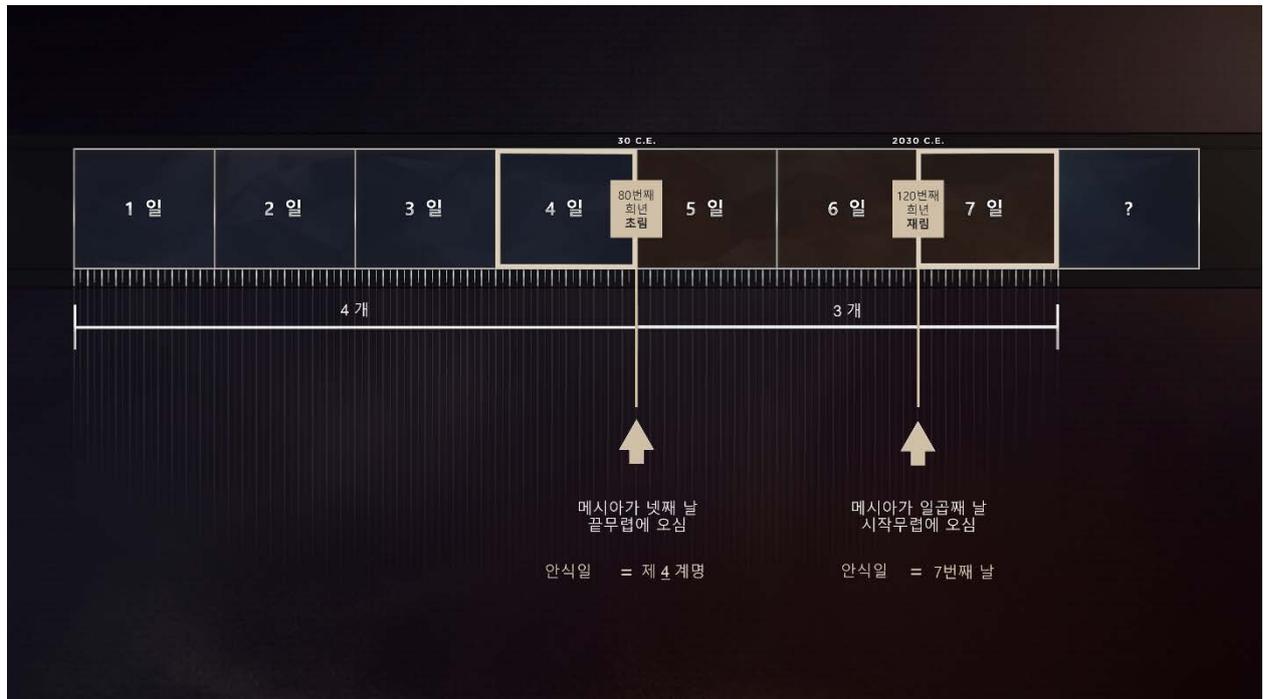
제 4 계명 예언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넷째 날과 일곱째 날 패턴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모에담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인에서 본 패턴을 십계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일곱째 천년에 들어갈 안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메시아 예언입니다(히브리서 4장).

그래서 넷째 날과 일곱째 날 패턴이 십계명에도 나타납니다.

slide 25



호세아 예언

부활이 언제가 될 지 호세아는 한 점도 감출 것 없이 알려줍니다. 이틀 후에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천 년" 원리는 호세아에게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그 원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부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부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부활]

이틀 후 즉 2,000년 후에 우리는 고대하던 부활을 하게 됩니다.

slide 26



희년 원리

이제 "희년 원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가 천 년" 원리에 예언의 단위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희년도 50 단위로 나타납니다(레위기 25:8~12).

예언의 희년 단위 50은 성경에 수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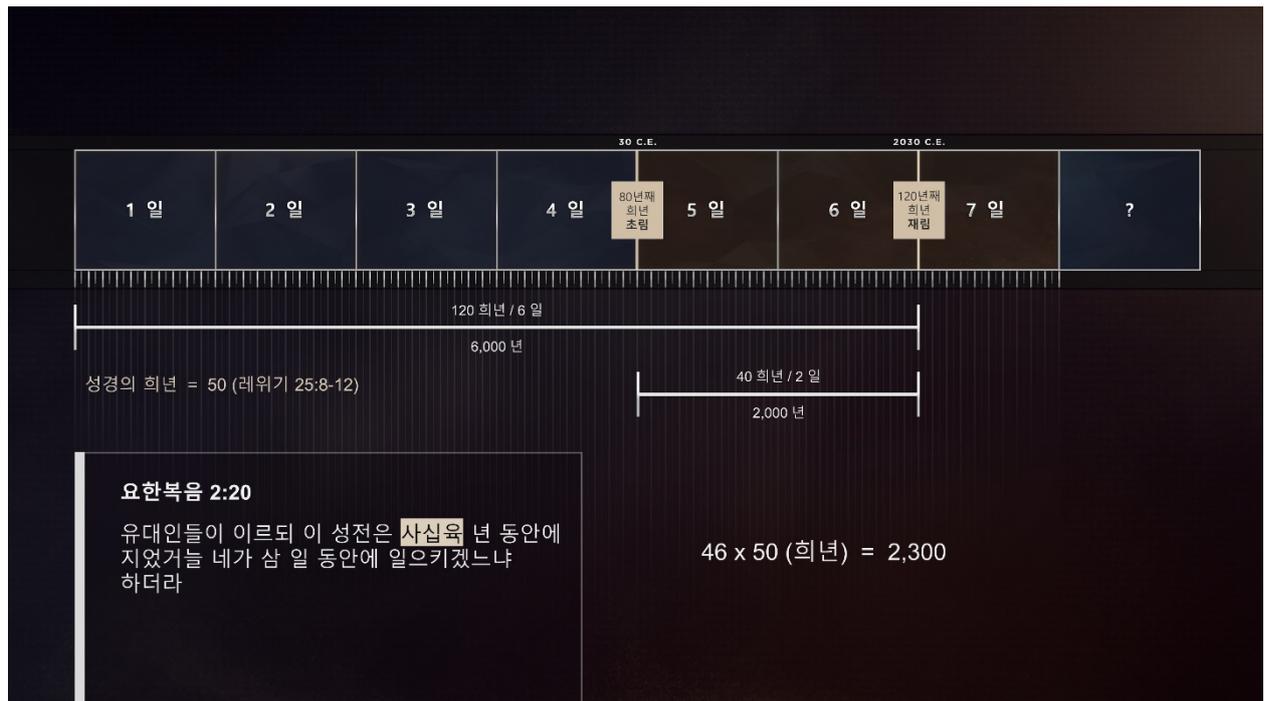
요한복음 2: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얼핏 보면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세부적인 요소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알려주신 것입니다. 희년이 예언의 시간 단위인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6년에 희년 단위 50을 곱하면 2,300이 됩니다.

slide 27



2,300은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다니엘 8: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직접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2,300과 관련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희년 원리의 유용성을 알게 합니다. 희년 원리는 아주 많은 예언의 때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창세기 6장 예언

창세기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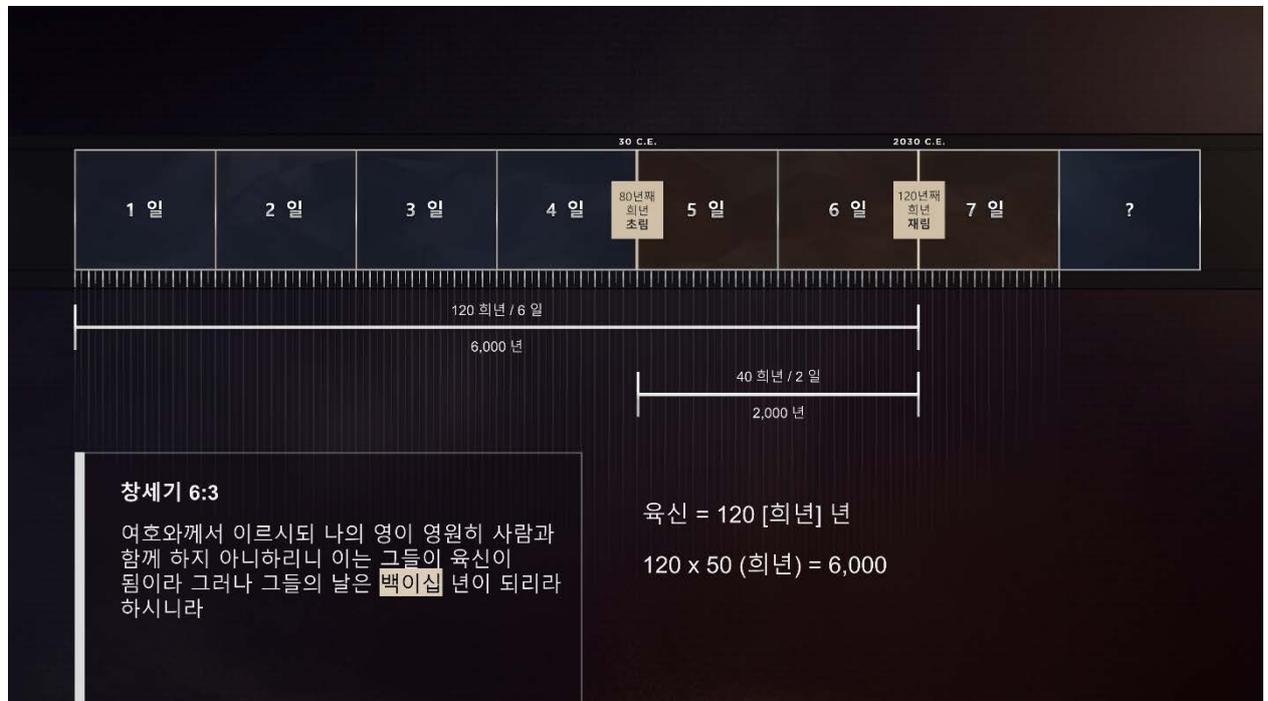
ESV역본은 "함께 하다 *abide in*"를 채택하였지만 많은 역본에서는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이상 "다투다 *contend wit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다투지 않고 120년 동안만 다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투다는 것은 "대항하여 분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120년 넘게 인류와 다투어 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다투거나 그분께 저항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인류와 다투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와 다투시는 것에 시한을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수한은 불과 120년이라고 합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혈과 육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창세기 6장으로부터 겨우 120년 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언의 렌즈를 통해 120년을 희년 단위로 보면 희년 원리로 6,000년이 됩니다.

slide 28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인간의 육신과 6,000 년간 다투는 것이지만, 6,000 년 말에는 끝이 납니다. 6,000년의 끝에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육신을 벗어 버립니다. 6,000 년 즉 "6일" 동안 육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지만 일곱째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욘 5: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인간의 "날"은 여섯 날이고, 일곱째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마지막 날 곧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예언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120세였습니다(신명기 34:70).

예언의 "희년 원리"를 적용하면 모세의 죽음이 6,000년(120 x 50)의 종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재림의 시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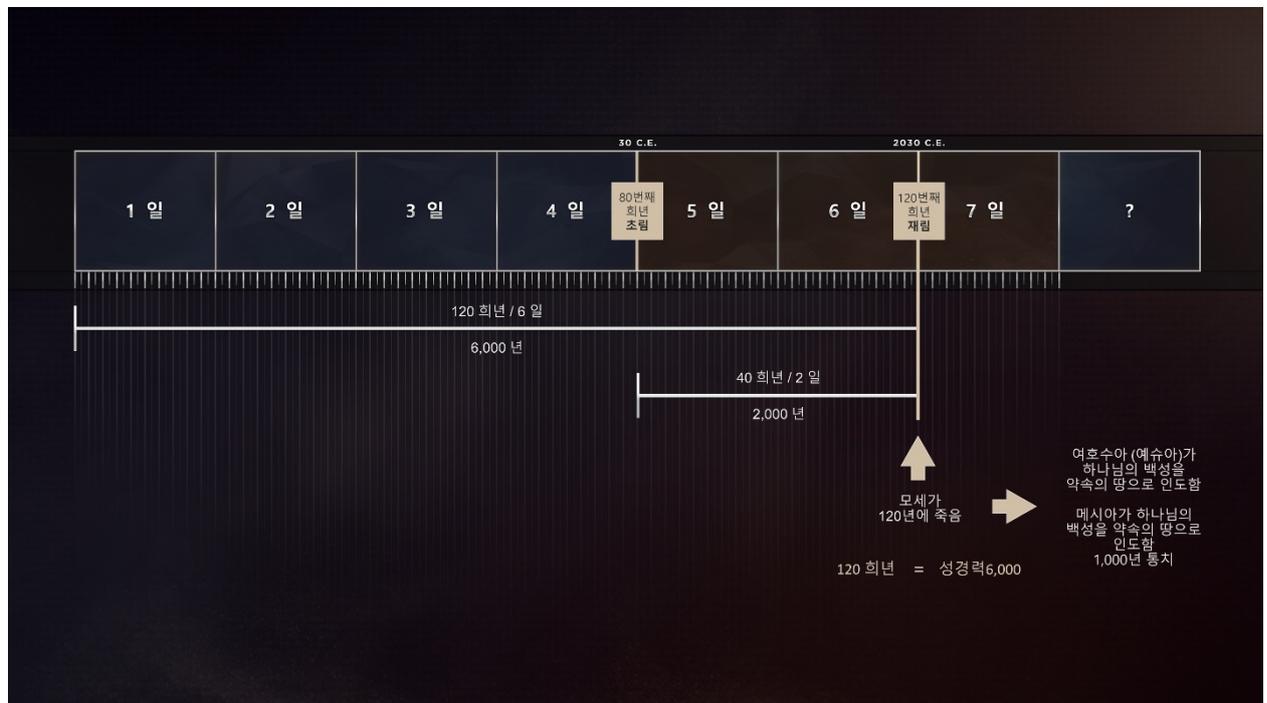
모세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메시아가 돌아오시면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예수아)와 우리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정확히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모세가 120년에 죽었다는 것은 인류의 6,000년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메시아도 성경력 6,000년에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slide 29



희년 예언

성경의 희년은 예언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언대로 메시아가 두 번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실지도 알 수 있게 합니다. 희년에는 두 개의 메시아 예언 요소가 있는데(레위기 25:8-12), 이것은 메시아가 두 번 구별되게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 1) 자유가 선포됩니다.
- 2)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희년의 첫 예언 요소는 우리가 자유임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1세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곧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지만 우선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의 해가 가장 정확한 희년이었던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16-19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메시아께서 희년의 첫 성취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메시아의 희생에 대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죄사함³[희년] 이 없느니라

그리스어 아페시스 *aphesis*는 ESV 역본에서 "죄사함"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된 토라에서 아페시스는 "희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본문에는 "죄"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22

³ 한국어 개역성경에는 "사함"이나, 원문에서 인용한 ESV 버전은 죄사함 forgiveness of sins 으로 표현하였음-역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희년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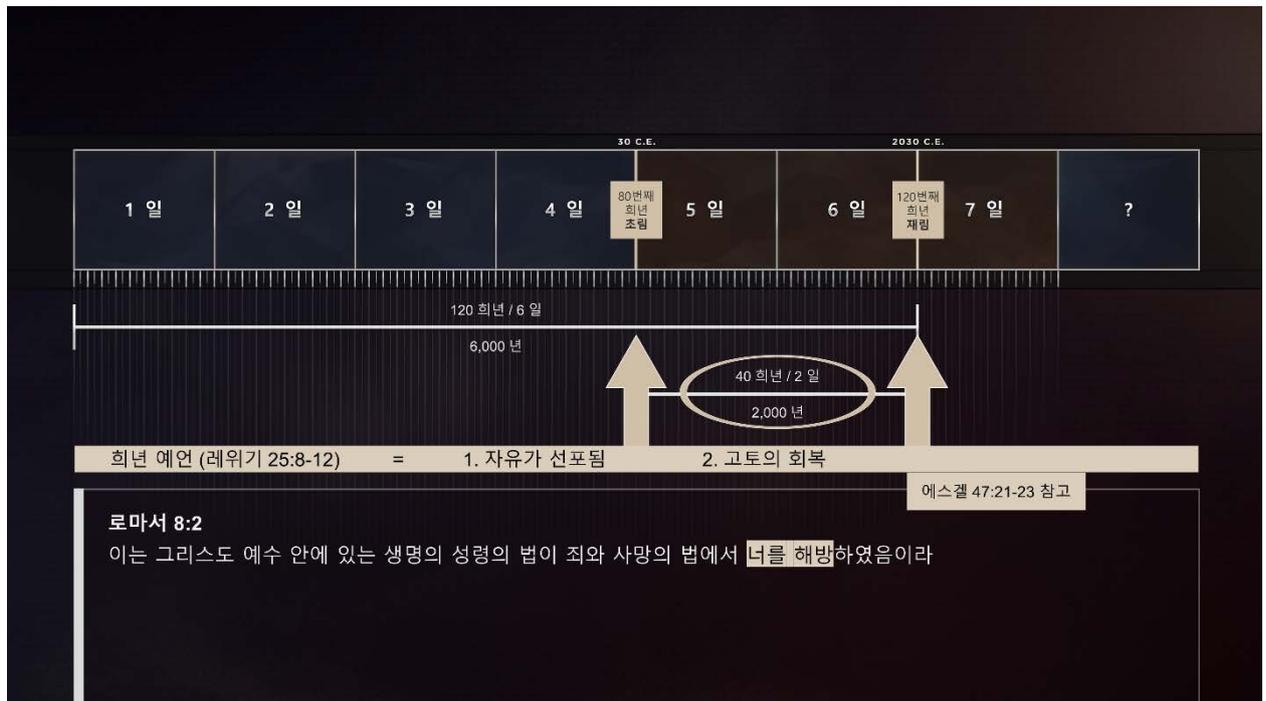
메시아의 희생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로마서 8:2).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희년 예언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메시아는 희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희년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희년 예언의 성취는 두 가지이고, 두 번째 성취는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의 두번째 예언 원리는 우리를 고토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아직 이 일을 성취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에 나타난 양식을 보면 희년의 첫 번째 성취인 자유와 두 번째 성취인 고토의 회복을 정확히 40 희년 즉 2,000 년 간격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우리는 고토로 인도될 것입니다. 고토가 우리에게 반환되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지파와 함께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지파가 없는 사람들, 즉 접붙여진 이방인들은 어디든 정착한 땅이 자기의 지파가 되고,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같이 여겨질 것입니다(에스겔 47:21-23).

slide 30



땅이 희년인 50년, 안식년인 7년에 안식하는 것처럼, 이 두 해는 메시아가 우리를 고토로 인도하여 들이는 일곱째 날 또는 1,000년(하루)동안 우리가 안식을 얻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 예언

메시아는 모세에 비유되는 선지자입니다(신명기 18:15). 메시아의 예표인 모세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출애굽기 예언을 알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희년 원리”를 출애굽 예언에서 시기를 알아내는 열쇠로 사용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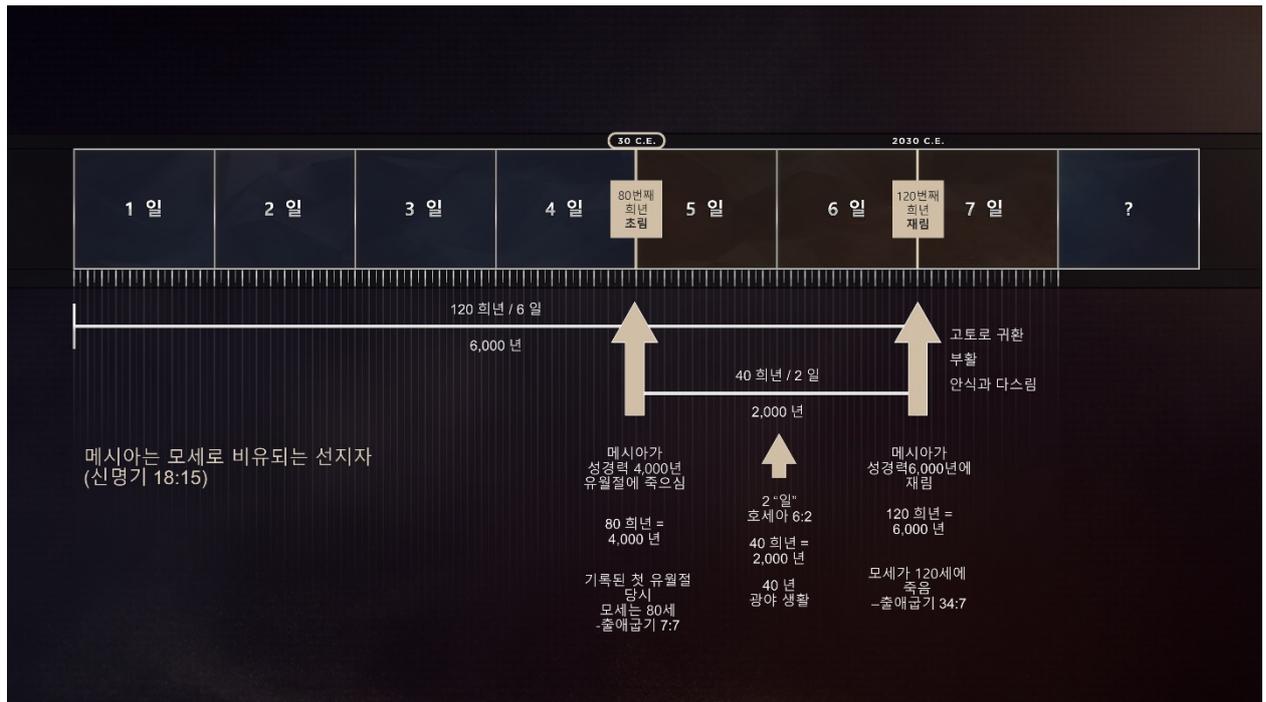
모세는 기록된 첫 유월절에 80세였고(출애굽기 7:7),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80 x 50(희년)은 정확히 4,000 입니다. 그래서 성경력으로 정확히 4,000년은 메시아가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던 해이고, 메시아께서는 실제로 그 정확한 해에 죽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유월절에 죽으셨고 성경력 4,000년, 즉 5일 째에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성경력 4,000년이 그레고리력 서기 30년과 어떻게 같은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40 x 50은 2,000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유로 거의 2,00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호세아 6:2)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신명기 34:7). 120 x 50은 정확히 6,000입니다. 성경력 4,000년이 메시아가 선지자 임무의 첫 부분을 완수한 해였듯이, 성경력 6,000년은 메시아가 지상에서 다윗 왕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해입니다.



거의 2천 년 동안 우리는 광야를 헤매며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으로 그와 함께 안식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같은 히브리 이름을 가진 우리 메시아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00규빗 예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와 그것을 멘 레위 제사장으로부터 정확히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여호수아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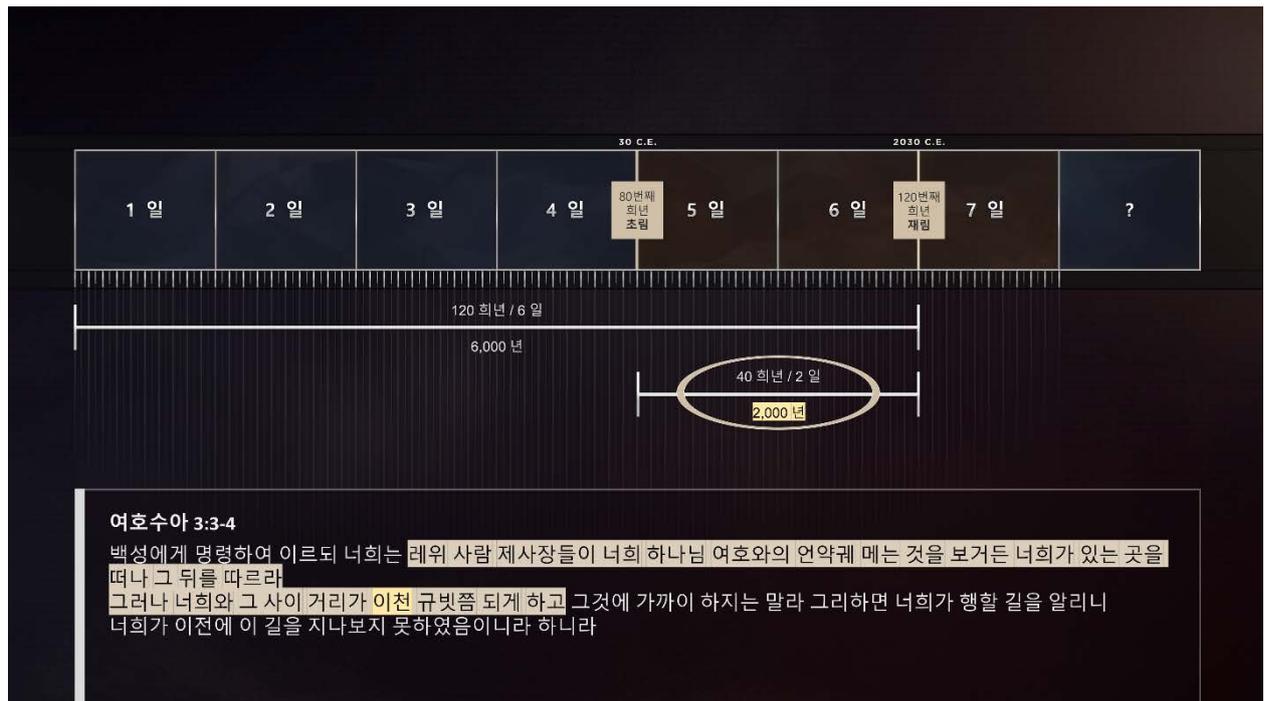
여호수아 3:3-4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단강 도하 지점에서 정확히 2,000규빗을 언급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모인 것과 메시아께서 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사이의 2,000년의 간격에 대한 선명한 예언의 그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비유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훗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간격이 문자 그대로 2,000년이라는 것입니다.

slide 32



나사로 예언

"나사로 예언"은 "2,000규빗 예언"과 비슷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런 예언 패턴을 해석하는 데 증거가 되어 증명에 도움을 줍니다.

메시아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메시아는 일부러 요단 강 저편에 "이틀"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메시아는 이제 유대로 "다시" 돌아갈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더 머무르시고 그 후 "다시" 돌아오심에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11:5-7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메시아가 요단 저편에 머무르신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요단 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다시 "희년 원리"를 적용하면, 40년은 예언의 시간으로 2,000년, 즉 "하루가 천 년" 원리로 정확히 이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서 언급된 2,000규빗의 간격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slide 33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부활의 사건이 예표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메시아는 나사로에게 가기 전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하루가 천 년" 원리는 그가 재림하시기 전 2,000년간 지체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때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 예언"에서 계시된 예언 패턴은 메시아가 "이틀"간 지체하신 후 "다시" 오실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10-13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심지어 "마지막 날"에 있을 장차의 부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메시아께서도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23-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음 구절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달려오는지 주목하십시오. 신랑이 돌아와서 우리를 부를 때, 마리아는 신부로 비유되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빨리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28-29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여기서 비유적으로 일어난 일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40-4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메시아가 “이틀” 유하시고 돌아온 뒤 부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날을 나타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핵심 연결 구절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지만 부활할 때에야 영원히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언

메시아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에서도 이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16-2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39-42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메시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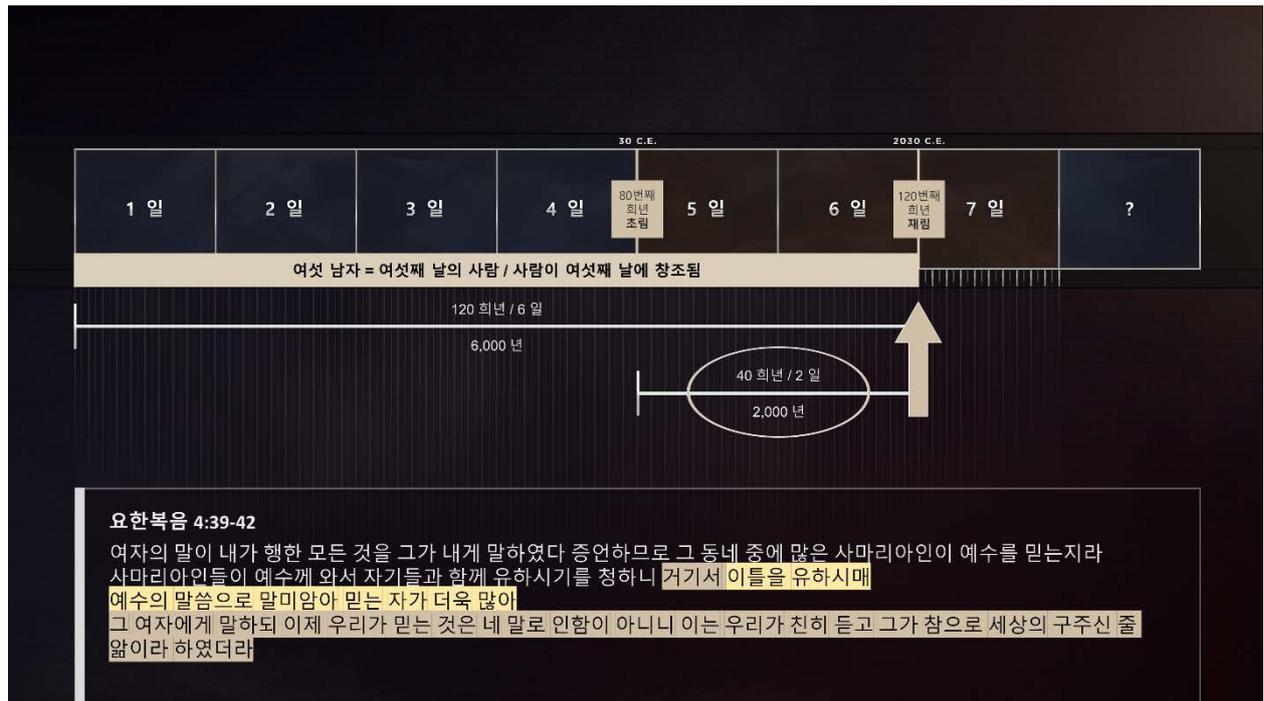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19-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메시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지내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말씀 자체를 메시아로 믿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세기에 사마리아인도 이방인과 같은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여인의 인생에서 6명의 남자는 6일 또는 6,000년의 인류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2일 또는 2,000년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slide 34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6일 즉 6,000년의 끝과 2일 즉 2,000년의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어디에서 그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 봅시다.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고 이틀 후에 갑자기 메시아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메시아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오시라"는 요청을 받게 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4: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메시아는 "내려오실" 것을 요청받고 "이틀"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4:47-50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은 호세아 6:2 예언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호세아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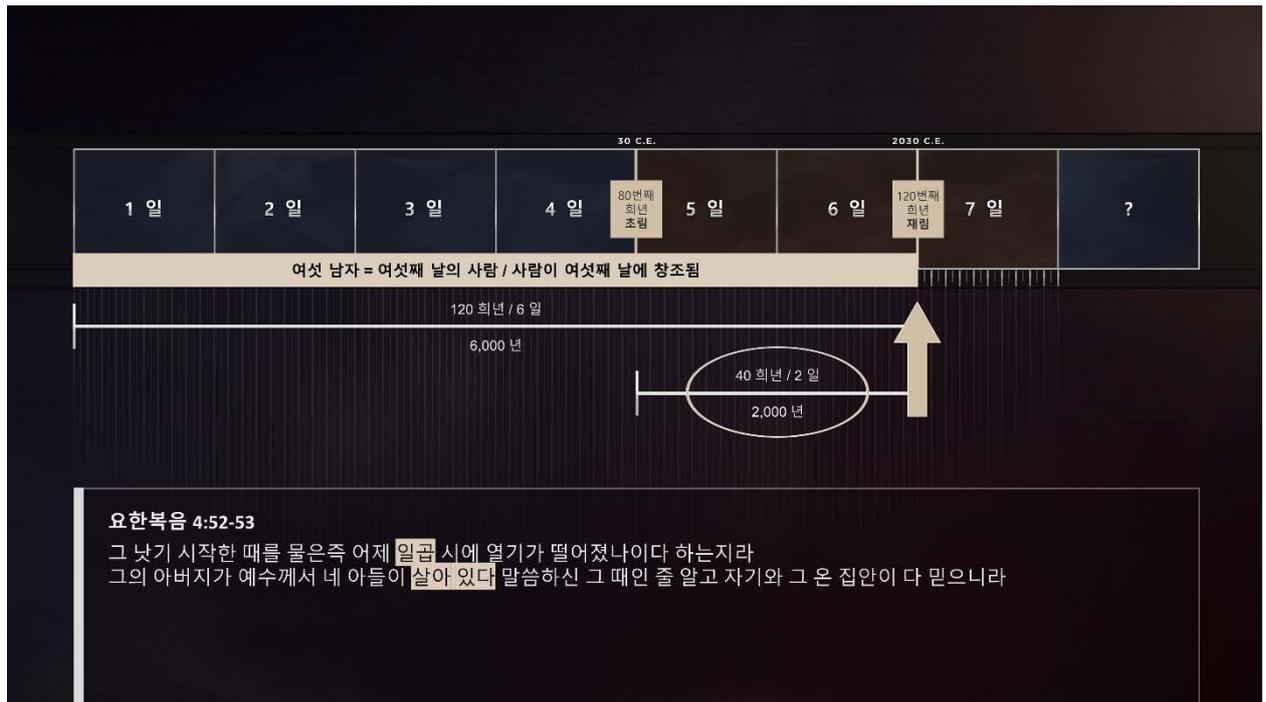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틀을 언급하시고 그 후에 부활이 일어나는 그림이 분명히 그려집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2일 즉 2,000년은 창조된 지 7일째 즉 7,000년째 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7이 이 이야기와 연관되어 메시아 재림 시기의 예언 패턴이 더 확실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4:52-53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이 다 믿으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의 앞에서 살 날 또한 "일곱째" 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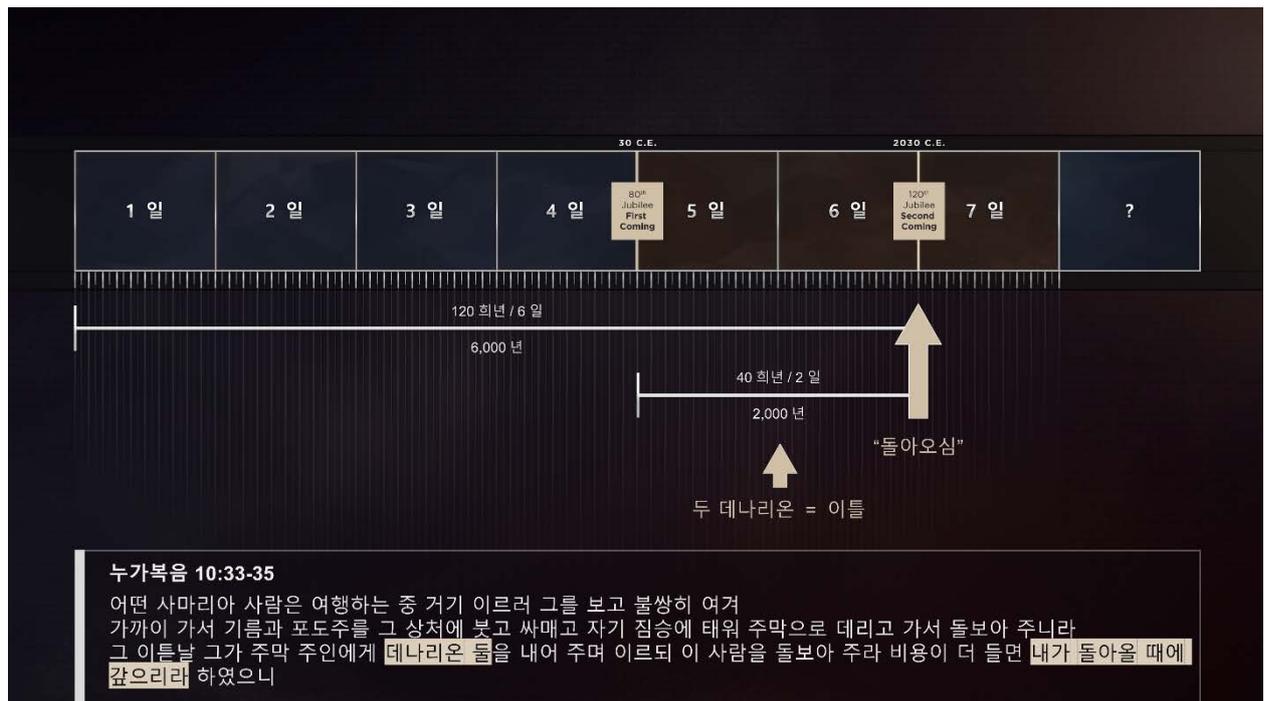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메시아가 이틀 후 오신다는 또다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0:33-35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1세기에 두 데나리온은 이틀치 정도의 임금입니다. 주막에서 하루 묵는 것도 이틀치 임금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계산은 간단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선을 베풀고 떠났고 이틀 후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다시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적용하면 이 "이틀"은 2,000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는 거의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그 후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Slide 36



금식 예언

마태복음 9:14-15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메시아께서 하신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히 잠시 동안 떠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금식과 연결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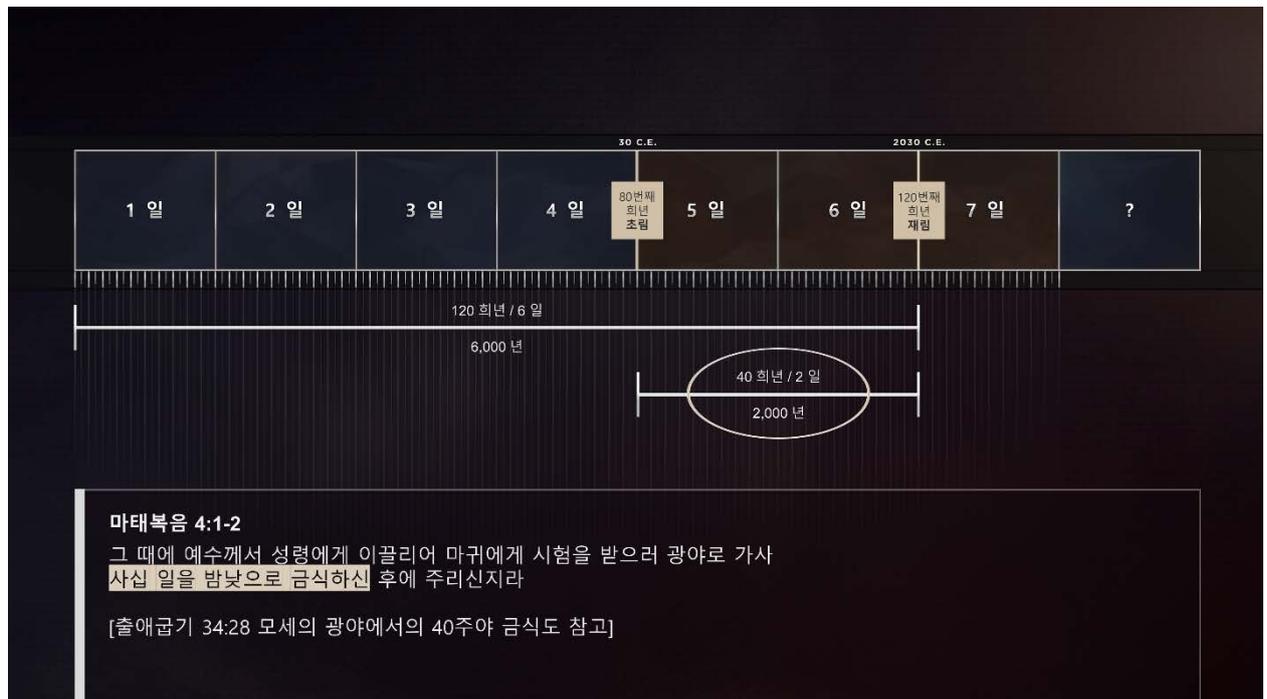
메시아께서 보이신 금식의 본은 아이러니하게도 정확히 40일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것으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4:1-2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광야에서의 40일 밤낮에 희년 원리를 결합하면 광야에서 금식했던 2,000년을 또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도 메시아가 광야에서 금식하심을 따라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그의 재림을 기다렸습니까? 거의 40 희년 즉 2,000년 동안입니다.

slide 37



시내산 예언

출애굽기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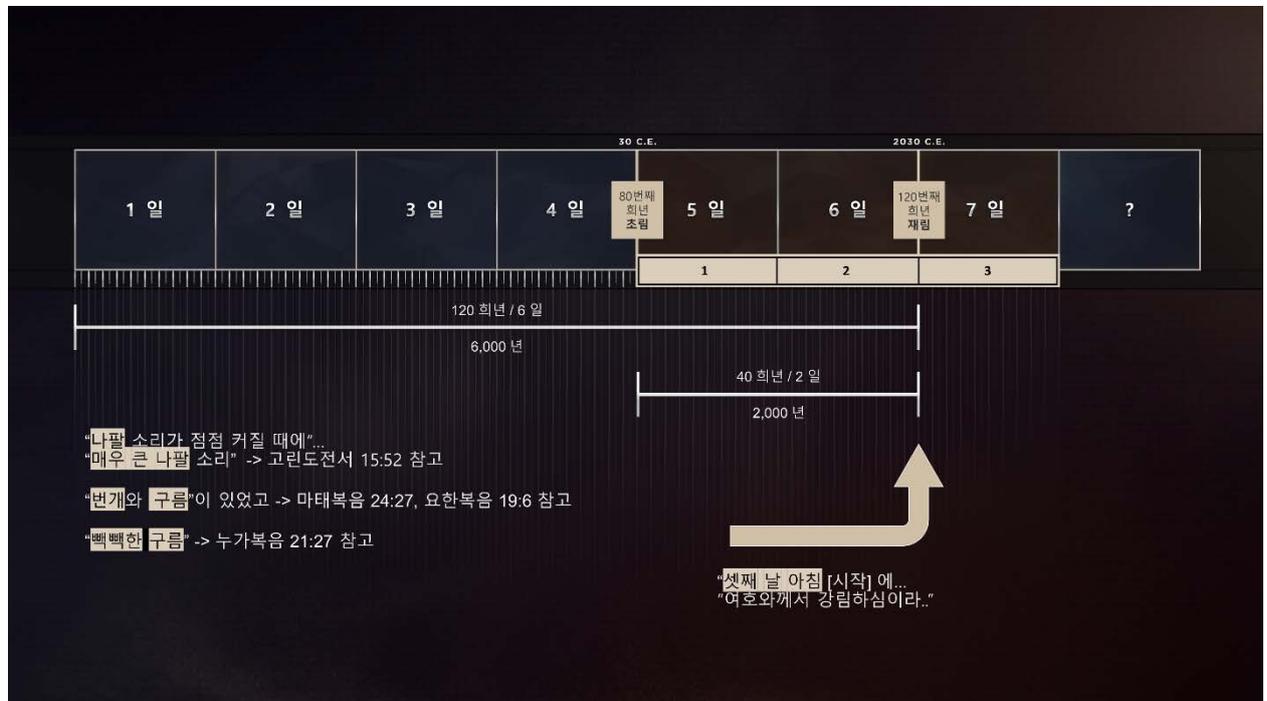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16-20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우레, thunder)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나팔 소리(고전 15:52), 번개(마 24:27), 우레(계 19:6)가 이 구절에서 셋째 날(눅 21:27) 뽀뽀한 구름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에 유의하십시오. 또 "호세아 예언"을 떠올려 봅시다.

slide 38



호세아 5:15-6:2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들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안식일에 병 고치심 예언

셋째 날에 우리가 어떻게 고침받고 부활할지 호세아에서 읽었습니다.

Hosea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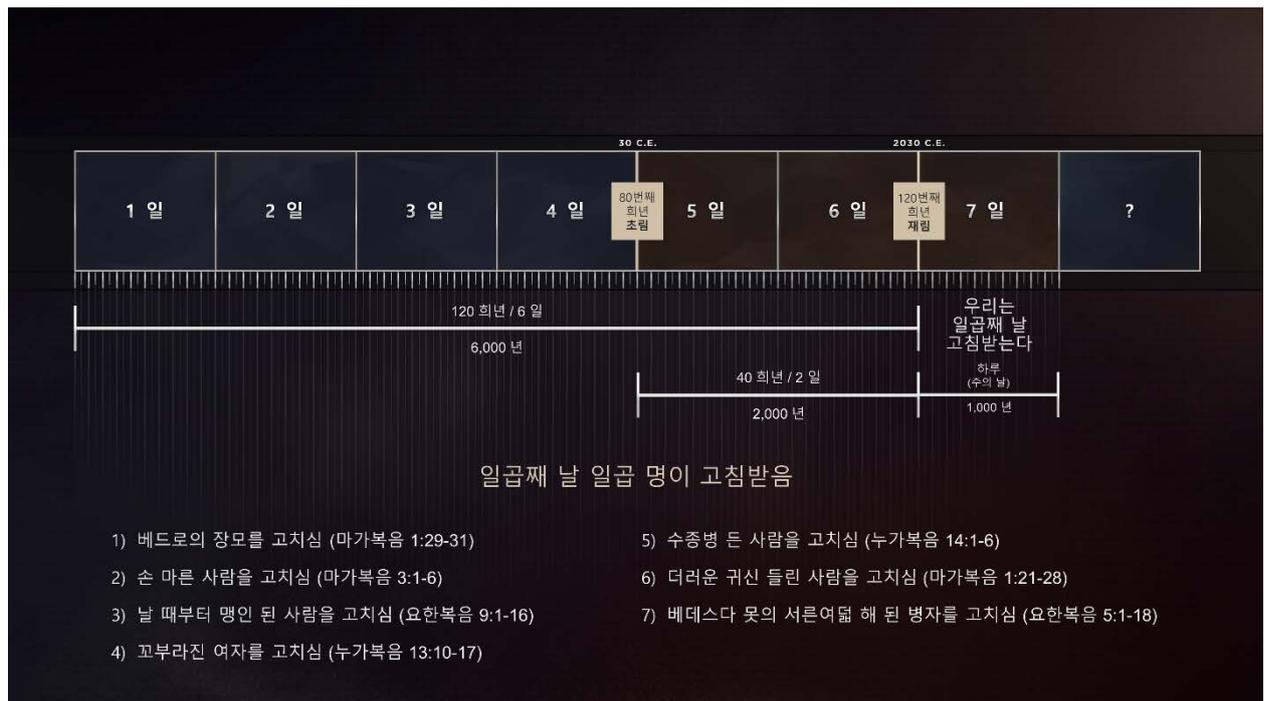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메시아 타임라인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메시아가 초림하신 날로부터 셋째 날이고, 일곱째 날은 창조된 날로부터 일곱째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메시아가 초림하셨을 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일곱째 날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임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메시아가 일곱째 날에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 치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메시아는

- 1)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9-31)
- 2)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1-6)
- 3)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1-16)
- 4)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셨습니다(누가복음 13:10-17)
- 5)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1-6)
- 6)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1-28)
- 7) 베데스다 못의 서른여덟해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1-18)



일곱째 날에 메시아가 일곱 명을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날에 부활하면 우리도 고침받을 것입니다.

산에 오름 예언

모세가 메시아의 예표로서 산에 오른 첫 번째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Exodus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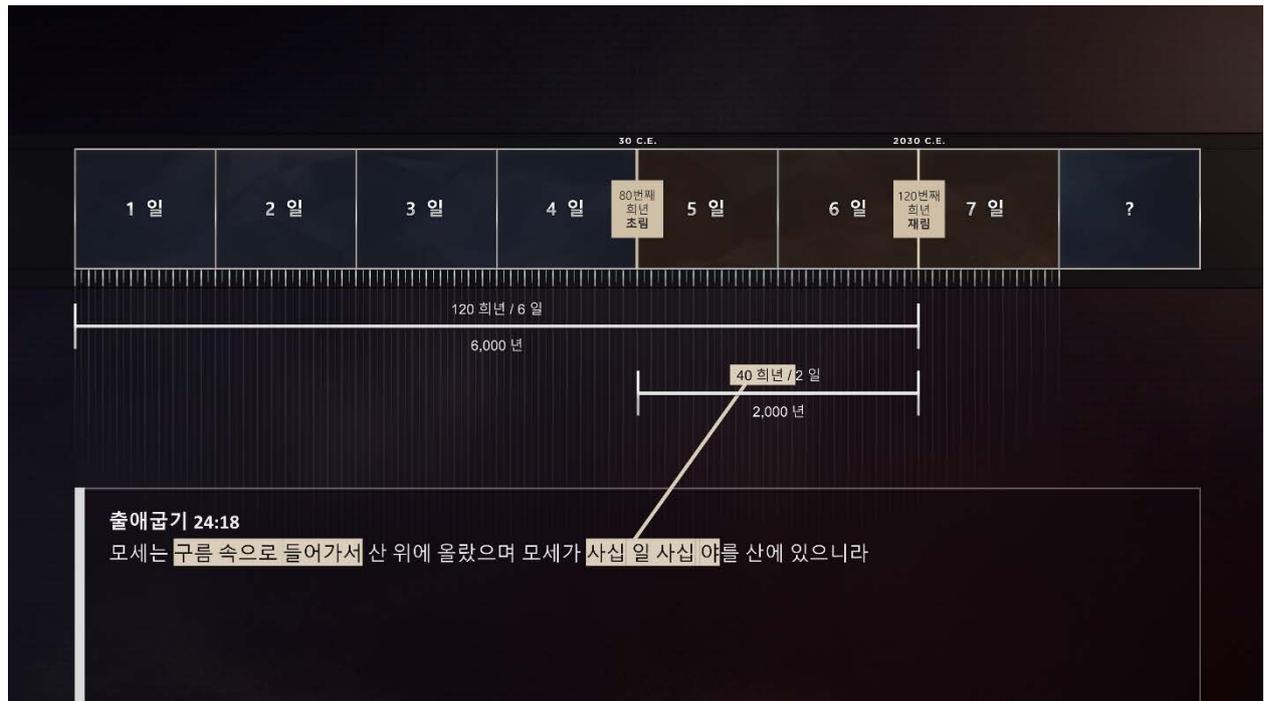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오른 것 같이, 메시아도 올려져 가셔서 구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Acts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모세가 떠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답은 40주 40야입니다. 40이 2,000과 같다는 "히년 원리"를 다시 한번 적용하면 2,000년이 되는데, 메시아가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때까지도 모세와 같이 2,000년으로 예언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slide 40



매우 흥미롭게도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났는데,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금식 예언에서처럼 40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았다는 연관성도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출애굽기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사도행전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심 예언

우리는 메시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승천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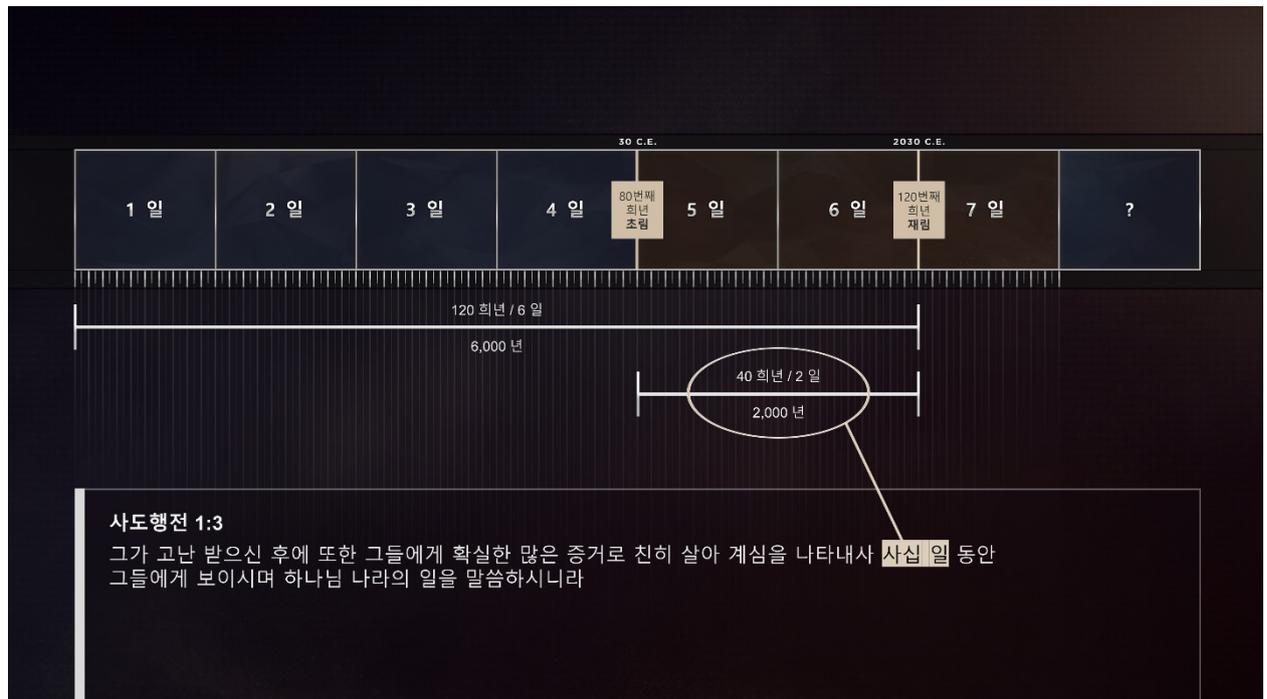
사도행전 1: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다시 40×50의 “희년 원리”를 적용하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승천으로 상징되는 재림 사건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예언 단위가 또다시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메시아께서 마땅히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slide 41



변화산 영광 예언

마태복음 17:1-8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 사건은 메시아가 왕국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시하였으며 여기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비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이 환상이 상징적으로 증거하기도 하였고, 또 이 사건 직전에 메시아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일 후에 변형의 영광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왕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6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천 년"원리를 적용하면 메시아가 왕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6,000년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호세아 6:2의 셋째 날과 연결하여 셋(초막)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셋째 날에 일어날 부활의 상징입니다.

호세아 6: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욥기 예언

욥기 5:19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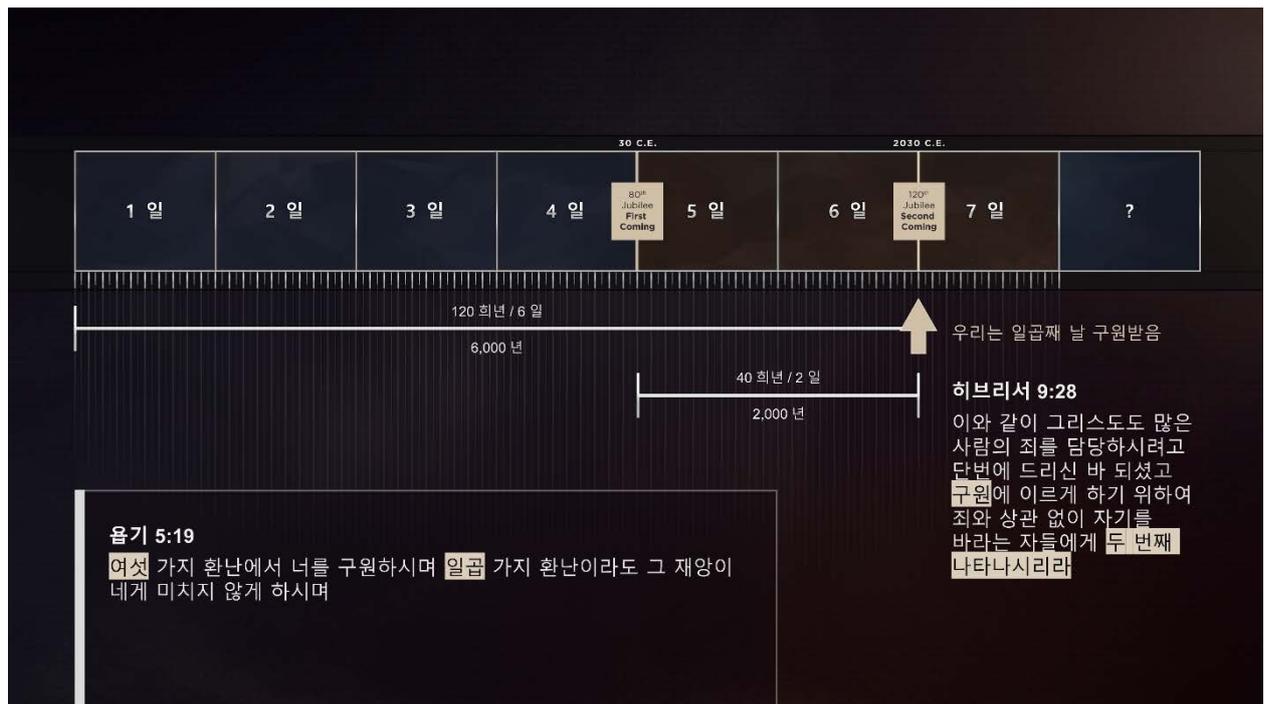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언제 구원받을까요?

여섯 번의 환난과 고난을 겪은 후에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6일 즉 6,000년 동안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 후 부활해서 구원받거나 악에서 구해집니다 (히브리서 9:28).

여기서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적용하면, 사람이 6,000년 동안 죄로 인해 괴로움에 시달리나 이를 통과한 후에 구원받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00년에는 더 이상 죄나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안식하는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slide 43



성전 예언

문자적 의미를 초월한 또 다른 예를 떠올려보면, 메시아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9-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두번째 성전을 짓는 데 46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성경에는 특별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독특한 예언 단위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년의 단위는 50 년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걸린 46 년에 희년 단위인 50 을 곱하면 2,300 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성전과 숫자 2,300 이 성전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또다른 수치적 증거입니다.

메시아가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으므로 광야의 성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의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성막 뜰
- 2) 성소
- 3) 지성소

성막의 크기와 양식은 출애굽기 25 장-27 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막 뜰을 살펴봅시다.

1) 성막 뜰

성막 뜰은 벽(포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뜰 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할 것입니다.

외벽은 길이 100 규빗, 폭 50 규빗, 높이 5 규빗입니다.

짧은 쪽 두 벽(50+50)에 긴 쪽의 두 벽(100+100)을 더하면 성막 둘레는 300 규빗이 됩니다.

또한, 300 규빗에 5 규빗(벽 높이)을 곱하면 벽의 면적이 1500 제곱 규빗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00 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slide 44

30 C.E. 2030 C.E.

1 일 2 일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

80번째 회년 초립 120번째 회년 재립

$100 + 100 + 50 + 50 = 300$

$300 \times 5 = 1,500$

성막 둘레 벽 4개의 면적 계산

성막의 “양식”

- 1) 성막 둘레 1,500
- 2) 성소
- 3) 지성소

5 100 50 5 1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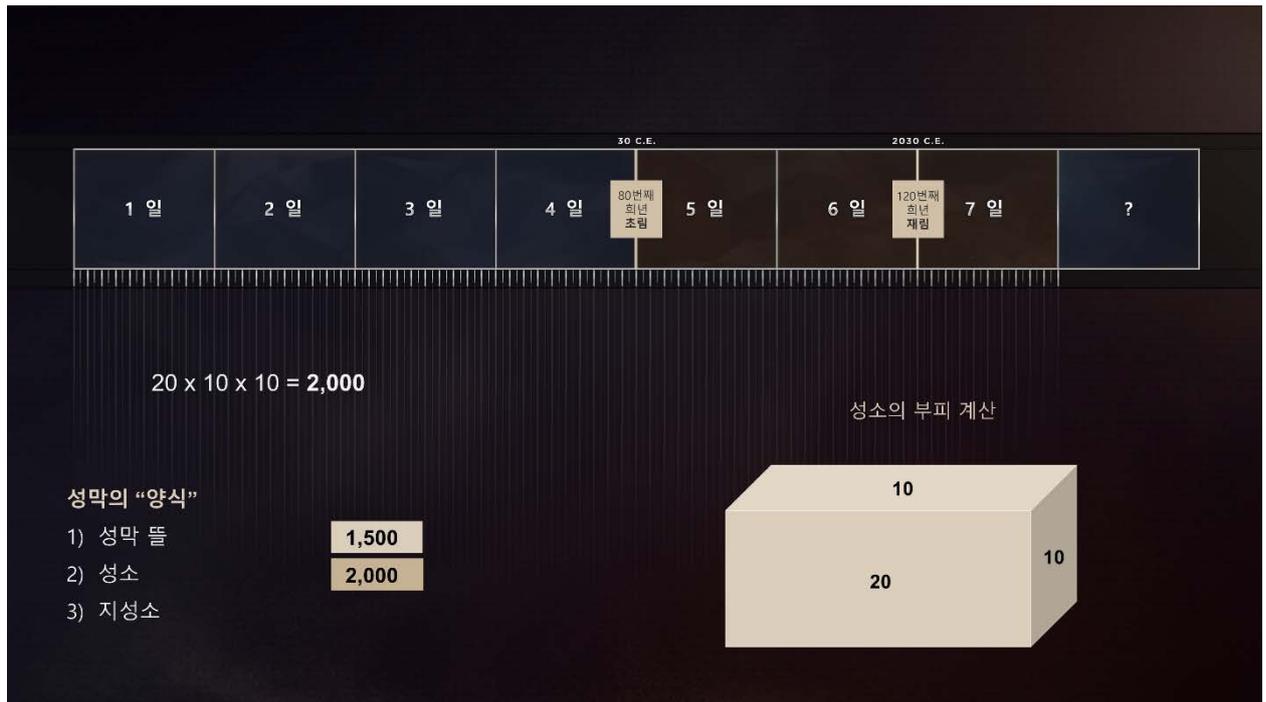
이제 성소를 살펴봅시다.

2) 성소

성소에는 벽과 천장이 있으므로 성소의 부피를 계산하겠습니다.

성소는 길이 20 규빗, 너비 10 규빗, 높이 10 규빗입니다.

20x10x10 은 2,000 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부피는 2,000 제곱 규빗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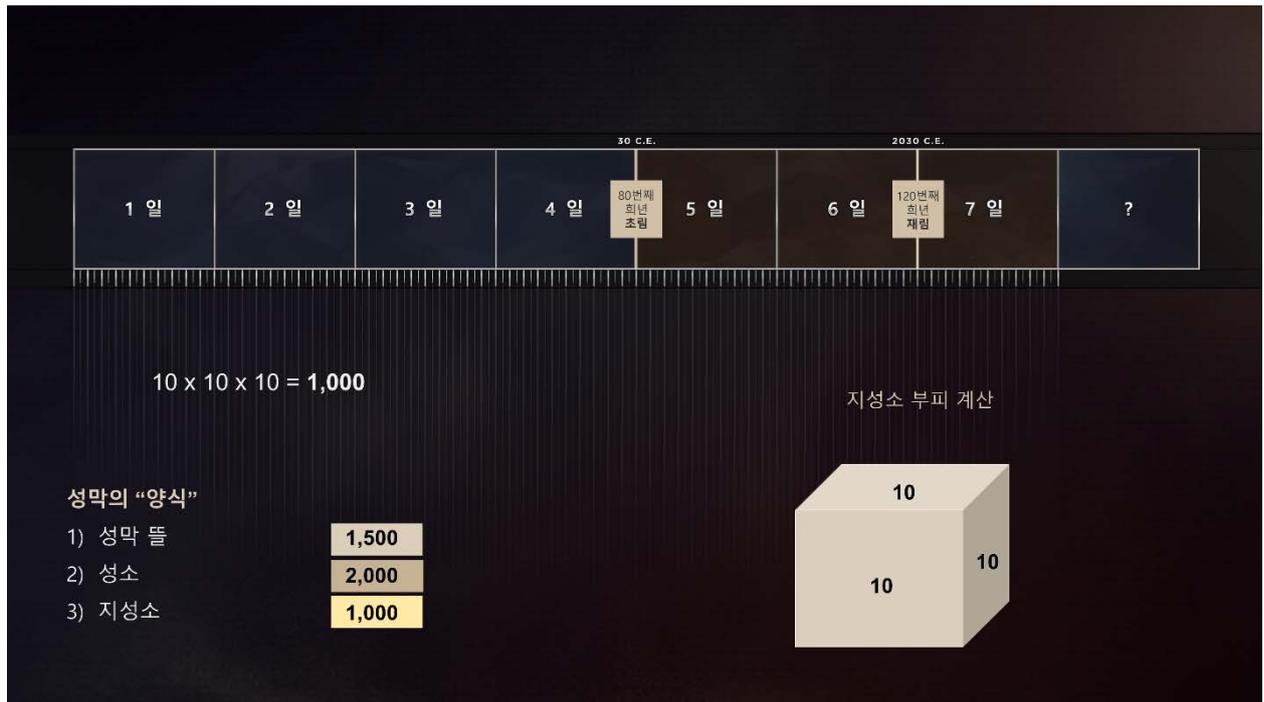


3) 지성소

마지막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도 벽과 천장이 있으므로 부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x10x10 또는 1,000 제곱 규빗 크기입니다.



성막의 설계나 양식과 관련해서 모세 시대의 성막에서 유래한 1,500, 2,000, 1,000 단위가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1,500 과 2,000, 1,000 이라는 숫자가 자신을 성전으로 선포하신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바깥 뜰의 1,500 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야 성막의 크기는 모세가 살았던 때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정확한 연도는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메시아의 죽음, 장사, 부활에서 약 1,500 년 전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성경 고고학의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의 모세부터 메시아의 죽음, 장사, 부활까지는 약 1,500 년으로 보입니다. 성막 뜰에서 계산된 첫 번째 숫자 1,500 은 이렇게 우리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앞서 읽은 호세아 6:2 에서는 부활까지 이들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하루가 천 년" 원리로 이들은 2,000 년입니다.

메시아의 죽음, 장사, 부활로부터 재림까지 2,000 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계산된 두 번째 숫자 2,000 은 이렇게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루는 모두 1,000 년이므로, 일곱째 날도 1,000 년이 됩니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며 원수가 갇혀 있을 시간이 1,000 년 동안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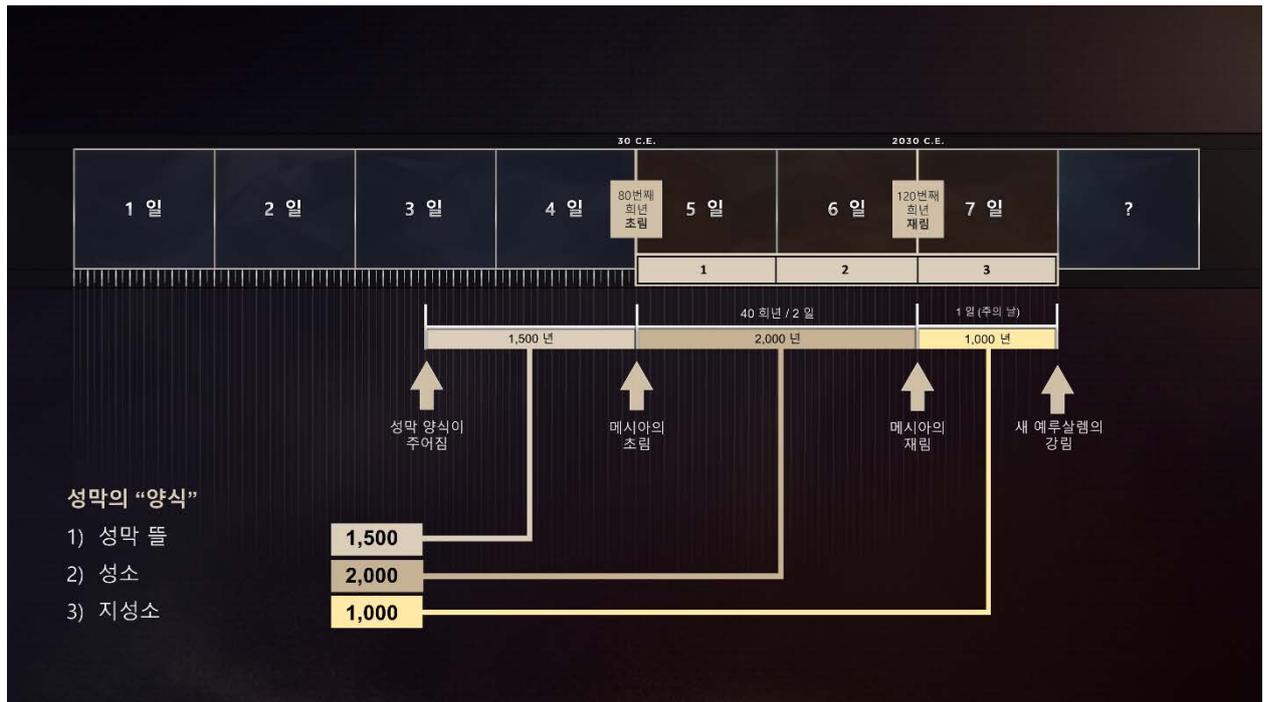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리고 이제 셋째 날(호세아 6:2)이 있습니다. 악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욥기 5:19).

기억하십시오. 메시아는 자신을 성전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사흘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성막의 설계와 일치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초림하신 지 3,000 년 후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자신을 성전으로 일으키시는 데 사흘이 필요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언 단위 1,000 도 지성소와 관련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1,000 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언적으로 지성소와 연결되는 점이 많습니다.

아래 구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9-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메시아라는 성전은 어떤가요?

그는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비유적으로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미시적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초림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는 2,000 년 즉 이틀이 될 것입니다. 그는 1,000 년 즉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도합 사흘이며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것이 거시적인 성취입니다. 성전 예언이 모세로부터 1,500 년 후인 메시아의 초림과, 초림 후 2,000 년 후인 재림, 그리고 통치하시는 기간인 1,000 년을 완전히 밝히고 있음이 놀랍습니다. 세 “날” 뒤 메시아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려지십니다.

메시아가 계획하신 3 일 즉 3,000 년이 끝날 때, 성경력 4,000 년부터 성경력 7,000 년의 끝에 최후의 심판으로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알곡과 가라지, 영생과 영벌이 갈립니다. 그래서 3,000 이라는 숫자가 생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날 끝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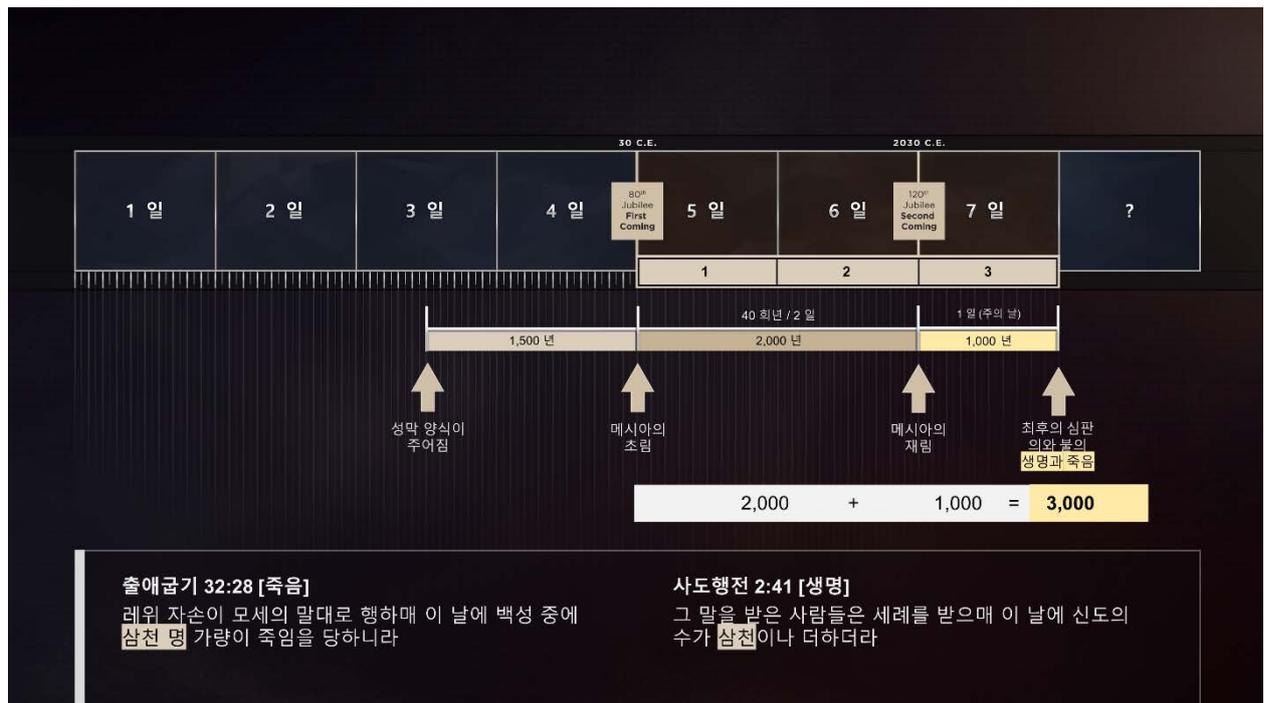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또한 셋째 날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slide 48



종 예언

출애굽기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 예언은 안식일 예언과 같은 예언 패턴을 보입니다. 종은 6년 동안 속박되어 있다가 일곱째 날에 풀려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곱째 날 즉 성경력 6,000 년에 부활을 통해 자유로워지고 우리 몸의 속량으로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며, 일곱째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8:18-25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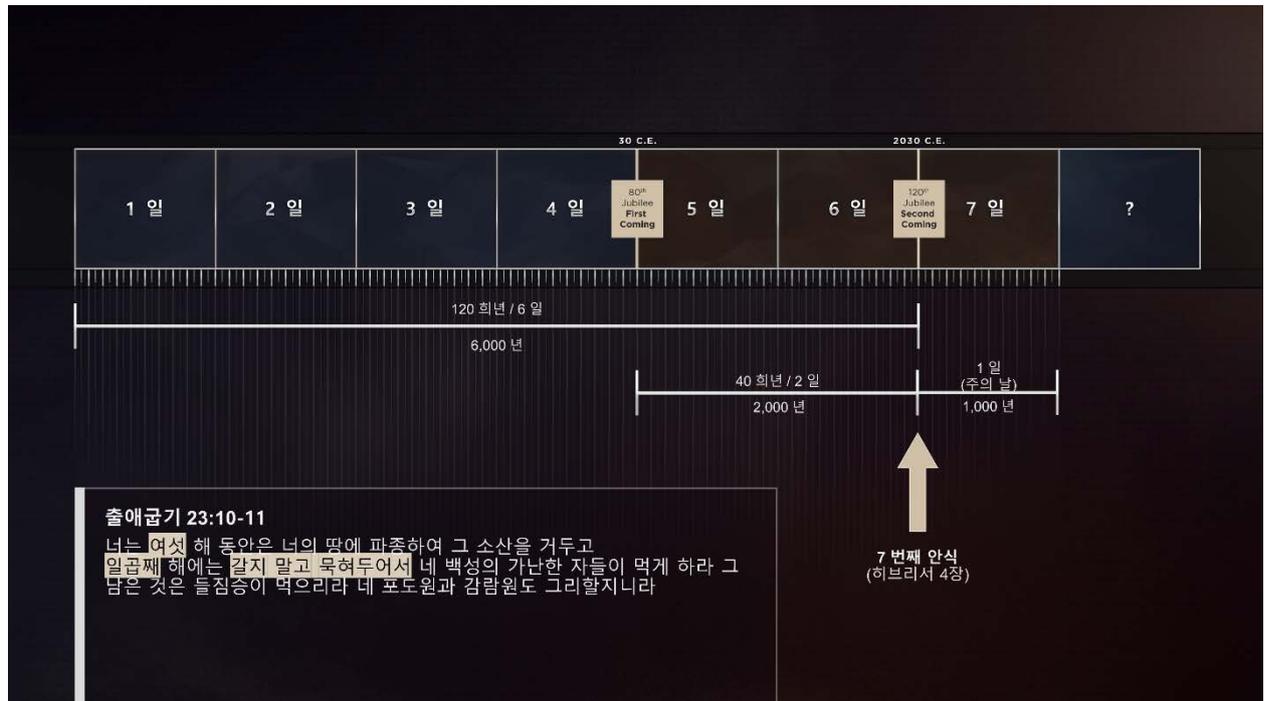
안식년 예언

안식일 예언에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시고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년 예언도 같습니다. 일곱째 날, 성경력 6,000년에 우리는 그 땅에서 쉬게 됩니다.

출애굽기 23:10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slid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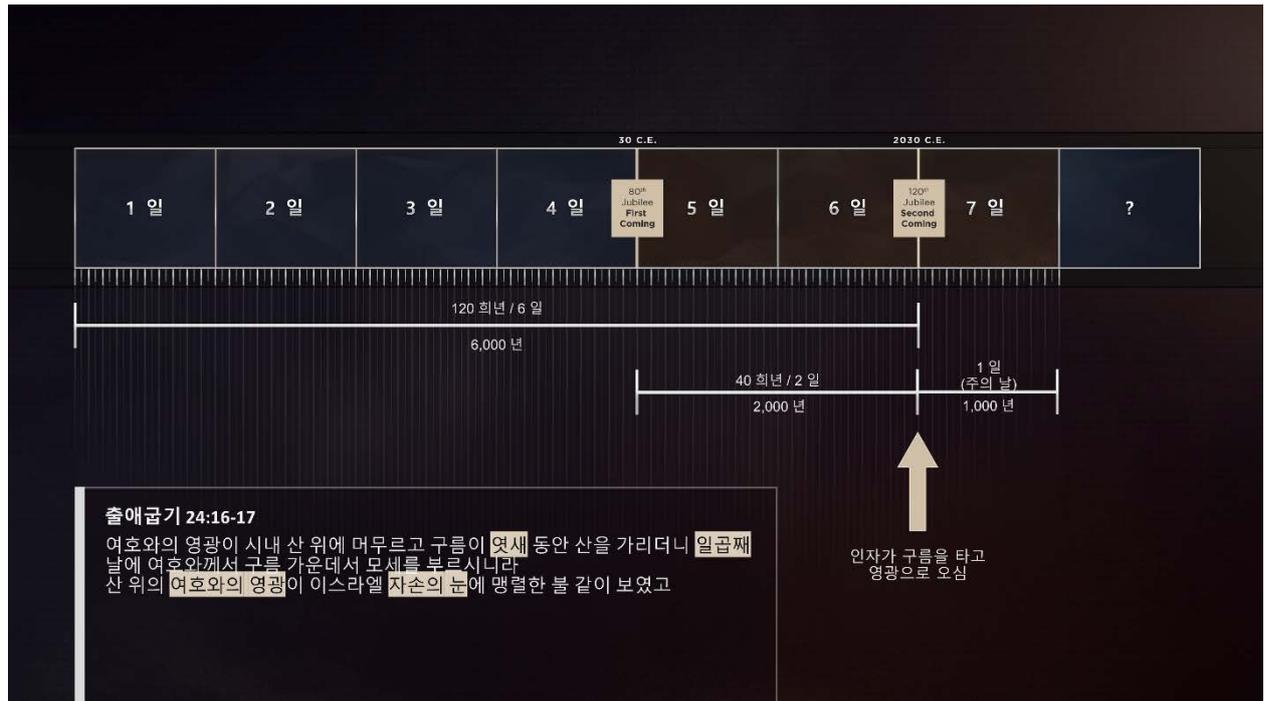


일곱째 날에 나타나심 예언

출애굽기 24:16-17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slide 51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윗과 골리앗 예언

사무엘상 17 장에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메시아는 재림하셔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성취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윗 또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메시아의 재림과 운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16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은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 40 일 동안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한 "희년 원리"를 적용하면 2,000 년 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나와서 2,000 여년 전에 메시아가 승천하신 이래로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한 1 서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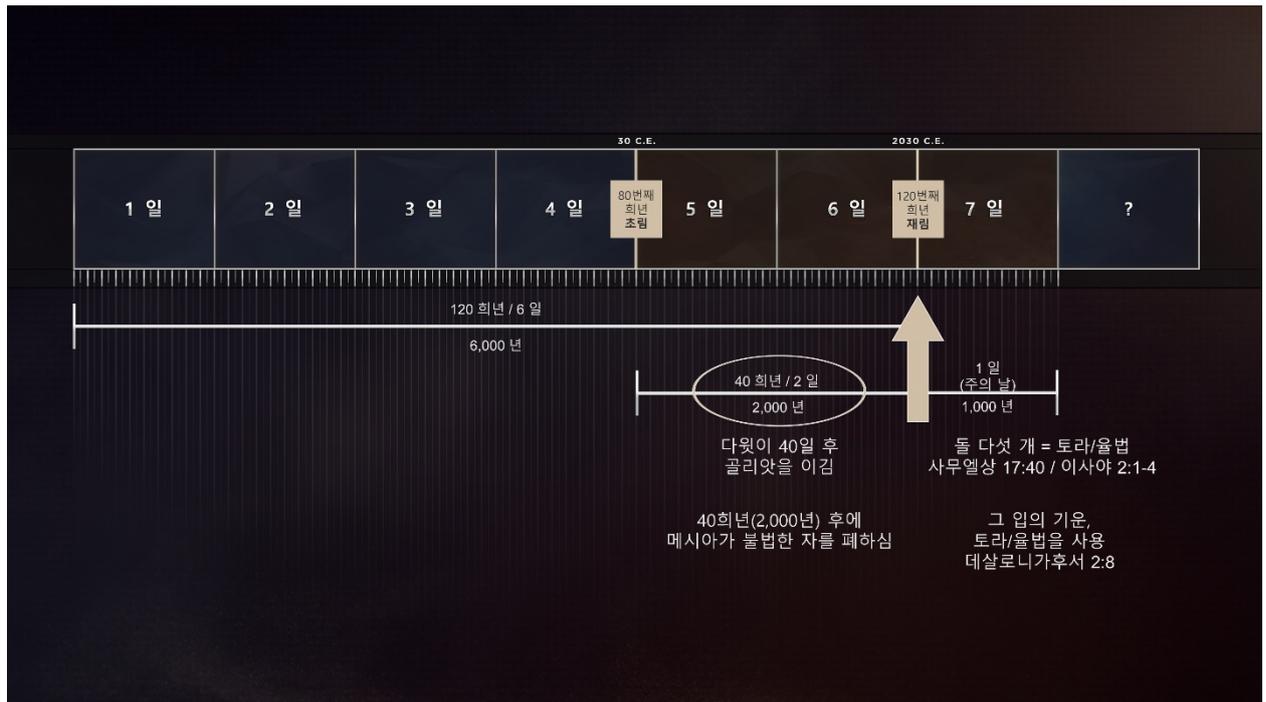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랜 기간 동안 있었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메시아 자신이 오실 때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폐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메시아는 그저 "입의 기운" 즉 말씀만으로 적그리스도를 폐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말씀하십니다. 토라는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메시아의 예표로서 사무엘 17 장에서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40 일 동안 모욕합니다. 이것은 벌써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40 희년 또는 2,000 년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40 일이 끝나면 다윗과 골리앗은 만나서 싸웁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메시아와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랐습니다(사무엘상 17:40). 매끄러운 돌 다섯 개는 토라 다섯 권을 상징하며, 시온에서부터 강물처럼 나올 토라의 다섯 권을 의미합니다(이사야 2:1-4). 그런 후에 다윗은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쳐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도 그 입에서 나온 토라로 적그리스도를 폐하실 것입니다(데살로니가후서 2:8).

이것은 40 회년 또는 2,000 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결국 메시아를 대면하여 그의 말씀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언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적용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언제 열릴 것인지 알게 됩니다. 호세아 6:2 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셋째 날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셋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메시아의 죽음, 장사, 부활로부터 이틀 또는 2,000 년이 지난 직후인 셋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2:2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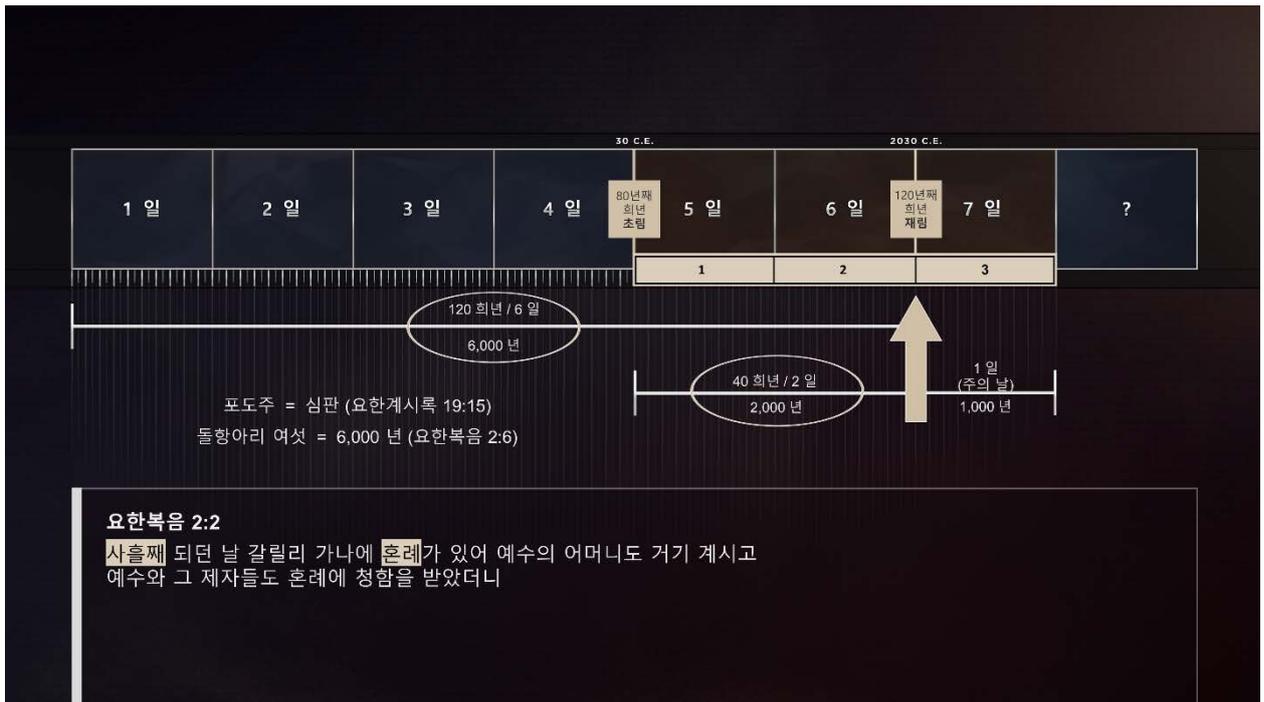
이 잔치는 메시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혼인 잔치였습니다. 결혼식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입니다. 포도주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을 뜻합니다(요한계시록 19:15).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요한복음 2:6),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6“일” 즉 6,000 년이 걸림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19 장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계시록 19 장의 첫 부분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나 예언

요나서에는 두 개의 놀라운 예언 패턴이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1-2 장에 첫 번째 예언 패턴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이 양식을 말씀으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몸소 실현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첫 번째 패턴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요나서의 첫 번째 예언 패턴이며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첫 번째 예언 패턴이 메시아의 초림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요나서의 두 번째 예언 패턴은 당연히 메시아의 재림에 중심을 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요나와 니느웨 이야기입니다.

3 장의 첫 번째 예언의 교훈은 3 일에 관한 것이며, 예언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요나 3: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적용하면 메시아의 예언 성취 시간대의 너비도 3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거리는 2,000 년 또는 이틀입니다. 그 후에 1,000 년 또는 하루 동안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두 예언의 시간대는 모두 메시아 예언을 충족하며 너비가 3,000 년 또는 3 일입니다.

니느웨는 40 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요나 3: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열방과 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회개하면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희년 원리”를 적용하면 40 은 40 희년 즉 2,000 년이 됩니다.

메시아가 부활하신 지 거의 2,000 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세상이 심판을 피하도록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와 달리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9:20-21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10-11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니스웨 예언 양식은 열방에도 적용될 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접붙여져 열국에 흠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니스웨 예언 패턴을 성취할 것입니다.

요나 3:5-8

니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스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스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스웨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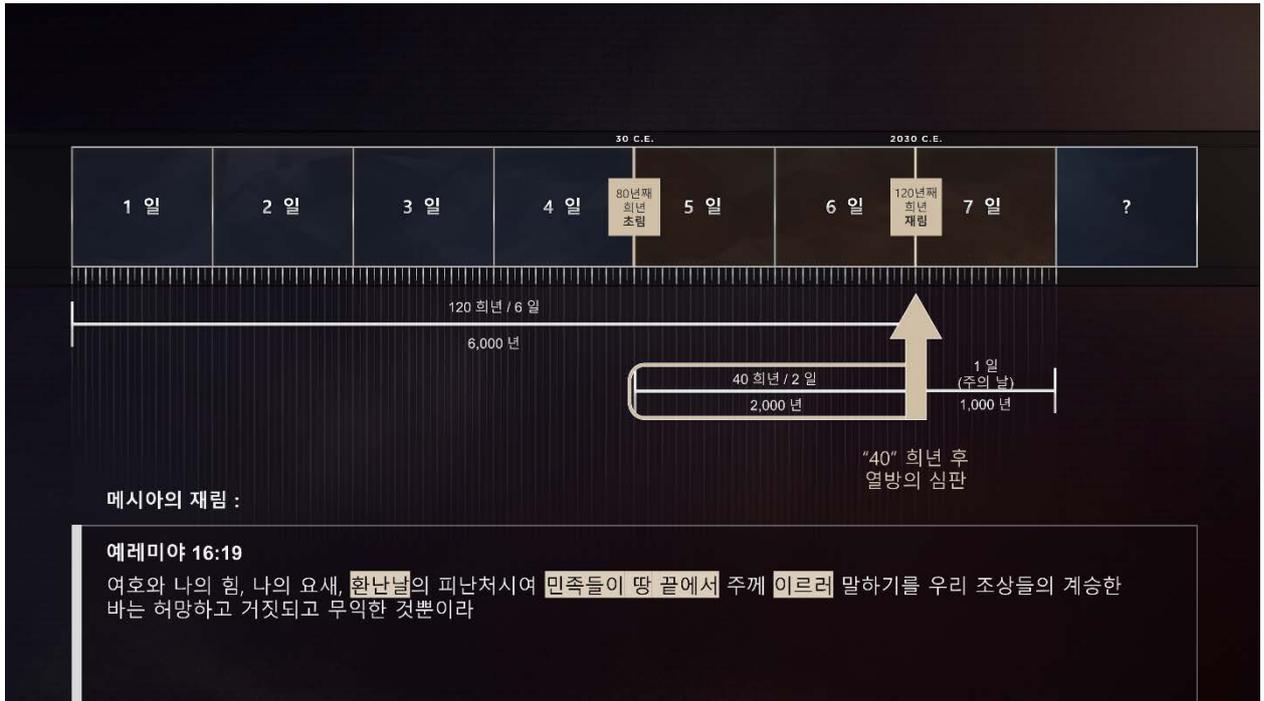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잘못을 깨닫고 결국 회개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6:19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slid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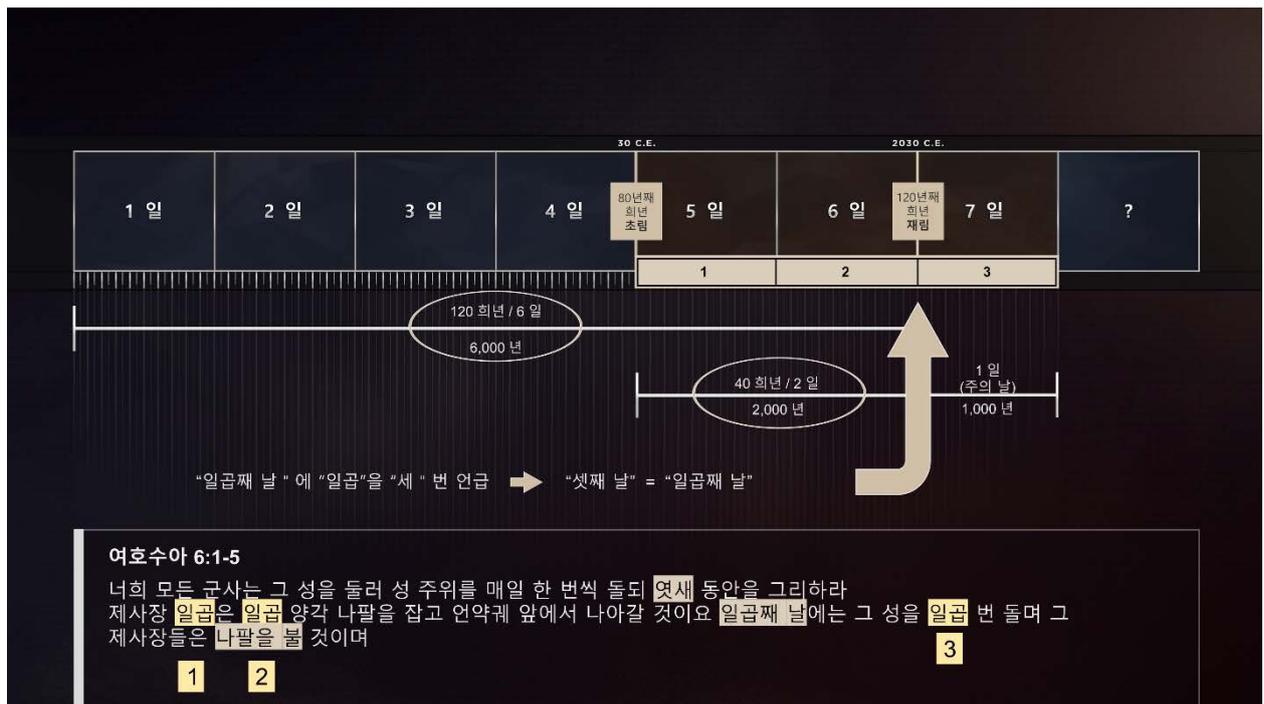
여리고 예언

여리고 성 이야기는 메시아의 재림과 사건과 시기가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6:1-5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slide 55



일곱째 날 백성들이 "올라가기" (데살로니가전서 4:16) 바로 전에 나팔과 큰 함성(데살로니가전서 4:16) 소리가 들린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곱째 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가 앞서서 주의 날에 대적들과 싸워 승리함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메시아를 예표하며 그 이름까지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slide 56



여호수아 6:1-5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사천 명을 먹이심 예언

사천 명을 먹이심 예언에는 "일곱 중 넷" 예언과 "호세아 예언"에 공통된 해석 요소가 있습니다. 역시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32-39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붙잡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때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흠여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한눈에 관련 있어 보이는 함의를 가진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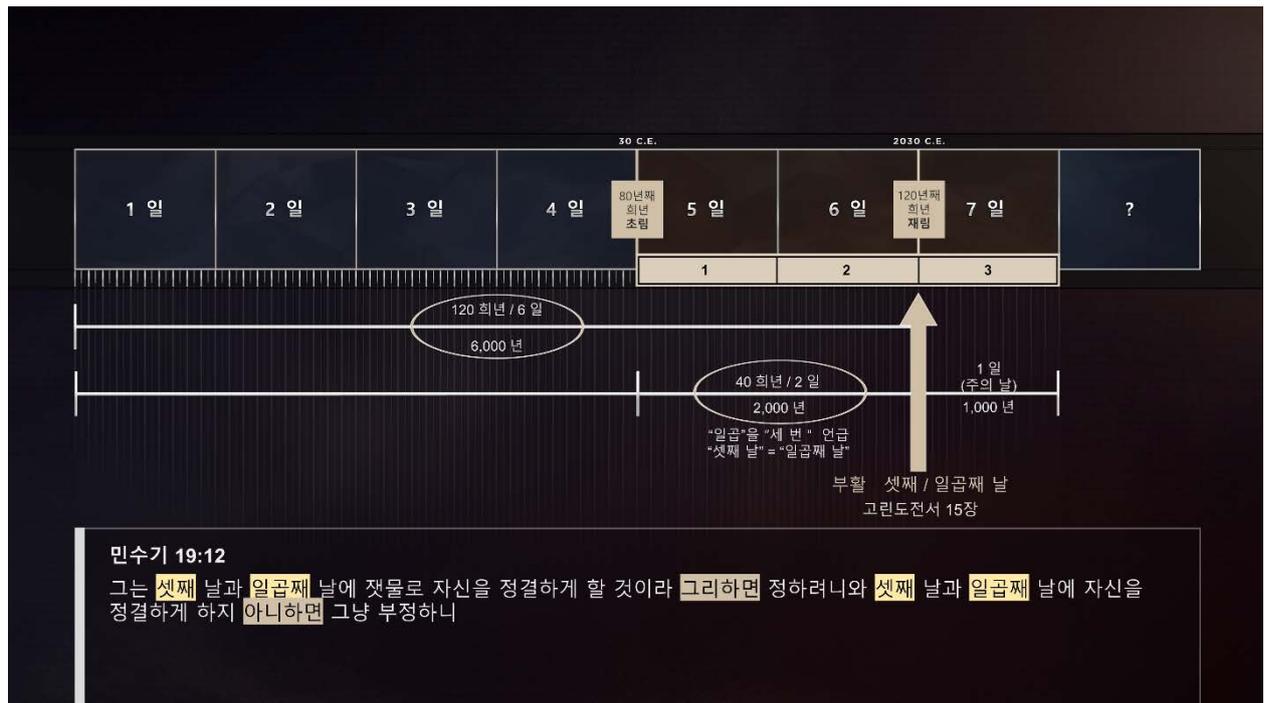
- 사흘
- 일곱 광주리에 떡 일곱 개
- 4,000명이 먹음

이미 알게 된 것처럼 메시아가 초림하신 지 2,000년 후인 셋째 날과 창조 후 6,000년 후인 일곱째 날은 같은 날입니다. 출발점이 다를 뿐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육신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씻김받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정결법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19:12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젖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4,000명을 먹이신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미 설명한 셋째 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떡이 있는 일곱 광주리가 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태복음 4:4).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메시아가 일곱째 날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 "하루가 천 년" 원리를 자연스럽게 비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떡 광주리 일곱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7,000년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4,000은 7일 계획의 넷째 날일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넷째 날 초림하셨다가 일곱째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에스더 예언

부활 후에 우리는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왕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7:9-10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에게 보일 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므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뜰에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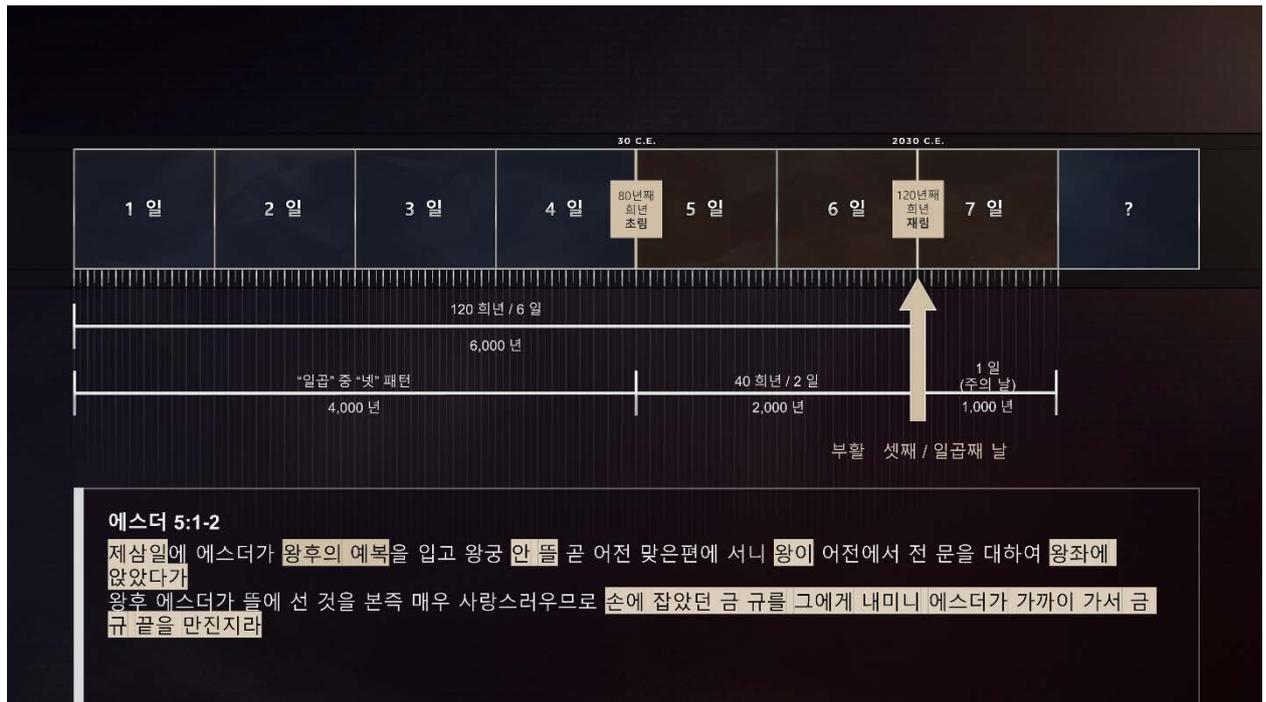
에스더 4:16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왕은 목숨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그림을 실현해 준 것입니다. 이 일이 몇일에 일어났을까요? 바로 셋째 날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5:1-2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는 우리를 왕의 보좌 앞에 있는 신부로 그림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죽어 마땅하였지만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 일이 셋째 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셋째 날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서 말의 가루 누룩 예언

천 년 왕국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마태복음 6:10 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여 커질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35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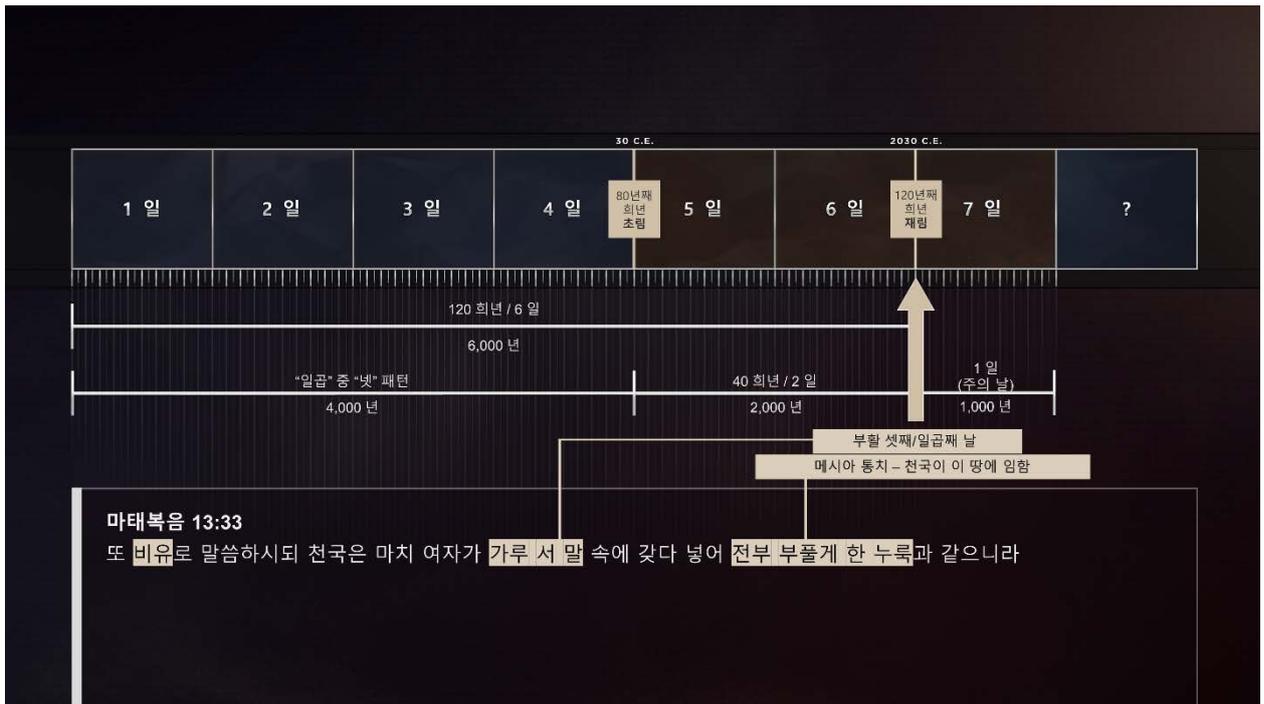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35 바로 전 대목에 이 짧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비유이며, 비유는 모두 감추인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지식에서 비유, 특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는 가루가 누룩으로 전부 부풀게 되는 것처럼 천국이 땅에 임하여 확장되고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가루가 서 말일까요? 한 말이나 다섯 말이 아니고요?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가루 서 말은 메시아가 통치하심으로 시작되는 천국이 셋째 날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 예언

유다서에서는 메시아의 재림과 그의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유다는 이 말씀이 에녹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점은 유다가 메시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이 아담의 칠대 손이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14-15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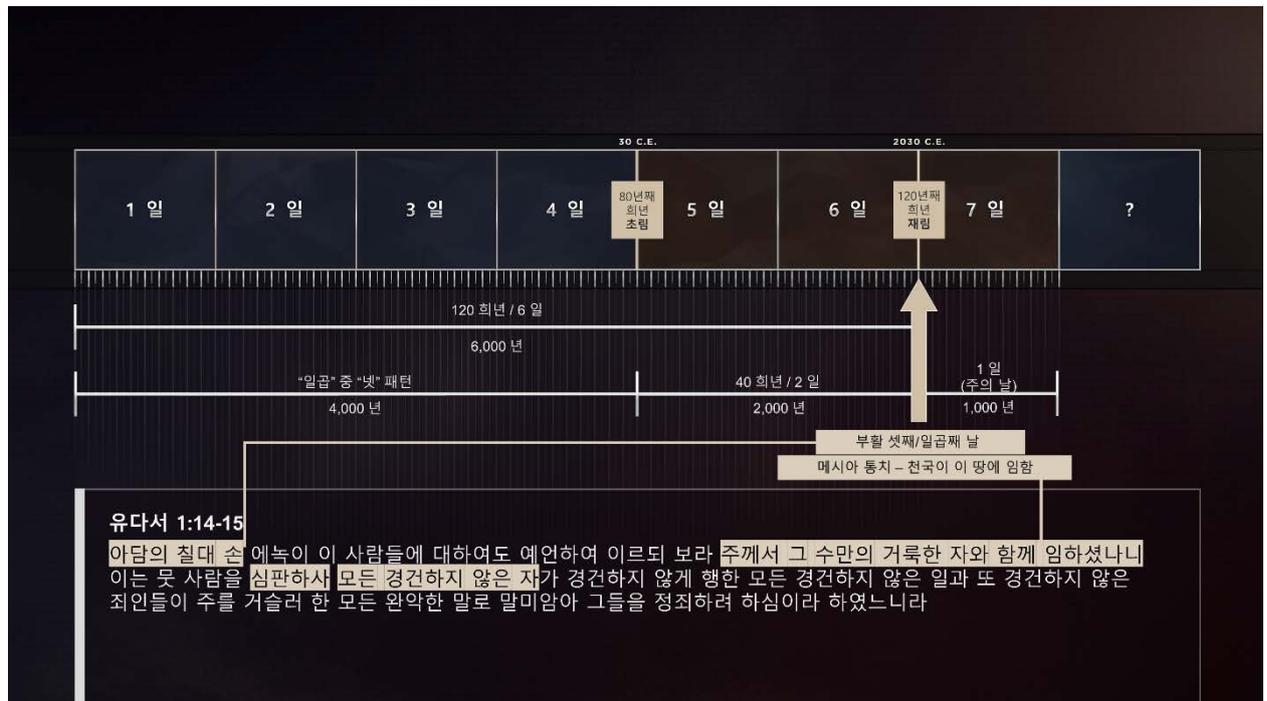
유다서 1:14-15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메시아께서 일곱째 날 다시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에녹이 아담의 칠대 손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slide 61



산고 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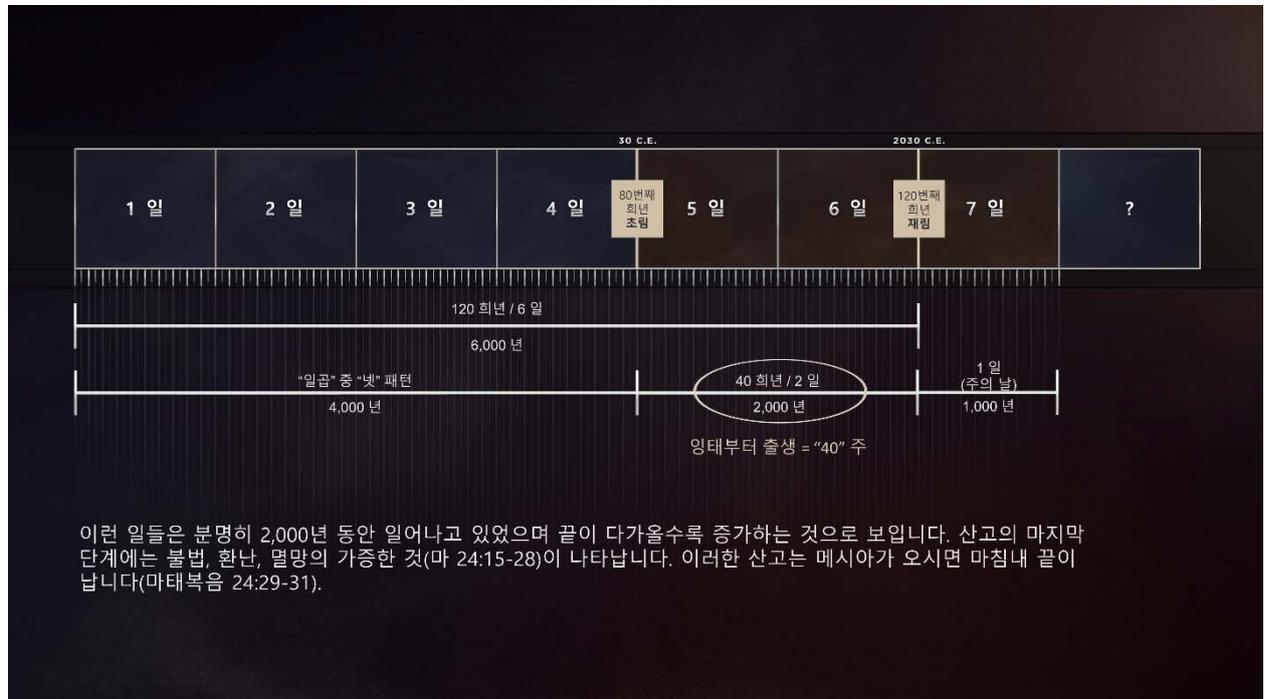
마태복음 24 장에서 메시아는 종말의 시작을 산고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24:4-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람은 잉태되어 태어날 때까지 "40"주가 걸립니다. "희년 원리"를 적용하면 이 기간은 1 세기로부터 약 2,000 년 동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고"가 시작될 때 난리(전쟁)와 난리 소문, 기근, 지진 및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이 있습니다(마태복음 24:4-8). 이런 일들은 분명히 2,000 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으며 끝이 다가올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고의 마지막에는 불법, 환난, 멸망의 가증한 것(마 24:15-28)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산고는 메시아가 오시면 마침내 끝납니다(마 24: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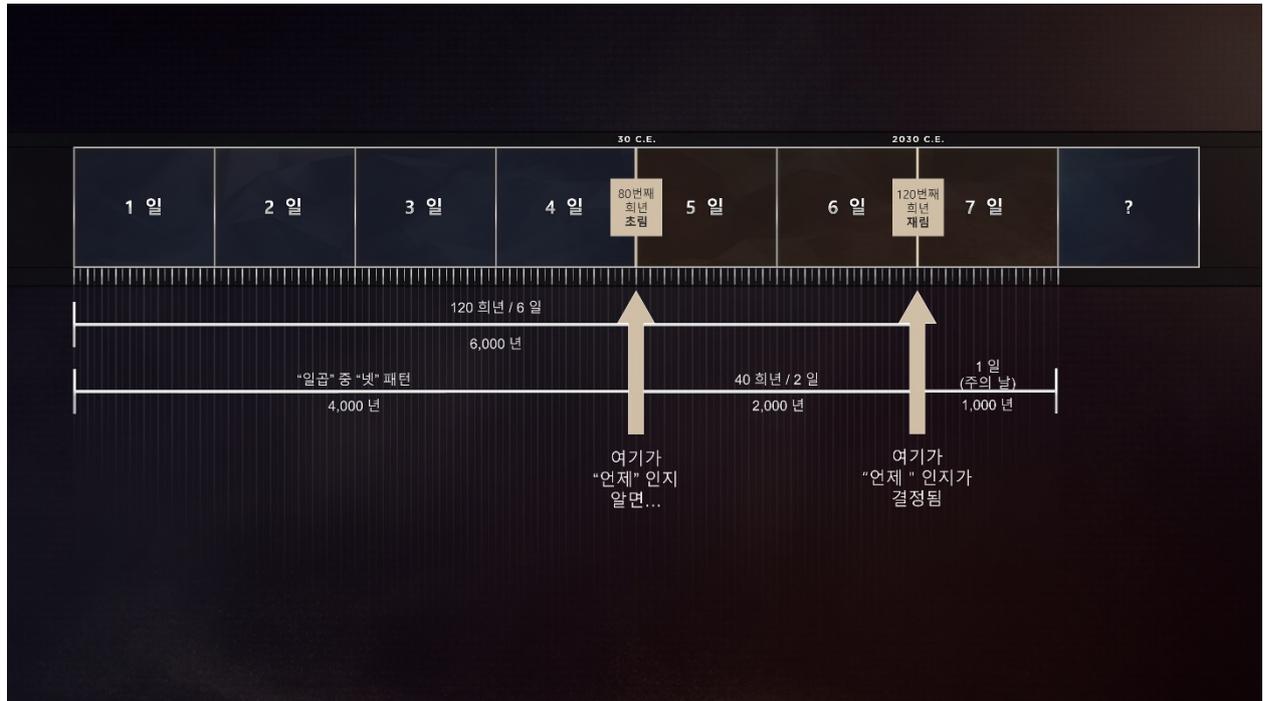
slide 62



서기 30년에 메시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

모든 예언과 패턴으로 메시아 타임라인이 꽤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장사, 부활부터 재림까지를 "이틀" 즉 2,000 년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야 할 연도는 메시아가 부활하신 연도이고, 그러면 재림하실 연도도 알 수 있습니다.

slide 63



학자들은 오랜 동안 서기 29년에서 33년 사이의 기간에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의 죽으심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는 지식으로 추측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서기 30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눈길도 주지 않았던 증거 때문입니다. 서기 30년이 그의 죽음과 부활의 해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유대인 문헌에서 메시아가 죽으신 정확한 해로 일치하는 여러 증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에, 서쪽 빛이 꺼지고, 진홍색 끈은 그대로 진홍색이며, 여호와를 위한 제비는 항상 왼손에서 뽑혔노라. 밤에 성전 문을 닫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활짝 열려

있었으니.”(Jacob Neusner, The Yerushalmi, p.156-157). [성전은 서기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의 유사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랍비들이 가르치노라. 성전이 무너지기 전 40년 동안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오른손에서 뽑히지 않았고, 진홍색 끈도 희게 되지 않았으며, 가장 서쪽의 빛도 빛나지 않았고, 헤켈[성전]의 문은 늘 저절로 열리게 되었으니.” (Soncino version, Yoma 39b).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를 여호와께 바치는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염소를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것인지, 어떤 염소를 제물로 광야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염소를 제비뽑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바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오른손에서 뽑힐 확률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글에 따르면, 서기 30년부터 시작하여 성전이 파괴되기 전 40년 동안, “여호와를 위한” 제비는 왼손에서만 뽑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조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1,099,511,627,776 중 1분의 1)

통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의 말문이 막힐 만한 일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속죄일 희생제사는 무언가 심각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기 30년에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속죄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서기 30년이었습니다.

증인이 더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셨으므로, 서기 30년과 관련하여 증인 몇 명을 소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이한 일의 증인은 고대 유대 당국으로, 매일 밤 성전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기 30년부터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당시 최고의 유대인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 *Yohanan ben Zakka*는 이것이 임박한 파멸의 징조라며 성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 기록입니다.

"랍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성전을 향해 이르되 '오 성전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네가 결국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노라. 기록된 바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하였으니." (스가랴 11:1)(소타 6:3)

요하네스 벤 자카이는 서기 70년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 정부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잠니아로 옮겼을 당시의 유대 공동체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 기이한 일은 성전에 있는 일곱 개의 촛대인 메노라 중 가장 중요한 등불이 꺼져서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연속 12,500일 이상) 매일 밤 성전 등잔대의 주 등인 메노라가 저절로 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온갖 노력과 주의를 다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니스트 마틴 *Earnest Martin*은 말합니다.

"탈무드에서는 해질녘이 되면 낮 동안 꺼져 있던 등잔불들(중간 4개의 등잔은 불이 꺼져 있는 반면, 동쪽 등잔 2개(와 서쪽 등잔⁴)는 보통 낮에도 불이 켜져 있다)이 서쪽 등잔불의 불꽃으로부터 다시 켜지게 된다고 한다. (계속해서 켜져있는 등잔불로서, 오늘날 국가 기념물의 '영원한' 불꽃과 비슷한 것이다)

"이 '서쪽 등잔'은 계속해서 켜 둔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분의 감람유와 그 밖의 기구들을 항상 준비해두어 언제나 이 '서쪽 등잔'이 켜진 채로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메시아가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해부터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0년 동안 매 351일 밤 서쪽 등잔불이 꺼지고, 제사장들이 매일 저녁 서쪽 등잔불을 밤새도록 켜두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살펴도 소용이 없었다!" (서기 30년의 중요성, 어니스트 마틴, 리서치 업데이트, 1994년 4월, p.4)

등잔불이 계속해서 꺼질 확률은 거듭 말하지만 천문학적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노라의 "빛"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뜻했지만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특별한 징조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⁴ 괄호 안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 추가

현재 유대인 역사상 기록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서기 30년 메시아의 죽음에서 서기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입니다.

"더 알아야 하리라, '성전이 무너지기 전 40년 동안 주홍 끈은 희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붉었느니라.' (바블리 로쉬 하샤나 Bavli Rosh Hashana 31b)."

마지막 기이한 일은 아사셀 염소에 묶인 진홍색 끈 아니면 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붉은 천 조각도 염소에게서 떼어내어 성전 문에 묶어두었습니다.

성전 문의 붉은 천은 속죄일마다 속죄가 여호와께 받아들여졌다는 듯이 희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기 30년까지 매년 일어났지만, 그 후로는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진홍색인 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당연히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속죄일의 전통적인 규례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두는 것입니다. 이 염소가 죽으면 죄가 없어졌습니다. (천의 붉은 색, 곧 피의 색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천은 진홍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져 "희게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사야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분명한 조짐은 서기 30년에 일어난 일로 온 회중이 여호와의 관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해가 되는 것은 메시아가 죽으신 연도뿐입니다.

통상 매년 속죄일에 이루어지던 속죄 의식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속죄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무엇으로 속죄제를 바칠까요?

진홍색 끈은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았고, 서기 30년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 시몬은 40년 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가장 내부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에게 연결된 진홍색 실은 항상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시몬이 대제사장 임기에 있는 40년간 연속으로 "여호와의 제비"(흰 제비)가 뽑힌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들이 뽑은 "제비"는 어떤 때는 붉은 색, 어떤 때는 흰 색일 것이며, 진홍색 실이 어떤 때는 희게 변하고, 어떤 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홍색 실이 희게 변하면 하나님께서 속죄일 의식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기 30년 이후의 여러 목격자들과 진술에 따르면, 그후 40년 동안 진홍색 실은 다시는 희게 되지 않았고, 결국 성전은 무너졌으며 모든 성전 예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서기 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속죄일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에서는 우리 메시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때가 서기 30년 4월 4일 즉 유대력 1월 14일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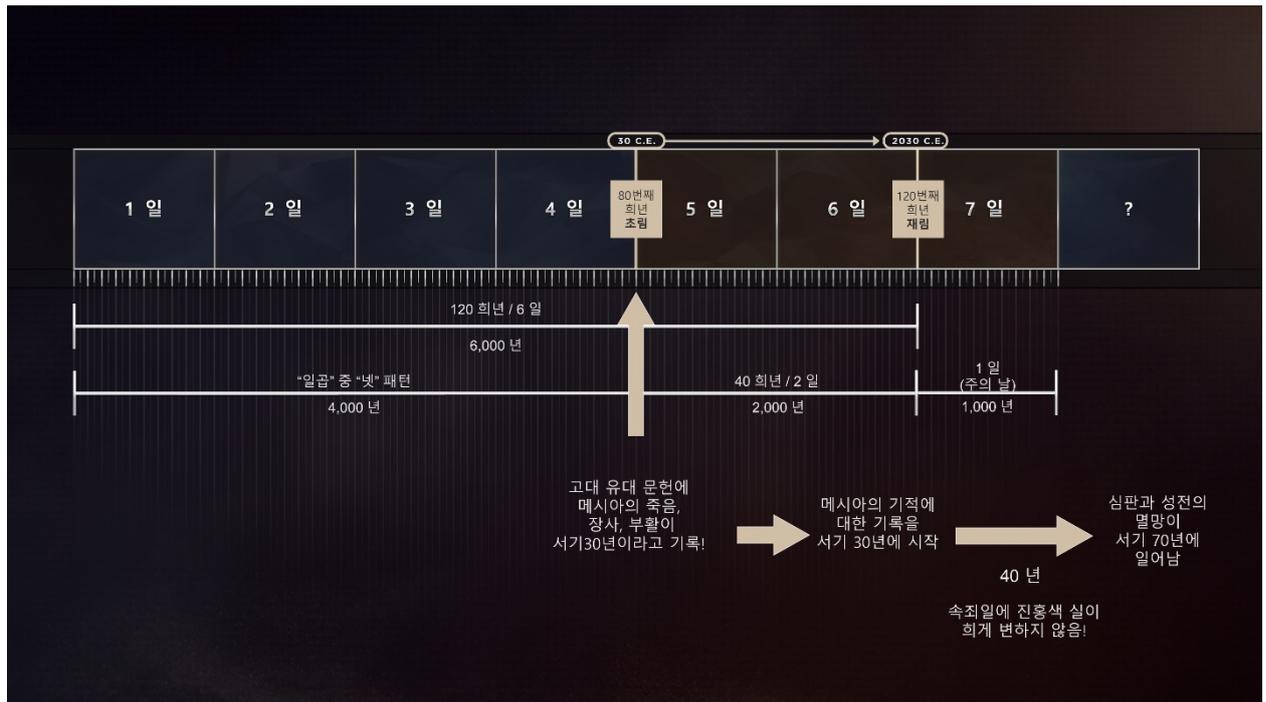
이 사건으로 속죄 예식의 전이가 일어나서, 지금은 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바쳐서 속죄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메시아는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성전 희생제사나 속죄일 예식은 일시적으로만 죄를 사하는데 반해 메시아의 희생 제사는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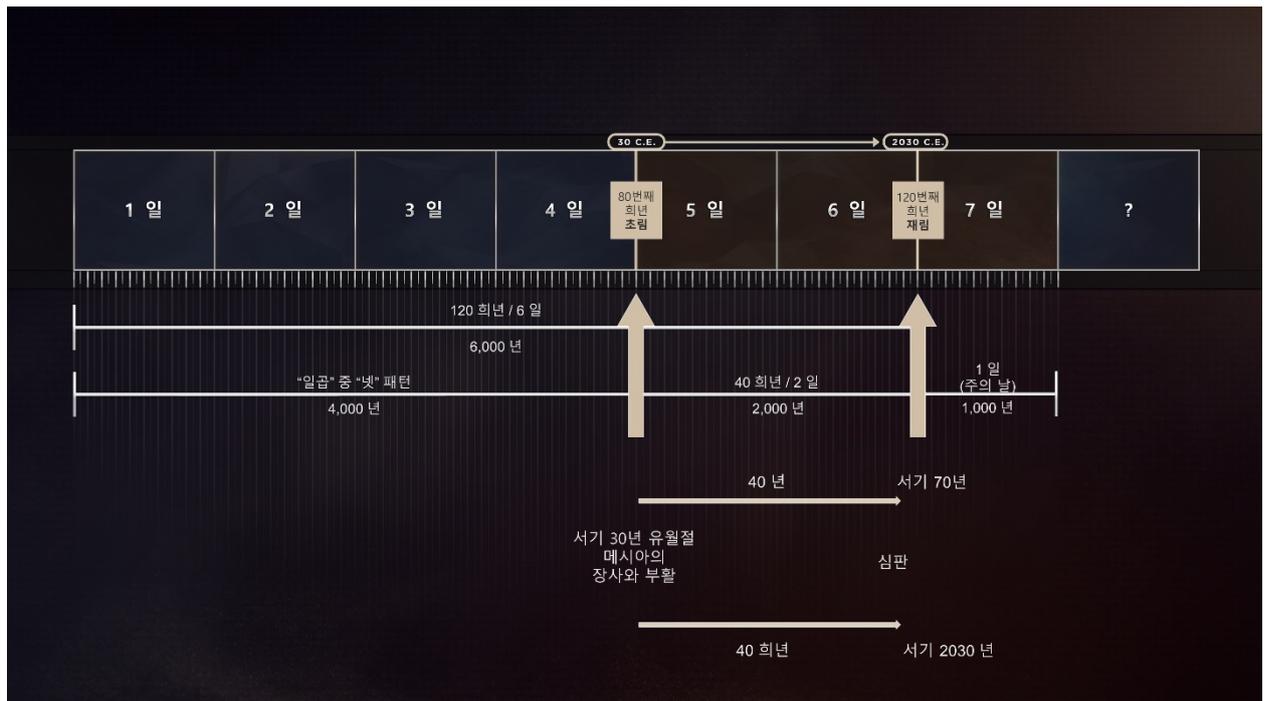
속죄일에 죄를 사해 주시던 방식은 서기 30년에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slide 64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서기 70년 성전 파괴 후 40년 동안의 역사에는 흥미로운 관련성이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의 사건들은 수많은 종말 사건의 예언들과 운율이 맞다고 흔히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다가오는 대환난, 심판, 메시아의 재림의 예표입니다. "회년 원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유월절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종말의 때 메시아의 재림 사이에 40 회년 즉 2,000년이 있을 것입니다.

slide 65



그러므로 메시아가 서기 30년에 죽으셨다는 가정은 여러 증인들과 역사적 증거로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놀라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이제 서기 30년에 2"일" 즉 2,000년을 더할 수 있고,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해는 2030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멸망의 가장한 것이 2027년 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예언

메시아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기 바로 직전에 적어도 시기는 알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32-35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전 구절들에서 말씀하신 징조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메시아의 재림이 가깝다,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명확히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명확한 해석이 있더라도 거기에 갇히면 메시아 예언, 특히 메시아의 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십 번 해보았듯이, 의지를 가지고 "암호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암호를 풀었으면 무엇이 되는지 맞춰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본 것과 같은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과 비유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사용하려 한 것(창세기 3:7)이며,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로 유대인 바리새인(마태복음 21:19-20)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예레미야 24:2-8).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져 꽃이 피게 된다는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의 비유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세아 9: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열왕기하 21: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 후 1950년 1월 23일, 이스라엘 크네세트⁵Knesset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고 정부 청사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이로써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다.

slide 66



그래서 1950년을 시작으로 잡으면 한 세대는 얼마쯤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앞부분 "하루가 천 년" 원리에서 살펴본 시편 90편에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1950 + 80 = 2030 ... 그 때 우리가 날아갑니다.

⁵ 의회

80번째 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인류의 7,000년 즉 7일의 계획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22에서 조금 알 수 있고, 선지서들에서 거울처럼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시기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할레 예언

할레를 왜 여덟째 날에 받아야 되냐고 질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레위기 12: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삼십삼 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육 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기 재미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여인은 7일과 33일, 총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여인은 14일과 66일, 총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40일과 80일을 더하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까지 부정한 기간은 120이 됩니다. 이제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120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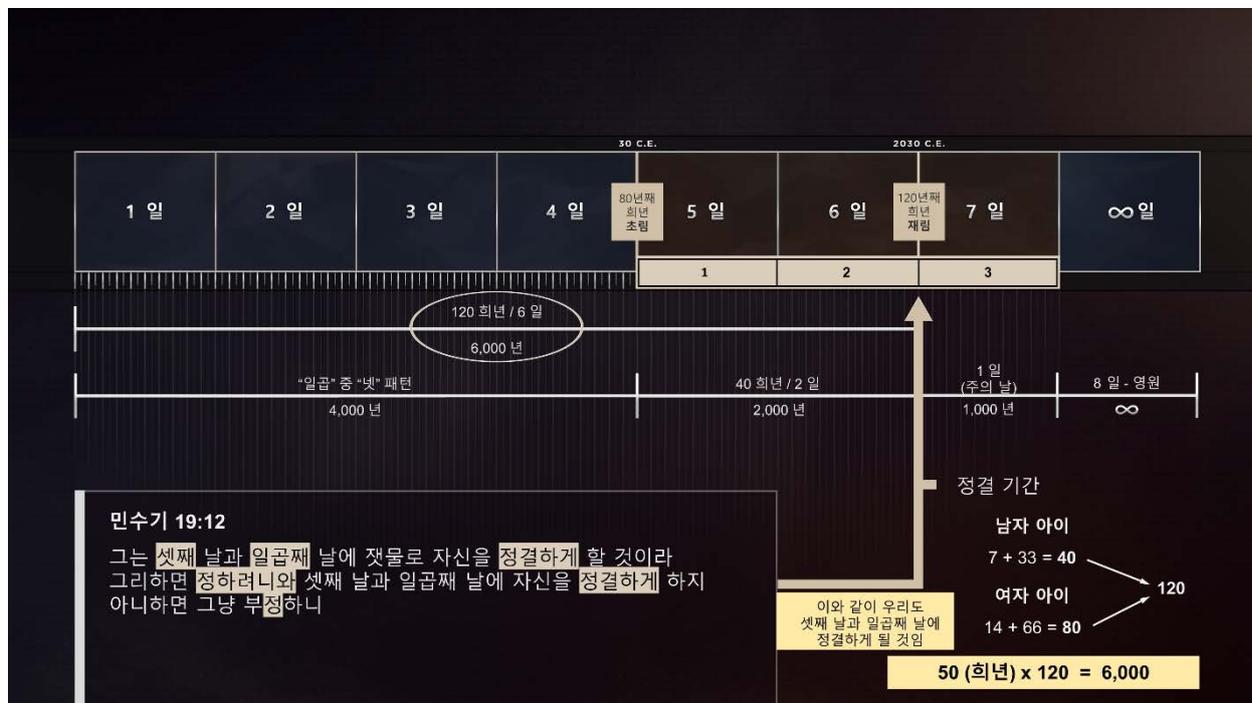
희년 원리를 적용하면 50 x 120은 성경력 6,000년입니다. 성경력 6,000년, 또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완성되는 일곱째 날입니다. 또 일곱째 날은 셋째 날과 같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일곱째 날은 창조하신지 일곱째 날이고, 셋째 날은 우리 메시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셋째 날입니다.

민수기 19:12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와 같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도 부활을 통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완성되는 때인데, 120번째 희년 또는 성경력 6,000년입니다.

slide 67



여기서 할레가 예언의 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40일 도중 여덟째 날에 남자 아이는 할레를 받습니다.

할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미 알려드렸지만, 성경에서 7은 종종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7,000년 계획에 비유됩니다.

여기서 7이 7,000년과 관련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어떤 관련이 있다면,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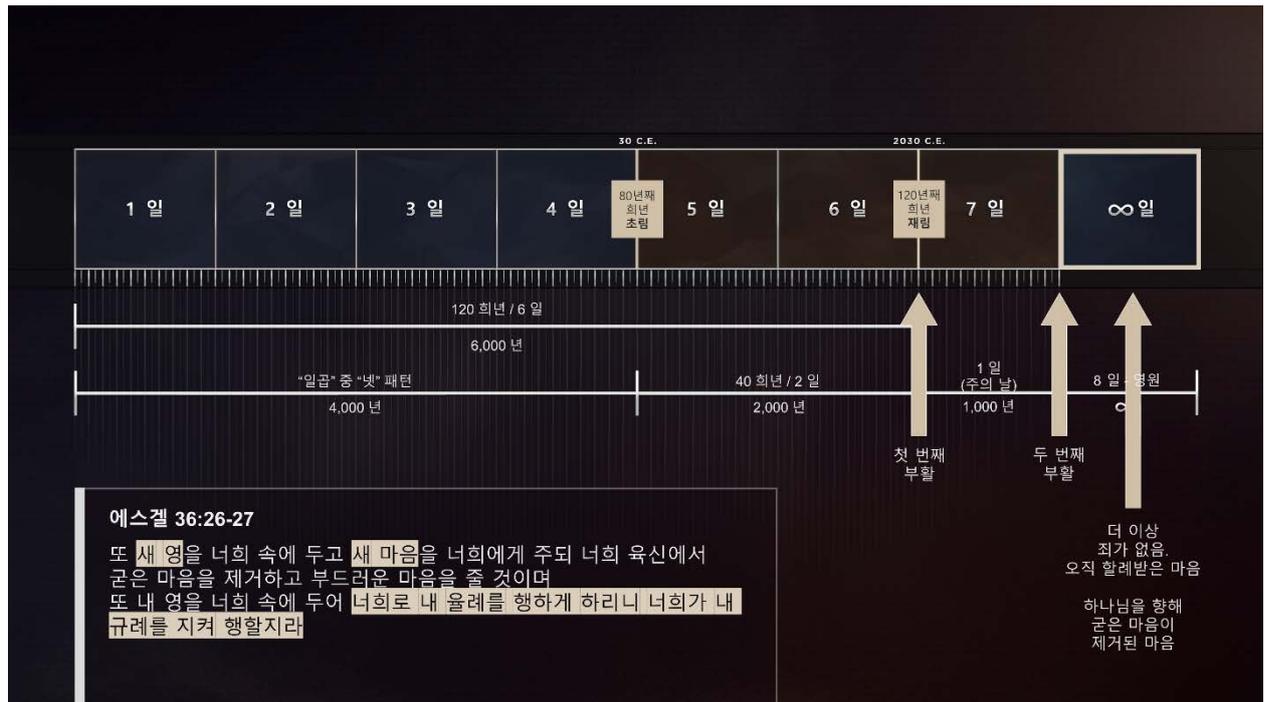
자, 보십시오.

7,000년을 40일의 부정한 날로 나누어 봅시다.

$7,000 / 40 = 175$.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맞았습니다.



출애굽기 22: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것은 "초막절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수콧 예언

수콧 *Sukkot*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가을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콧 *Sukkot/Sukkoth*은 성경에서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3: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3절에서 일곱 번 절하고 17절에서 에서를 뒤로 하고 떠나 숙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7"은 수콧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콧과 관련된 "8" 도 있습니다.

레위기 23:39-41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셋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수콧을 지키라 하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초막에서 거주할 때를 기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레위기 23:42-43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미있게도 그들이 이른 첫 번째 장소는 숙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그래서 우리가 수콧 초막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임시로 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을 때의 그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메시아께서도 수콧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37-38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8일째 날을 의미]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메시아는 이사야 55장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5:1-2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특히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특별히 여덟째 날에 메시아께서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합니다.

스가랴 14:7-8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a unique day)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다음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1-2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1,000년을 다스리신 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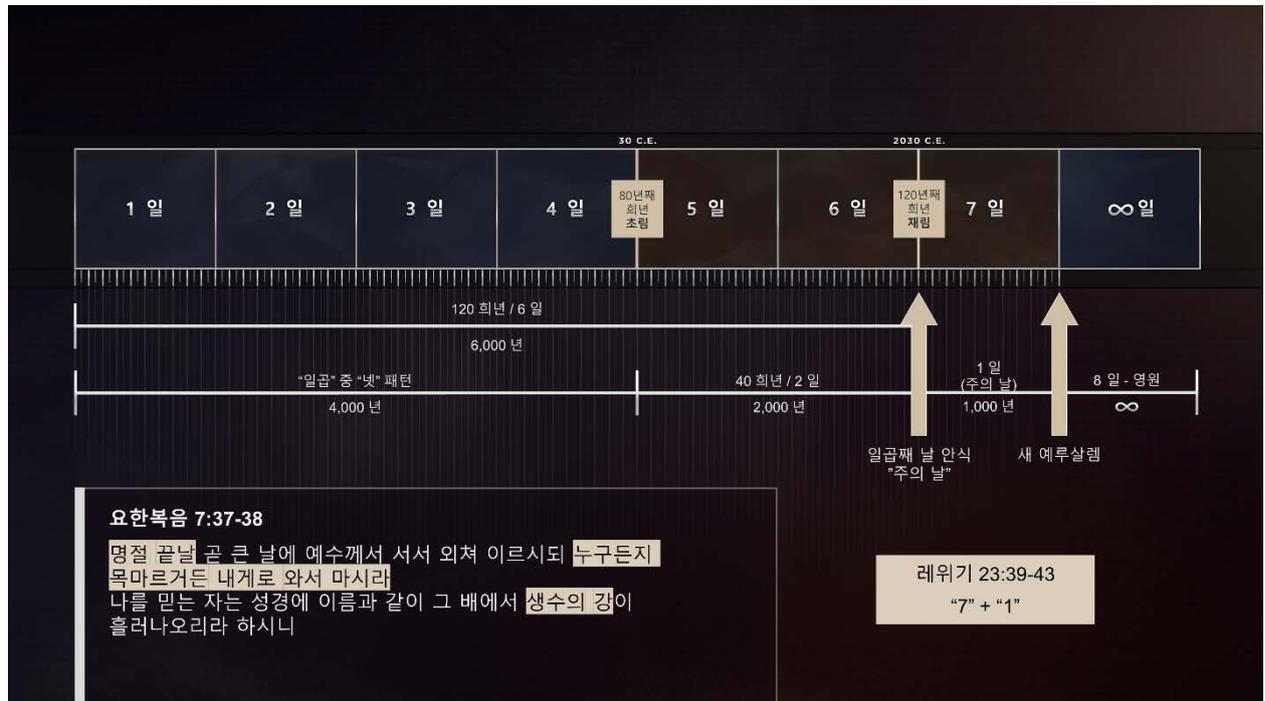
다시 "창조 예언"으로 돌아가면 옛새 후 일곱째 날은 안식입니다. "하루가 천 년" 원리를 기억해

복시다. 인류의 햇수는 6,000년이 될 것이고, 일곱째 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또는 하루, 즉 안식일에 안식하며 다스립니다. 일곱째 날이 지나고 정확하게는 여덟째 날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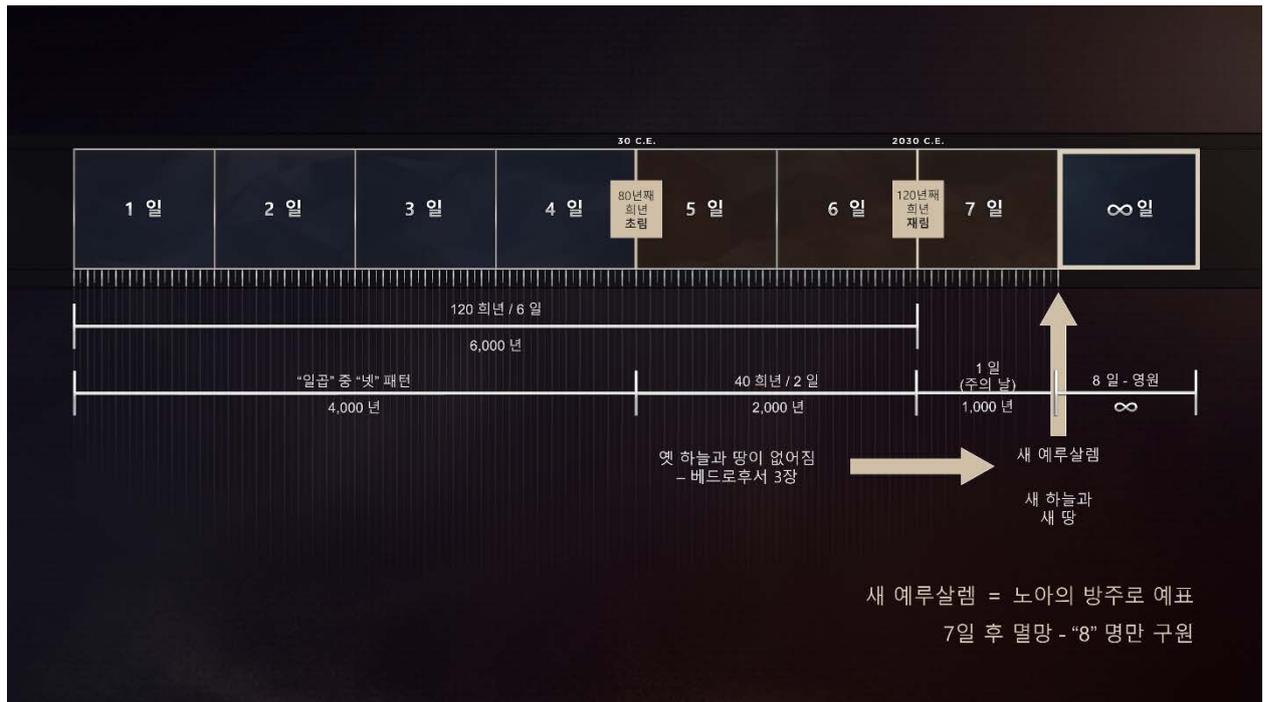
메시아께서 초막절 여덟째 날에 "생수"를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여덟째 날에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를 선물 받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이레로 묶어 지키고 신비롭게도 그 다음 날인 여덟째 날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날이 최후의 큰 날(레위기 23:39-43)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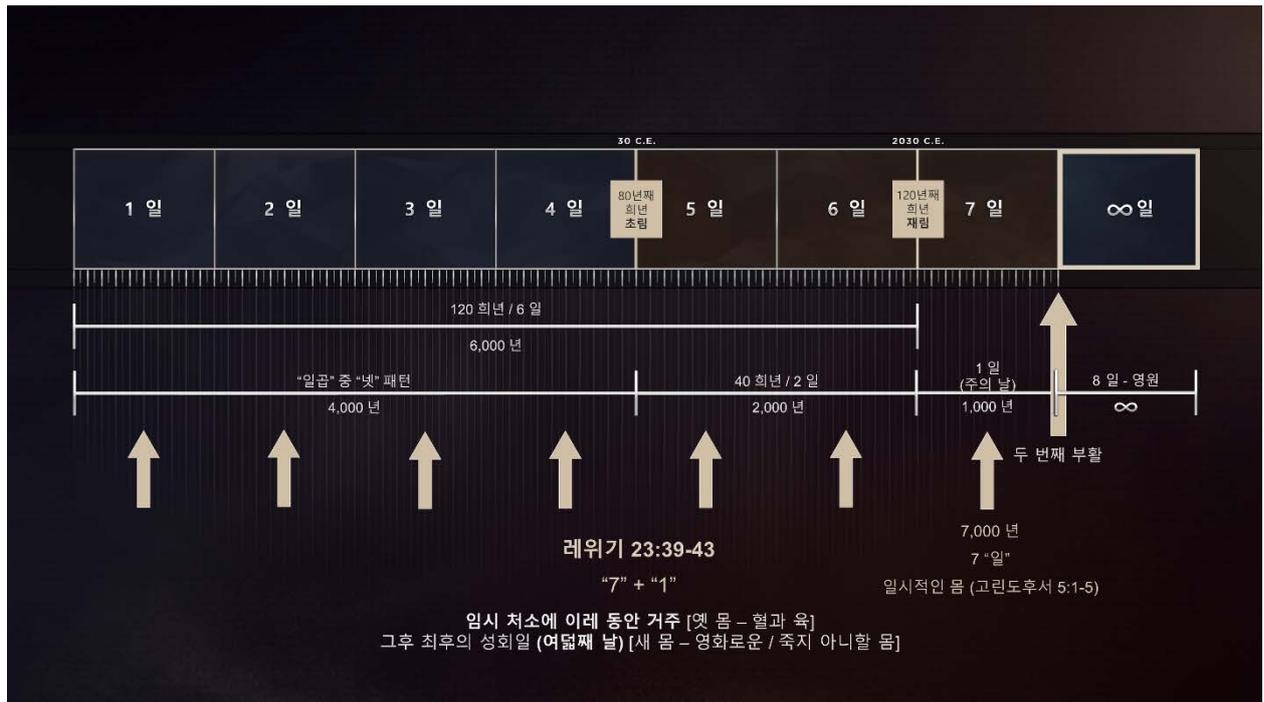
slide 70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전에 새 예루살렘이 도착하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 노아의 방주가 예표한 것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활이 일어난 후 일곱째 날을 마치고 여덟째 날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삼키는 불로 하늘과 땅을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홍수는 세레 즉 물 세레였고 마지막은 세레 즉 불 세레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주에 "여덟"명이 있었고 일곱째 날이 지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해 여덟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콧은 이 곳에서의 삶과 이 땅이 임시 거처라는 것도 깨닫게 해 줍니다. 성경의 절기인 수콧이 이레 동안 임시 거처나 초막에서 살라고 가르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7,000년 동안 삽니다. 이 땅, 또는 지금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임시 처소일 뿐입니다. 수콧에서 마지막 성회일이라고 부르는 여덟째 날에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거처인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끝이 처음에 계시되듯이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회복시킵니다. 끝의 핵심은 낙원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일시적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시적 몸을 장막 집(고린도후서 5:1-5)으로 매우 뛰어나게 표현합니다. 인류는 장막 집인 육체에서 7,000년 동안 살 것입니다. 여덟째 날이 되면 두 번의 부활이 모두 일어났을 것이며, 손으로 만들지 않은 집인 우리의 부활한 몸이 우리의 새롭고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보리 수확, 밀 수확, 포도 등 추수가 그 때쯤 모두 끝났을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추수가 끝나 기뻐하는 것이 수확의 목적입니다.

여기에도 생각해 보아야 할 예언적 암시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추수의 첫 열매, 곧 보리 추수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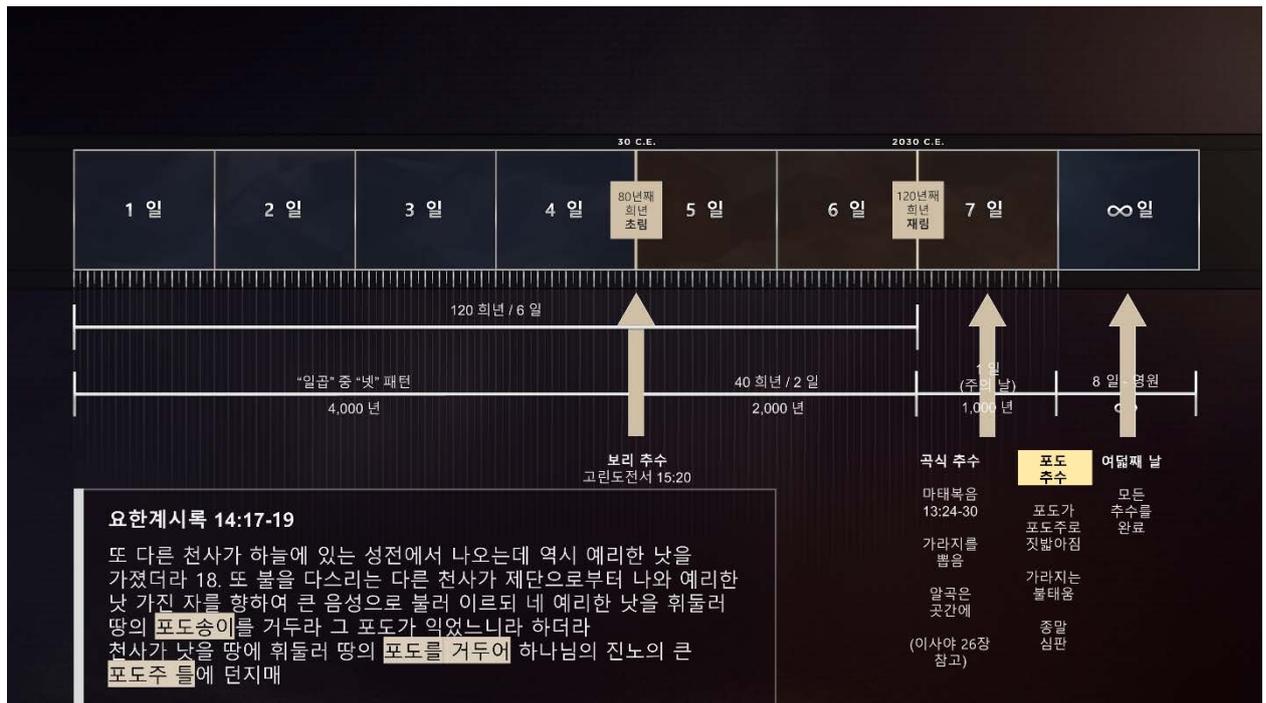
곡식 추수도 있는데,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마태복음 13:24-30).

포도 추수는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17-20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slide 73



수컷은 모든 추수의 완성이며 추수 잔치이기도 합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 때가 수컷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6-9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수컷 때일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모든 추수가 끝난 뒤의 가장 마지막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전의 낙성식 타임라인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연관성이 발견됩니다. 성전은 수컷 여덟째 날에 봉헌되었습니다.

역대하 7:8-10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칠 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칠 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이십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비슷한데, 그 성 안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대환난이 끝난 후 적그리스도가 패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방 나라들이 수컷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전체 메시아 타임라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바로 성전 메노라(등잔대)입니다. 메노라에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수없이 반복한 타임라인 패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보기만 했으면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 메노라 밑이 어두웠습니다.

메노라 예언

메노라 양식은 전체 메시아 타임라인을 개괄한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에서 중요한 메시아의 시간 지점들을 모두 표시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성막의 빛으로 묘사되었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 두어야 했습니다. 메노라는 항상 빛을 밝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7:20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메노라는 모세에게 세밀하게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31-40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 뚝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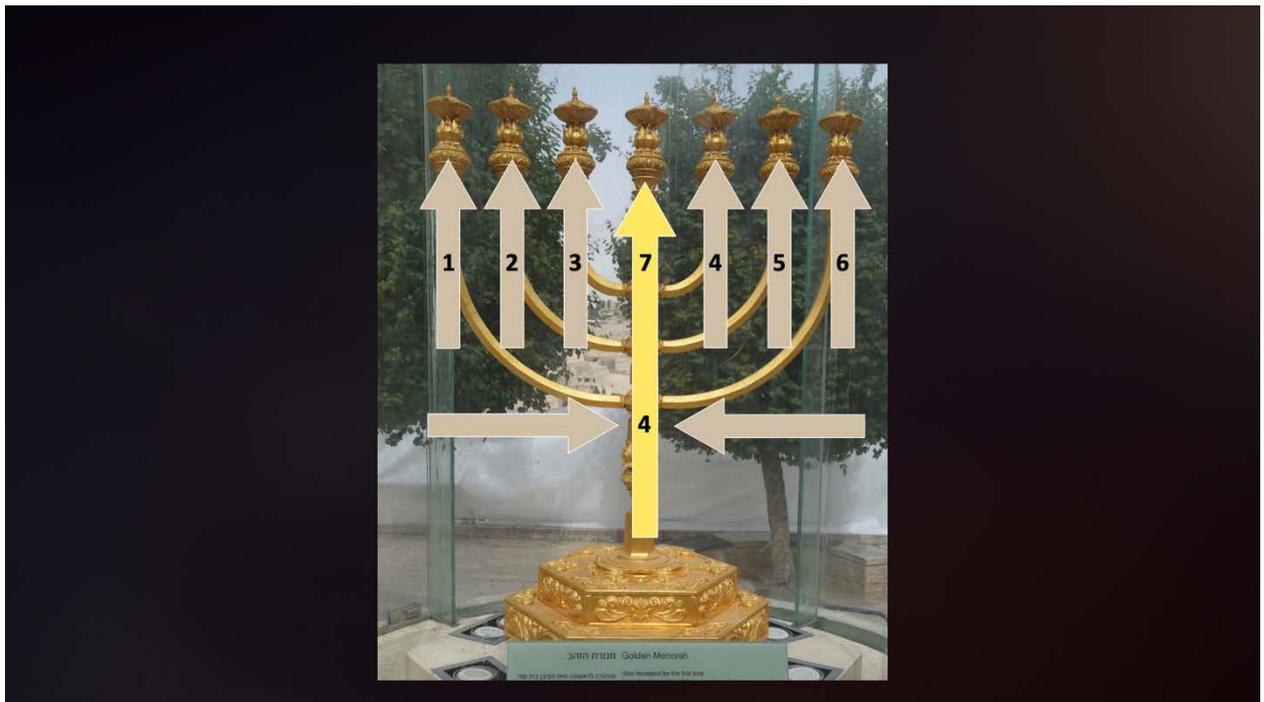
우리 메시아는 자신을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메시아는 그 등잔대, 메노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23-25



여섯 가지와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가지들이 등잔대를 둘러싸고 있는데, 메시아가 일곱째 날의 중심임을 나타냅니다. 또 등잔대의 잔이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네 번째임을 주목하세요. 앞서 배운 것을 기억해보면, 메시아가 넷째 날 끝에 오셔서 다섯째 날이 시작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여 일곱째 날이 시작될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 두 번의 시간점이 숫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알 수 있듯 등잔대 자체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본 것처럼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등잔대에 메시아 예언의 전체 8일 패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며, 특히 이 메노라 메시아 타임라인 양식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하고 결론짓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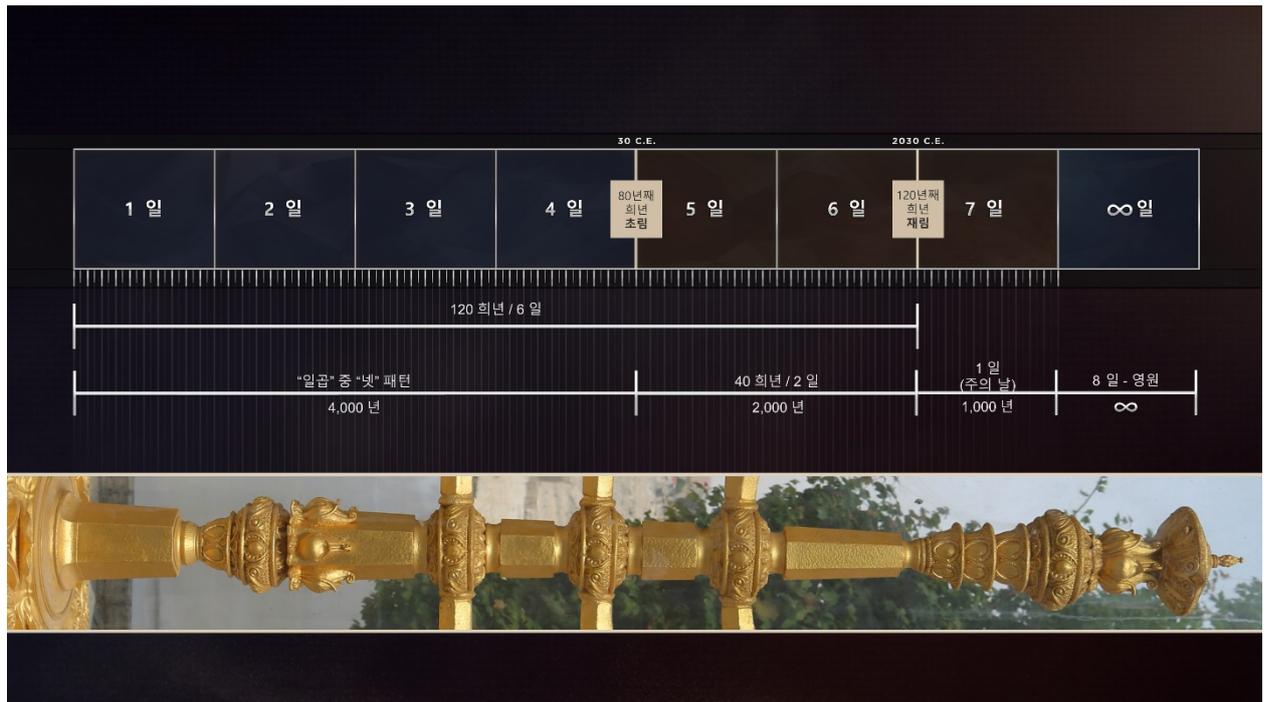
등잔대 자체는 전체 메시아 타임라인을 나타냅니다. 밑판 부분에서 시작하여 등잔대 즉 빛 자체까지 나아가면서 타임라인을 나타냅니다. 이 타임라인의 범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입니다.



메노라 패턴이 메시아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양식은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며 임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체 타임라인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다음 등잔대를 전체 메시아 타임라인에 평행하게 옆으로 놓을 것입니다.

벌써 패턴을 이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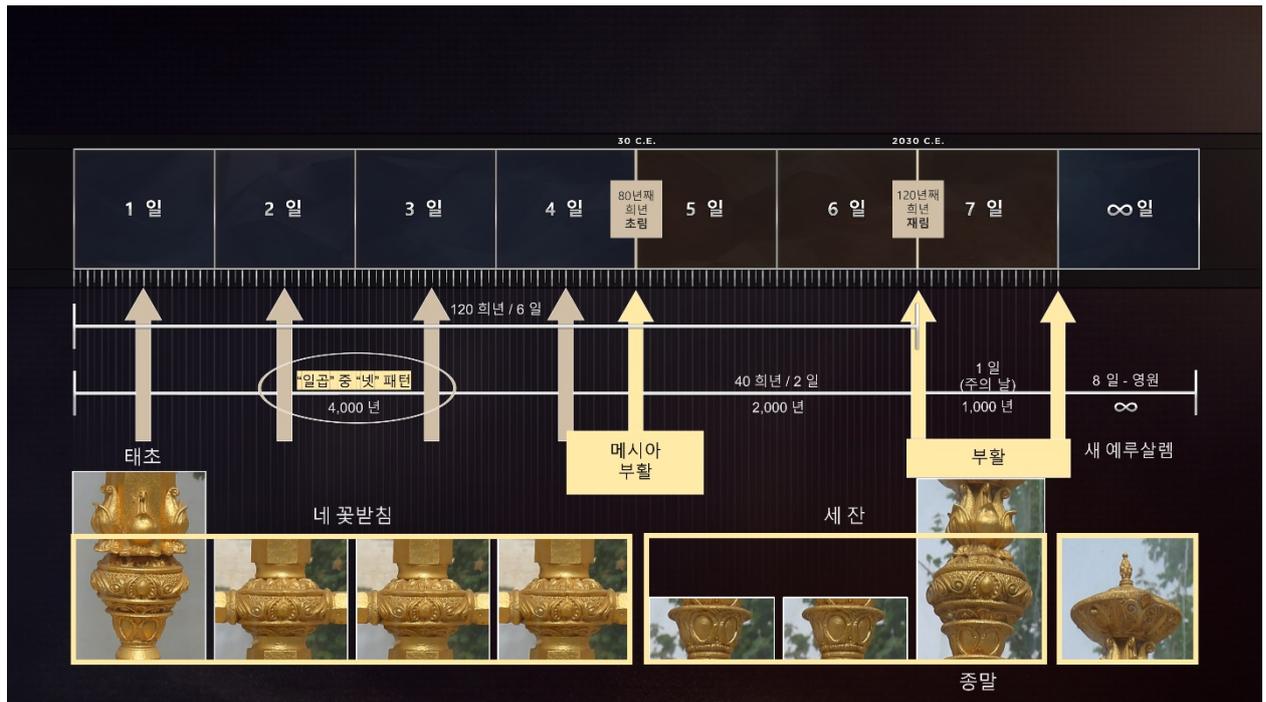


밀판 부분에서 시작하여 각 부분을 메시아 타임라인에 맞출 것입니다.

태초는 잔, 꽃받침, 꽃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 3개의 꽃받침이 더 있어서 꽃받침은 총 4개가 됩니다. 이 꽃받침들은 메시아가 부활하기 전 첫 나흘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잔 두 개와 잔 하나, 꽃받침과 꽃이 있습니다. 처음의 잔, 꽃받침과 꽃이 태초를 상징하듯 여기서도 끝을 상징하고, 부활로 시작하고 끝나는 메시아의 일곱째 날을 강조합니다. 세 개의 잔은 메시아의 부활과 마지막 또는 최후의 부활 사이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은 새 예루살렘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그 성 안에서 어린 양 메시아는 등불이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메노라처럼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 그 자체를 나타내며 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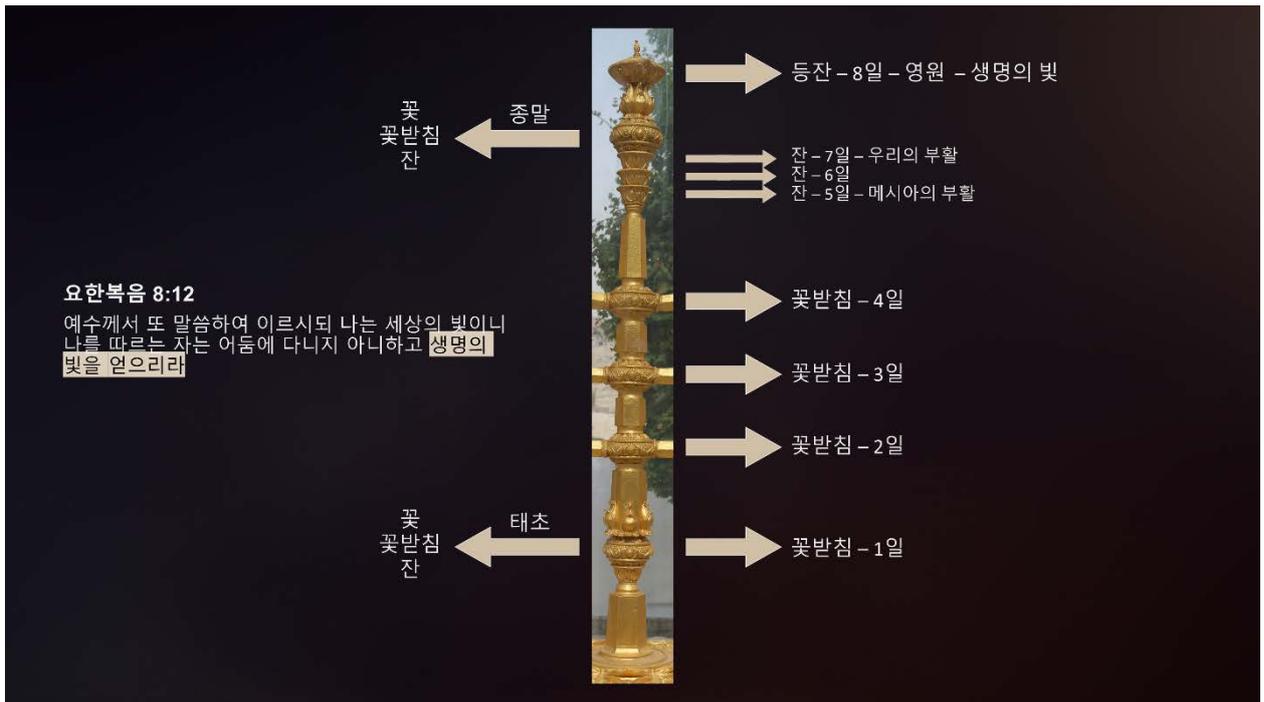


그러므로 등잔대를 다시 똑바로 세우면 바로 놓인 메시아 양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초를 나타내는 꽃, 꽃받침, 잔이 있습니다. 첫 나흘을 나타내는 네 개의 꽃받침이 있습니다. 생명으로의 부활을 포함한 메시아의 예언적 사흘을 나타내는 세 개의 잔이 있습니다. 종말을 나타내는 꽃, 꽃받침,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메시아로 다시 연결되는 등잔과 영원한 빛과 생명을 봅니다.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메노라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해서 지탱하는 씨줄이었던 동일한 메시아 예언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수십개의 예언과 패턴의 프리젠테이션을 마무리합니다. 메시아께서 성경력 4,000년 즉 서기 30년에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것과 성경력 6,000년 즉 서기 2030년에 재림하실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지켜보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귀기울여야 합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확신하신다면 지체없이 실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2030에 대한 커뮤니티 토론에 참여하시려면 Messiah2030.com 을 방문하십시오. 2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었던 수십 가지 관련 주제를 찾아볼 수 있고, 향후 중요한 업데이트나 공지 및 추가 콘텐츠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구매하시면 모든 사람이 이 콘텐츠를 접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후원하시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contact@messiah2030.com 로 문의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